금주 법구

각자 자신의 본심을 지키는 것이
많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
나의 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세세생생 호랑이에게 먹힐 것이다.
-홍인대사-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2월 21일 수요일(주간) 제 307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1)734-2680
천흥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만해 정신' 되살아난다

스님으로서 구도의 길을 걸었으며, 시인으로서 님을 노래했고, 독립운동가로서 육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만해 스님. 그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이 다시 살아난다.

일제시대 만해스님이 창간한 불교교양지 〈유심(惟心)〉이 종간된 지 83년 만인 오는 3월 복간되는 것이다.


◇만해 스님



일제시대 불교청년을 위한 계몽지로 문학과 불교의 만남을 시도했던 〈유심〉은 1918년 9월 1일 창간이후 같은 해 12월 제3호를 끝으로 종간됐었다.

끊어진 맥을 되이으며 오는 3월 1일 복간되는 〈유심(봄호, 계간)〉은 창간 당시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지만 불교교양지가 아닌 시와 시조, 소설, 평론 등을 주로 담은 순수문예지를 지향한다.

이번 복간호에는 좌담 '21세기 문학을 전망한다'에서 통일문학과 분단권력지향 문제 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또 신경림 시인과 이기철 시인의 신작 시편과 소설가 이문구씨의 '문단 뒷이야기', 김열규 염무웅 씨 등이 전하는 '만해와의 특별한 만남'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만해정신을 이 시대가 이어받아야할 이유를 밝히게 된다.

〈유심〉의 복간은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 신경림 시인, 박시교 시조시인, 이지엽교수(광주여대 문예영상학과)등 지난 여름 백담사에서 열린 만해축전에 모인 문인들이 뜻을 모은 결과 이뤄졌다. 오현스님이 고문을,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무총장 조동용변호사가 발행인을, 박시교씨가 주간을 맡았다.

〈유심〉은 만해스님과 관련된 기획물을 꾸준히 선보임과 동시에 기존 문단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지면을 할애해 창간의 의미를 더하는 한편 만해신인상을 제정해 시, 시조, 소설, 평론 분야의 신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여름 열리는 백담사 만해축전과도 연계하는 등 문학을 통해 만해스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유심〉은 불교교양지가 아닌 순수 문예지의 성격으로 모습을 바꾸기는 하지만,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불교의 정신을 문학계는 물론 사회저변에 확대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유심(惟心) 즉 '오직 마음 뿐'이라는 제호의 뜻 그대로 현상에 미혹됨 없이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며 사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잡지로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NGO 명상학교' 연다

재가연대 4월부터 시민운동가 대상 월 1회 강좌 · 실습 여름 명상캠프도

수없이 생기는 이슈,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회의와 처리해야 할 산적한 일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NGO(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은 바쁜 일상에 빠져 몸과 마음을 상하기 쉽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타인과 사회를 오랫동안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4월부터 전국의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위한 명상학교' 및 하계 명상캠프를 상설 운영한다. 자신보다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운동가들을 불교적인 정서로 안내하는 명상학교는 날로 커져만 가는 NGO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인 깨달음의 사회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서울 선학원중앙선원(예정)에서 열리는 명상학교는 월 1회 강좌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동사섭회주 용타스님, 초펠스님, 위빠사나 수행자 김열권 법사, 김홍경 한의사, 김현동양철학자 등 전문 강사진이 다양한 수행법과 동양철학적 세계관으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시민운동가들(정원 40명)의 마음과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7월에 열리는 여름 명상 캠프는 몸 돌보기, 마음 돌보기, 인간과의 연대 증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재가연대 정웅기 시민사회국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참 나'를 찾는 사람, 목적과 당위만 앞세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 활동, 따뜻한 심성으로 사람과 사회를 돌보는 활동가를 만드는 것이 명상학교의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삶의 결을 바꾸는 건강한 시민운동과 대안문화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명상학교의 효율적인 진행과 성과를 위해 시민운동가들의 수행과 명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민운동정보센터(www.kngo.net)와 함께 24일까지 진행한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졸업 … 새로운 발걸음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한 작은 마침인 졸업식. 지난 16일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졸업생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간직한 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정각원에서 졸업법회를 봉행한 불교학부 스님들의 함박웃음처럼 불교의 내일도 밝게 피어나길 기원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남북종교인 내달 27일 토론회

베이징서 … '공동선언 이행' 주제로

남과 북의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불교 개신교 등 7개 종교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효창공원 성균관장)는 15일 열린 16차 중기총회에서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종교인들의 역할'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3월 27일부터 3일 또는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며, 토론회와 함께 △6·15 공동선언 1주년에 즈음한 '민족통일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실무 협의 △남북종교간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KCRP는 이날 총회에서 종교지도자협의회와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등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토론회를 비롯한 남북종교 협력에 대해 준비하기로 했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월 27일 KCRP에 팩스를 보내 "북남의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문제와 기타 관심사를 협의하자"며 남북종교인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올해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3억 3900만원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문화재 관리 특감

감사원, 4월부터

문화재의 보존 및 정비 실태, 사적·유적지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15일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4월부터 4개월간 문화·관광·환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특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으나 종합적인 특감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를 '환경·문화 감사의 원년'으로 정한 감사원은 문화재 분야 등의 특감을 위해 지난해 말 '환경·문화감사단'을 설치한 데 이어 문화·환경 전문가 18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16일 자문위원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문화유산의 현황조차 완벽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보존·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실효성있는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조계종, 행자부·환경부·문화부에 공문

조계종 총무원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 명의로 14일 행정자치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조계종은 "한라산의 자연경관의 보존과 등 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조계종은 이어 "대규모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국립공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절한 보호·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제주도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시설물 설치 허가 요청 및 협조요청의 건은 반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서/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725-2040

핸드폰 불교 퀴즈이벤트

19일부터 선물 '듬뿍'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2000년 11월 국내 모든 무선인터넷으로 불교정보를 서비스 해 온 현대불교신문이 2월 19일부터 퀴즈 이벤트를 시작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물한다.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는 기쁨의 도가니 퀴즈이벤트는 다음과 같이 열린다.

◇퀴즈이벤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 2월 19일부터 계속~
◇어떤 문제가 나올까?
— 불교관련 상식과 기초교리
◇어떻게 만나나?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핸드폰을 열고 불교정보를 접속하면 매일 3문제가 뜬다. 정답을 맞추면 기분 좋고 모르면 속상한다. 정답 모를수록 상품이 멀어지기에.
◇당첨기회가 두 배면 상품도 두배?
— 주간 당첨자는 매주 토요일에 27명 뽑고 월간 당첨자는 주간당첨자 가운데서 16명을 뽑아 매월 108명이 행운의 주인공. 당첨자는 불교정보 공지사항에 발표. 상품은 당첨자의 전화 신청에 따라 배달해 드립.
◇상품이 푸짐하다던데?
— 주간당첨자는 패션단주를, 월간 당첨자는 현대불교신문 1년 구독권과 참선명상 방석을 택할 수 있다. 또 예쁠레 종 모형과 수암 반다라 육침(손지압)도 골라잡을 수 있다.
◇불교정보 어떻게 들어가나?
— 011에서 019까지 모든 핸드폰 무선인터넷의 종교 코너에 불교정보가 있으며 매일 신선한 기사와 각종 정보 및 데이터가 가득 차 있음.
문의 02-737-8881, rahul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장-군-죽-비

◇인간 게놈 지도 완성. 인간의 유전자 수 초파리의 2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인간과 초파리의 차이는? (8면)

◇'깨달음'을 주제로 한 무차 토론회 '화엄공장' 열리다. 토론자들의 이구동성: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떠난 깨달음은 공허하다. (9면)

◇자유! 문수의 '지혜'로 찾을 것인가 보현의 '실천'으로 찾을 것인가? 그리스인 조르바는 보현의 길에서 자유를 보았다. (14면)

◇인터넷 불교, 교양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시간 없고, 돈 없고, 책 없어서 공부 못한 불자들 다 모여라. (23면)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형가등 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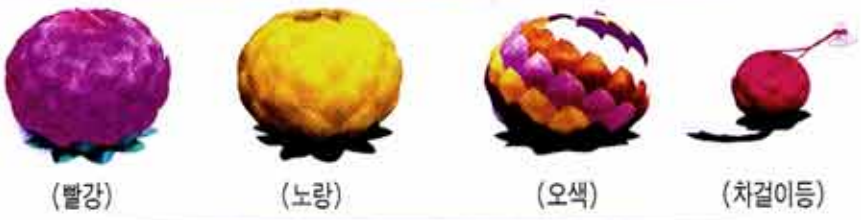
시공된 전등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안꽃집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철제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사 설

주요 종단 복지사업 기대 크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할만한 종단들이 밝힌 올해 사회복지사업 계획은 규모에 있어서나 실현성에서 주목받을만 하다. 조계종은 사회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불교자원봉사 새물결 운동'을 벌인다. 3월말부터 제주도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갖는다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서는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홍보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천태종은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 삼광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에서 '1사찰 1그룹홈'을 만들어 사찰 인근의 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진각종은 2002년 불교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그 사업을 시작한다.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실직자, 이런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찌감치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제기돼 왔었다. 불교의 자원봉사는 그동안 다른 종교·사회단체에 비교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원봉사자를 찾아내고 분류하고 관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전국의 독거노인 인구는 19만명에 이른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남의 보살핌 없이 육신을 지탱하기 힘든 이웃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주요 종단들의 복지사업 청사진을 대하며, 유마 거사의 유명한 가르침이 떠오른다. "보살도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여기므로 중생들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이 나고 중생의 병이 쾌유되면 보살의 병도 쾌유되는 것입니다." 대승보살상의 전형인 유마 거사의 가르침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아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각 종단의 계획은 천리길의 도정에서 첫 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 더욱 많은 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계획이 중도에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그쳐야 한다.

보존 우선의 문화재정책 펴라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믿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 같다. 최근 붕괴 위기에 놓인 감은사터 동탑이 그것을 말해준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감은사터 동서 쌍탑은 2차에 걸쳐서 해체·보수된 바 있는데, 서탑은 1959년 그리고 동탑은 1996년에 각각 보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탑의 보수 과정을 보면, 그 허술함의 정도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해체 후 복원 과정에서, 정교하게 배치된 기단 내부의 잡석 구조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아무 돌이나 잡히는 대로 쓸어넣듯이 되매우기를 한 것이다. 석탑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극히 초보적인 상식을 무시했다는 얘기다.

위기에 처한 문화재가 이것만이 아니다. 경북 안동 신세동 7층전탑(국보 제16호)은 3m 남짓 떨어진 철길 옆에서 하루 수십 차례의 열차 진동에 신음하고 있고,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보물 제226호)도 기단부와 탑신부의 아귀가 맞지않아 벌어진 틈새에 돌맹이와 풀이 자리잡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나 보령 성주사터 삼층석탑(보물 제20호)과 같은 경우는 보수시 잘못된 부재 사용의 해악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근 들어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고조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거품 현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더욱이 현정부 문화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문화재의 관광자원화'고 보면, 관광지화가 어려운 절터나 학술적 가치는 뛰어나지만 볼거리로서 세인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문화재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닿는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종속된 게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왜곡돼거나 손상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존하는 것이야 말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길이다.

"주지 고과 도입 바람직"

포교·사찰운영 평가 따라 재임여부 판단

조계종포교원 보고서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해 고과제도의 실시 등 주지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명조)이 14일 배포한 〈지역포교 리포트〉에 따르면, "주지 스님이 바뀔 때마다 종무의 기조가 달라지면서 사찰의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이로 인해 모든 사업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지 스님이 재임을 원할 경우 곧 재임을 실시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지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역포교 리포트〉는 포교연구실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0개 시·군·구 지역의 19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보고서로, '지역포교 방법론'과 19개 사찰의 현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 활동 사례를 모았다.

이 책자에서 포교연구실은 주지 인사제도와 관련, 주지스님의 변동이 해당 지역사찰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공찰 주지스님의 임기와 인사의 평가 기준, 사찰의 운영과 포교 성과에 대한 고과 기준이 마련되어 투명한 평가 속에 주지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실은 또 △주지 인수인계시 지역 정서와 주민 현황, 신도 의식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의 보완 △사찰 재정의 지역사회 회향 정도를 감사 내용에 추가 △종무원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실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지스님과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지역포교에 대한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정서의 파악, 신도교육을 통한 보조 전문 인력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인터뷰 총지종 새 통리원장 혜암 종사

"복지센터 세우고 인터넷 포교"



"오탁악세의 혼미속에 헤매이는 중생들에게 밀교진언의 묘리를 깨닫게 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발전하는 총지종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5일 총본산 총지사에서 총지종 제12대 통리원장에 취임한 혜암종사(66)는 "종단체제를 개편하고 화합으로 종단운영과 대중교화에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혜암 통리원장은 재임중 꼭 해야 할 일로 스승들의 법의의 위의를 갖추고 불단 장엄 문제 등 종단 내부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중생교화에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단위의 세분화된 포교모임과 신도회 조직을 활성화시켜 종단의 역량을 축적하고 인터넷 포교, 영상포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지종 용어해설사전, 불교총전, 종조법설집 등을 간행, 밀교의궤와 밀교경전의 복원과 역경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태고종 내분 심화

중앙종회 13일 새 총무원장 법장스님 선출

총 무 원 "종회무효 가처분신청…관련자 징계"

태고종 내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고종 중앙종회(종회의장 남파)는 13일 순천시내 로얄호텔에서 총 49명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회 임시종회를 열고 새 총무원장에 현 중앙종회 부의장인 법장스님(수원 대련사 주지)을, 부원장에는 지허스님(선암사 주지)과 대운스님(중앙종회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종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선암사에서 열린 제79회 종회에서의 제19대 총무원장 선거와 송종연 총무원장 당선의 원천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종연 총무원장은 14일 각급 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순천에서 열린 임시종회가 원천무효임을 강조하고, 관련자 문책, 법원에 종회무효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종연스님은 당일 오전 성북동 총무원청사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화합을 위해 대화창구는 계속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경숙 기자

국가공원청 설립 추진

제도개선위 7~8일 워크숍

조계종,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16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국립공원시민위, 공동대표 원택스님)는 7~8일 워크숍을 갖고, 국립공원특별법 및 국가공원청 설립을 위한 국가공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립공원시민위는 15일 환경부의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대해 "공원구역 조정 외 지역에서의 개발 압력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봉선사 새 주지 일면스님



봉선사는 12일 산중총회를 열어 재적 선거인 72명 가운데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일면스님을 새 주지로 뽑았다. 임기는 3월 19일부터 4년 동안이다. 일면스님은 당선 직후 "봉선사를 교육과 역경을 잘 하는 도량, 가장 모범적인 본사로 가꿔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4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일면스님은 59년 해인사에서 명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10, 11대 중앙종회의원(11대 때는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교육원장, 광동학원 이사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정성운 기자

선각·원타스님 당선

조계종 종회의원 보선



13일 실시한 해인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각스님(사진 왼쪽)이 당선됐다. 선각스님은 혜인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편 직능대표선출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원타스님(해인사)을 선원대표로 보궐선출했다.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타스님은 75년 해인사 안거 이래 15하안거를 성만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 구 원



한겨울

"우리나라 종교단체 부패" 52% 기업인 설문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로 부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단체의 부패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이 같은 질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51.8%가 그렇다고 답했다. 행정자치부(56.4%)나 재정경제부·사법부(53.7%)보다는 낮았으나, 청와대(45.3%)한국은행(44.5%)보다 높았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부패하다(35.1%)보다 부패하지 않다(37.9%)는 응답이 약간 많았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소장 강철규) 선임연구원 조은경 박사가 지난 해 12월 우리나라 기업인(사장과 임원, 일반직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가운데 기관별 부패 인지도를 묻는 설문 문항의 결과다. 조 박사는 최근 '새 무역장벽-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와 싸우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회(35.2%), 시민단체(23.1%), 검찰(14.8%)을 꼽았다. 종교단체에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인은 없었다.

기업인들 대상의 조사여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종교단체를 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박사는 이 논문에서 "기업인들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부패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

제3회 미륵사상 정립 학술대회

서산에 해가 기울고 동방의 해가 떠오르니, 세상은 바야흐로 서양의 물질문명에서 동양의 정신세계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미륵사상 연구협의회에서는 지난 오천년 동안 민족정신의 뿌리가 되어온 심천불이(心天不二)의 미륵사상을 연구하고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지본(人之本)의 충효성경으로 자주성을 확립하며, 한민족의 51세기를 창조하는 바탕을 준비하여 이 땅에 도덕복지국가를 이루고 나아가 세계일가의 종주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미륵사상 정립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민족의 뜻을 하나로 화합하고 민족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미륵대도 인본훈(人本訓) ◆

나라에 忠誠함은 國民의 道理이고,
父母에 孝道함은 子息의 道理이며,
聖賢에 誠敬함은 人間의 道理이니라.

발표논문주제

기조발표-한민족과 미륵사상 ..... 노 길 명(고려대 인문대학장)
한국미륵신앙의 현황과 그 성격 ..... 이 경 우(한국새종교연구원장)
미륵대도와 미륵사상 ..... 강 돈 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미륵사상과 화해정신 ..... 신 광 철(한신대 종교문화학과)
청정국토의 건설과 미륵사상 ..... 윤 승 용(한신대 종교문화학과)
51세기의 새로운 기성종교 ..... 신 수 현(미륵사상연구협의회연구위원)

행사안내

■ 일 시 : 2001년 2월 27일 오후 1시~6시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울 태평로 소재)
■ 주 최 : (사)미륵사상연구협의회
■ 주 관 :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 후 원 : 문화관광부, (재)대도문화재단, 海印大道
■ 연락처 : (사)미륵사상연구협의회 사무국(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산84-3)
TEL:(032)831-6803, FAX:(032)831-8967
E-mail:miruckidea@hanmail.net

목어

깨달음의 민주주의



"왜 저 양반은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자신의 주장을 성급히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잡히기 시작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이성을 통해 이해되고, 그 다음에는 가슴에 와 닿는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조그만 눈뜸이 내 가슴에 잔잔한 기쁨으로 번져 나간다.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9일 열렸던 화엄광장 첫번째 마당. 그날 토론의 내용도 귀했지만, 서로 마주하여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자리였다. 우리 중생이 모두 부처이고,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 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불성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찬연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아닐는지? 우리의 조그만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 그것들은 불성과는 다른 것으로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병이 아닐는지?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동안 그 분의 삶을 통하여 우러나온 귀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깨달음의 빛이라고 느꼈다.

궁극적인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지금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조그만 깨달음을 어디 견줄 수야 있겠는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이 하루 하루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조그만 깨달음들을 하찮은 알음알이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궁극적인 깨달음을 저 먼 곳에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 먼 것은 아닐까? 조그만 깨달음을 모으고 또 서로 나누는 가운데 부처님의 큰 깨달음으로 열려져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총무원장 자질 시비… 결국 '두 원장'

태고종 내분 '왜 이 지경까지'

'7인방' 이해득실 따라 양분 갈등 심화
"소송 안된다…대화로 풀자" 희망사항

종연 총무원장의 자질 시비로 시작된 태고종 분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현 총무원측에서 13일 열린 임시종회가 불법이며, 운산스님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계속 종권에 도전할 경우 사정원을 통해 중징계한다는 강경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총무원측과 비주류(운산스님을 지지하는 종회의원 등 스님들)측의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내분은 종연 총무원장의 자질시비로 비롯됐지만 세칭 7인방으로 불리는 태고종 중진 스님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종정스님 유시까지 양쪽에서 이용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1표차 당선' 마찰불씨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태고종 제 79회 중앙종회에서 종연스님이 운산스님을 1표로 누르고 당선되고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운산스님을 지지했던 인공스님(봉원사 주지)은 12월 초 종회의장에게 보내는 청원서 형식으로 종연스님이 가야산 유사종교단체에 심취해 있다는 등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는 신문광고를 냈다. 대은(종무원장협의회장) 원법(전 총무원 부원장) 스님 등도 잇따라 성명서 등을 내며 가세했다. 일부 종회의원들은 3월 임시종회에서 종연 총무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을 것을 공공연히 시사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종연 총무원장은 2월 1일 담화문형식을 빌어 "자신에 대한 일체의 시비가 다 근거가 없고 음해"라고 밝혔다. 담화문이 나오자 사태가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총무원이 '14일 3원장과 각급기관장 회의를 열어 3월 종회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하자 중앙종회는 재빨리 14일보다 하루먼저인 13일에 종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때부터 총무원과 종회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총무원은 종회법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는 총무원측과 중앙종회측의 충돌을 막기위해 13일 '종단분규에 관여하지 않겠다' 는 현수막을 내걸고 산문을 폐쇄,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제25조 제1항 1호에 '중앙종회의 소집은 종회의장이 총무원장의 동의를 얻어 개최 7일전에 소집한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원장의 동의없는 중앙종회 소집은 불법이라고 천명했고, 중앙종회는 24조 1항의 '중앙종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무원장이나 중앙종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종회를 개최한다' 는 조항을 들어 13일 종회가 적법하고 따라서 종연 총무원장은 탄핵되었고 새로 선출된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했다.

태고종내 여론도 둘로

총무원측은 급기야 14일, 비주류측이 계속 이유없이 종권에 도전한다면 이를 해종행위로 간주 사정원에 의한 중징계와 임시종회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비주류측은 "종회개최는 입법기구로서의 고유권한인 만큼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해종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종단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지금까지 어느 단체 하나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지 않는 것은 태고종내 여론이 거의 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태고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7인방' 이 이해득실에 따라, 운산-대운-인공 스님, 인곡-운경-백우 스님 등 둘로 갈라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다. '7인방' 이란 태고종 창종 이후 사실상 종단행정을 주도하며 3부기관등 요직을 도맡아온 인곡 윤산대운 인공 벽파 운경 백우 스님을 지칭한다. 이들은 이른바 조태 분규의 와중에서 '태고 보우스님의 종지를 살려보자' 는 도원결의를 통해 74년 애종심으로 굳게 규합했다. 이들은 총무원 부장 등에 전격 기용되며 태고종 위상을 세워오고 성과도 도출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요직 잠식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

"원로스님 중재나서야"

지난 1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연스님이 참신하고 젊은 이미지로 후보에 오르고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7인방에 대한 식상함이 종단 저변에 깔려있어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이 컸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내분이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결국 분종 탈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기위해 중립적 입장의 중진 원로들이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태고종은 원로스님들의 모임인 승정원도 있고 각 교구종무원장들의 권한도 만만치 않다. 또 당사자들도 한발짝씩 양보해 종단을 위해 모였던 74년 당시 '도원결의' 를 떠올리며 대화를 통한 수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민주당, 종교위 상설특위로 격상
한나라당, 이총재 - 정대 스님 만남기대

종교계에 눈길주는 정치권

정치권의 불교계에 대한 '공세' 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당내 종교위원회를 상설특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이회창 총재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곧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당4역회의에서 이재정 연수원장은 "종교특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구성돼 있는 비상설 종교특위의 활동을 활성화하되, 상설화를 통해 종교문제를 실질적으로 전담할 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위 내에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단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종교 지원과 발전 과제 논의,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 등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조직강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한 불교인사는 "지난달 19일 정대스님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판 발언 이후 종교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이 총재와 정대스님과의 만남 여부도 주목된다. 정대스님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곧 만날 것이라는 동아일보의 13일자 보도와 관련, 총무원의 한 부장 스님은 "한나라당의 몇 인사가 흘린 말 같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스님은 "정대스님이 이 총재를 만난다 해도 당사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총재비서실과 총무원 사이에 두 분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사서실은 "두 분의 만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만난다 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는 "불교계가 공략 대상인가. 불교가 정치에 무관할 수 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바른 정치가 되도록 감시하고 충고해야 한다. 정치권은 불교계를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위한 공략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KCRP 올 어떤사업 펼치나

종교 중진들 대화캠프
'종교문화 이해' 강좌

86년 창립, 종교간 협의기구로 활동해온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그 동안 종교간 상호이해와 협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함께 3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종교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종교 교직자들의 대화캠프를 처음 열기로 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총회에서 확정한 KCRP의 올해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제1회 종단교역자 대화캠프〉 각 종교의 교직자들과 종교 관련 학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이다. 종교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길희성 서강대 교수)에서 주관해 5월에 캠프를 연다.

그 동안 KCRP를 비롯 여러 단체에서 예비 교역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간 대화모임은 종종 있었으나, 각 종교의 중진들이 참석해 이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

〈종교문화 이해 강좌〉 지난 해에 이어 '젊은 종교인 대화 모임' 을 이번 달과 8월, 두 차례 갖는다. 각 종교의 소장층 교역자 및 학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종교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을 시도해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폭을 넓힌다. '이웃종교문화 이해 강좌' 는 6월과 8월에 각 6주간씩 열린다.



◇15일 열린 KCRP 정기총회 모습.

〈종교청년 문화 축제〉 각 종교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종교문화를 다양한 예술장르로 표현하는 문화예술축제이다. 7월중 5박6일의 일정으로 열리며,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30여명 정도의 청년들도 참가하도록 해 한국의 종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8.15를 전후해 남북평화통일기원 기도회를 주최하고,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 종교평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 opensoul.co.kr)를 상반기중 개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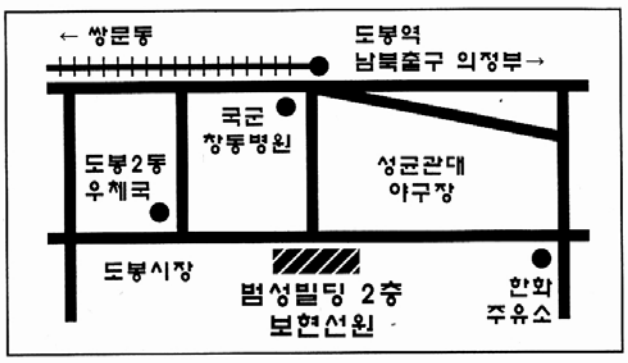
정성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원(시민선방)
서암대선사초청법회


서암 스님

서암대선사 위대한 자기 완성의길

2001년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 교통안내
▫ 지 하 철 : 1호선 도봉역에서 도보로 5분
1호선 창동역에서 75번 마을버스를 타고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 일반버스 : 15, 20, 20-1, 125, 135-1번,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문의 : 02) 3494-6441-2
장소 : 보현선원 (시민선방)
위치 :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성균관대 야구장 맞은편.

일주문



'자기완성의 길' 법문

서암 전 조계종 종정은 3월 4일 서울 보현선원에서 '위대한 자기완성의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02)3494-6641~2



2월 다보법회 법문

도법 실상사 주지는 28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미얀마에 컴퓨터 기증

지원 삼보사 주지는 11일 미얀마 교육부를 방문해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기증하고 두 나라 문화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자아와 명상' 강의

도오 경주 자은사 주지는 3월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학과에 출강, '자아와 명상'을 주제로 강의한다.



장학금 3천만원 전달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17일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중·고·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 3083만원을 전달했다.



국회도서관과 정보협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2일 국회도서관 최문휴 관장과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학술정보협력 협정을 맺었다.



박물관의 역할·기능 강의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15일 거제박물관대학 대강당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강의했다.



월드컵 문화단장에

이태행 전 불교TV 방송본부장은 지난 1월 26일 2002년 월드컵 조직위 문화행사 추진단장으로 임명됐다.



불교문화대학원 입학

설동근 (사진 위) 부산시교육감과 강선태(사진 아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올해 신설된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학장 도업스님) 지도자 과정과 정규과정에 합격했다. 불교문화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생은 55명이며, 정규과정은 20명이다.



"인도·제3세계 구호 앞장"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⑥

한국 JTS 사무국장

이 지 현 씨



"올해는 인도 및 제3세계 개발구호사업의 현지화에 주력할 방침이예요. 아울러 시골 마을 노인들의 그룹 홈 만들기 등 노인복지사업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한국JTS 이지현(39) 사무국장은 JTS가 벌이는 4대 사업 즉 인도·제3세계 및 북한 개발구호사업과 중국동포 돕기, 국내복지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회원확대와 모금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후원 1천명, 단체후원 30개를 확대해 5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자선 콘서트 및 바자회 등 다양한 모금행사를 추진하며, 통일부와 국제협력단 등 정부 지원금을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 올해 목표다.

해오 구호사업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인도에 현지법인화를 추진해 제3세계 개발구호사업의 중심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개원한 지바카병원을 활성화하고 중·고등학교 2층 건물과 궤스트 하우스, 대강당을 신축하며 몽고의 어린이 개발사업,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 및 무료급식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예산(약 16-22억원)의 70%를 투입하는 북한 개발구호사업은 기존의 나진·선봉지역 어린이 영양식 공급을 온성지역으로 공급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식목기술 및 비료지원을 지속하면서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두배로 늘일 방침이다.

국내복지사업 분야는 년 3회 교화소 및 대안학교 청소년 심성수련을 실시하고, 실직자 수련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처음으로 울산 근교 복안리 5가구에 노인 그룹 홈을 운영한다.

숙명여대 80학번으로 오랫동안 대불련 활동을 해 온 이 국장은 91년 법륜스님의 〈실천적 불교사상의 신앙지침〉이란 책을 보고 정토회와 인연이 되었다.

이후 정토불교대에서 청소년포교를 담당해 온 이국장은 3년전부터 JTS의 실무 중책을 맡아, 남편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과 함께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법 몰라 억울한 서민 없어야죠"

무료 화상법률상담 이종오 변호사



"동체대비하는 마음으로 상담 신청자들의 법률적 고충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일부터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무료화상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종오(51) 변호사는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교계에선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민사를 비롯해 형사 및 가사사건까지 모든 법률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은평·중랑 구청 등에서 90년부터 7년 동안 무료 법률상담의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는 "법을 제대로 몰라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화상상담은 얼굴을 마주보며 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를 불문하고 상담을 받기 때문에 포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변호사는 10여 년 동안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을 비롯한 불서를 2천여 권 이상 읽었을 정도로 불심도 돈독하다.

이 변호사는 법률적 상담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함께 나누는 인생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에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무료법률화상사이트(la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www.buddhapia.com),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buddhanews.com)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22-4162)

김주일 기자(jjkim@buddhapia.com)

"관광보다 민족영산 더 소중"

한라산케이블카 반대 도민연대 대표 광조 스님



"한라산은 백두산과 함께 민족의 성산으로 제주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이 추앙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손때가 가장 적게 묻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자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라산케이블카반대 도민연대 상임대표 광조스님(관음사 부주지, 조계종 종회의원)은 제주도 당국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서를 낸 12일 "한라산을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곳은 영실에서 윗오름새에 이르는 3.5㎞ 구간. 영실과~윗오름새 구간에 대형 철주 25개가 세워지고, 두 지역에 각각 1만평씩을 파헤쳐 승·하차장을 들어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광조스님은 "영실에서 윗오름새 구간은 한라산의 심장부로, 자연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며, 제주도민들은 이곳에 한라산 영기가 뭉쳐있다고 믿고 있다"며 관광사업을 위해 제주도민의 소박한 믿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인공적인 것에 환멸을 느껴온 지 오래 됐다. 한라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둘러보는 눈요기꺼리로 만들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조스님은 또 관광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지인이 한라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2박을 하며 제주도에 머물러야 하나,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체류 기간이 짧아져 전체적인 관광 수익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형 그대로의 한라산으로 보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한 광조스님은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할 경우 불자들과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좋은벗풍경소리 총재·대표 취임법회

좋은벗 풍경소리는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재 및 대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과 덕신 스님(장경사 주지)이 새 총재와 대표로 각각 임명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 스님 등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평불협 창립 9돌 기념법회·정총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공동회장 법타)는 12일 서울 송현클럽 금강산룸에서 창립 9돌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타 스님은 "남북불교 3단계 통합론(교류협력 → 연합 → 통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총재로 추대됐다.



일념장학회 장학금 1천만원 전달식

일념장학회(이사장 임대자행)는 9일 영광도서 사랑방에서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71년 경봉 스님의 원력으로 창립하여 중앙승가대, 김해교도소, 수재의연금 등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온 일념장학회는 이날 중앙승가대 원행 스님, 김태주 동아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19명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불교 법사대학 법사품수 법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총재 도암)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안중철)은 11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제9회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대승종 종정 도암 스님과 여래종 종정 인왕스님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도암 스님은 "법사의 가치관을 투철히 확립해 끊임없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올해는 모두 60명이 법사법위를 받았다.

2001학년도 (남·여) 제 11기

영·유아 보육교사 신입생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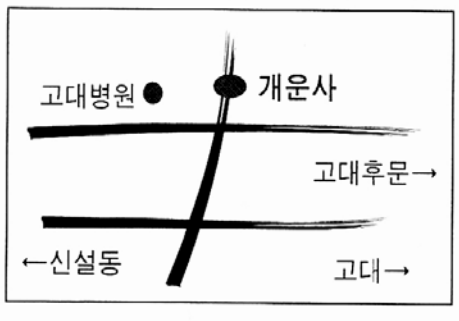
▣ 모집인원 및 대상

과 정	구 분	모집인원	수업기간	수 업 시 간	대 상
양성과정	오전반	100	1년	09:30 ~ 13:00	· 고졸이상의 학력인정자 · 2001년 졸업 예정자 · 검정고시 학력인정자
	야간반	100	1년	18:30 ~ 22:00	

▣ 원서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에서 직접접수(토·일 접수가능)
● 구비서류
1) 반명함판 사진 - 4매
2) 주민등록등본(초본) -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1부
4) 입학원서 작성(본 교육원에서 배부)

▣ 등록금 931,000 원
▣ 등록처 본 교육원 교학과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중앙승가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특전
1. 무시험검정 보육교사2급 자격취득 (보건복지부 장관)
2. 관인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교사로 근무 및 직접운영 (40인 미만)
3. 방과 후 아동지도반 운영 및 지도 교사로 취임
4.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특별전형
5. 재학중 아르바이트 알선과 수료후 취업알선
6. 해외 유아교육기관 탐방 (희망자)
7. 클래식피아노 정규과목으로 책임지도
8. 레크리에이션, 종이접기 자격 동시취득
9. 지하철 이용시 "할인혜택"

◆ 버스(개운사입구) : 38번(적색) 803번
◆ 버스(안암로타리) : 7, 19, 28, 30, 34, 38, 154-1, 161
◆ 좌석 : 2, 28, 30-1, 154, 161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돈암역(재일은행)앞 마을버스이용(고대병원과 개운사쪽)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1번출구) 마을버스이용(개운사입구 하차)
◆ 지하철 6호선 안암역(2번출구) 도보 3분거리

※ 문의 : 교학과 02)929-5004, 02)926-9083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 02)929-5004, 926-9083

"불교가 좋아서 포교사 됐어요"


◇유구자씨


◇김윤하씨


◇이귀인씨


◇류성현씨

김윤하씨 염불 생활화하는 금융계 마당발
유구자씨 어린이 · 청소년포교 열정 남달라
류성현씨 교정회지 편집 · 죄업 녹이기 앞장
이귀인씨 버려진 석불보호 · 전방 장병포교

금융단 불교연합회 운영위원장 김윤하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재무부장 유구자씨,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편집국장 류성현씨,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이귀인씨. 이들은 직장직능 불자회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로 최근 실시된 제 6회 조계종 포교사 고시에 합격해 10~11일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포교사 연수를 받았다. 아직 3월 3~4일 실시될 2차 연수와 품수식이 남아있긴 하나 이들 예비포교사는 자신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는 물론 군인, 직장인, 어린이 · 청소년, 재소자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오늘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고교시절 제주 룸비니 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 신행생활을 시작한 김윤하(49)씨는 한빛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1개 은행불자회가 소속된 금융단 불교연합회의 '마당발'로 통한다. 지난 93년 수협중앙회 불자회를 창립하고 각 은행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은행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또 동산불교대학에 진학해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했고 전국만일염불회에 가입해 염불을 생활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직장불자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직장법회가 활성화 될 것인지 알 것 같다"는 김 위원장은 "앞으로 포교사단 직장포교팀에 가입해 직장법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9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유구자(60)씨는 불자교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을 주도했고 지금은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키워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장스님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그는 앞으로도 어린이 법회 활성화, 초발심 교사들의 수행정진 활동 지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친척의 권유로 불교에 입문한 그는 법사불교대학에 진학해 불교적 소양을 높이고 매년 사찰수련대회에 참석하는 등 교리공부와 수행에도 열심이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보인 '밝은 소식'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류성현(40)씨.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재소자들에게 불법을 홍포하여 그늘지고 증오심 많은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다. 그래서 그는 영등포구치소 직원불자회인 사홍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늘우재소자 영치금 전달, 경전 및 합장주 보시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불자로서 또한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재소자 포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그는 틈틈이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부처님의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전법에 나서는 직장 불자들이 늘고있다. 사진은 지난 10~11일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실시된 포교사1차연수모습.

등산을 좋아한다는 이귀인(49)씨는 산에 석불이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지난해 한국석불선양회를 창립, 석불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육군 28사단 포병부대 두리정사의 지도법사로 매월 한차례씩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전법사다. 불교를 통해 배운 것을 회향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 포교사로써 아무도 찾지 않는 전방 오지부대 신병교육대 법회를 지원해 청년불자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서울구치소, 서울시청, 수원구치소 불자회, 한국석불선양회, BBS교통통신원 등 직장불자 20여명도 포교사로 전법에 나설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행자부 불자회 신년하례

행자부불자회(회장 하재준)는 13일 서울 법련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연기법'을 주제로 법련사 주지 오경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아직 불자회가 미창립된 국무총리실, 통일부 불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불동 지역모임 정기법회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삽 이성모) 서울경기지역회는 11일 서울 충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참선과 사찰예절을 배웠다.

또한 백제모임도 11일 대흥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도정 스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으며 신심을 키웠다.

공정거래위 임시총회

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회장 강평수)는 지난 9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현 강평수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고 부회장에 최정렬씨, 총무에 양종수, 이현숙씨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강회장은 "올해는 지도법사 위촉, 매주 정기법회와 매월 과천정부청사 합동법회 봉행, 사찰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불자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불선양회 석불 참배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11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 주변에 위치한 계신리 마애석불을 참배, 육법공양물을 올리고 예불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60여명의 회원들은 경제회복과 상생의 삶을 기원했다.

'자비정신' 새싹불심 키우겠다

부산교사불자련 박현희 새회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불성을 일깨우는 참 스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겸해 열린 특별 법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부산시교사불자연합회 박현희(59 수안초등 교장) 회장의 각오가 새롭다. 박 회장은 우선 현재 각 지회별로 조직되어 7백여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사불자회에 더욱 내실을 기한다는 목표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불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교사불자회 창립의 근본 취지인 만큼 자비, 이타정신을 교육에 잘 접목시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6개 교육청, 유치원부, 퇴임자 등 8개 분과의 부회장제를 도입하고 조직 개편에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참여와 활동은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

"나부터 철저히 행하면 동료나 후배교사들의 자연스럽게 부처님사상의 위대함에 감화될 것"이라는 박 회장은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일처리, 뛰어난 조직관리자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말이 앞서는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내실을 기한다는 다짐으로 셋째 화요일 정기법회, 2월 24-25 삼사순례, 전국교사불자회 임원수련 부산 개최, 청소년교화활동, 회보발간, 불우이웃돕기, 상조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혼돈서 새 질서 찾는 메시지"

환경사회단체 '카오스모스시대의…' 펴내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와 한국환경사회단체는 최근 '카오스모스시대의 생태적 미래사회 구상'이란 주제의 2000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 결과보고 자료집을 발간했다. 2000 환경활동가 워크숍은 지난해 6월 불교환경교육원의 주관으로 열린 것.

한국적 환경운동 이념과 과제를 517쪽 분량으로 정리한 이 책자는 △영성, 깨달음, 마음의 생태학 △국토파괴의 구조와 환경운동의 대응 △환경교육과 새로운 인간 △환경운동의 이념과 전략 △문화와 환경 등 모두 25가지 주제와 실천방법 등을 놓고 펼쳐진 토론마당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환경사회단체회의 공동대표이자 불교환경교육원장인 법륜스님은 "환경문제는 혼돈(Chaos)에서 새로운 질서(Cosmos)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메시지"라면서, "따라서 이제는 녹색의 가치, 생태적 가치관, 지속가능한 발전과 마을 만들기, 대안적 생활양식운동, 새로운 문화운동, 여성운동 등 새로운 총체적 비전 즉 생태적 질서와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간동기를 밝혔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알콜 · 치매 관련 전문상담실 운영=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알콜리즘, 치매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및 가족들을 위해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 전문상담실을 운영한다.(02)385-1351

▲국립의료원 심장병 무료시술=국립의료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심장병 무료시술 신청을 받는다. 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역 시 · 군 · 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국립의료원(02-2265-910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02-723-5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두송복지관 무료 법률상담=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박성기 변호사가 복지관을 방문해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접수해야한다.(051)265-9471

▲수의 판매=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내 어르신들이 작년 10월부터 공동작업으로 만든 수의를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수의 제작에 사용된다.(031)919-8677

강좌

▲선가귀감=선학원 중앙선원은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선원 3층 대법당에서 선가귀감 강좌를 개최한다. 선원장 성해스님이 강의하며 교재는 〈선가귀감〉(서산대사 원저)이다.(02)732-3327

▲수요 열린강좌=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조계사 제2문화교육관 4층에서 수요열린강좌를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레크레이션, 게임, 종이접기, 법회운영 등이며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 이성훈, 장명문, 김재성, 법현스님이 강의한다.(02)738-7860

▲불교사상강좌=한국불교연구원은 26-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구도회 법당에서 불교사상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동국대 정병조 교수가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한다.(02)3411-6167

모집

▲불교복지전문가 과정=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전문 불교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년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이론 교육과정과 자원봉사시 필요한 실무특강교육을 받게된다.(02)723-5101

▲작은학교 교사=남원 실상사는 중등과정 대안학교인 작은학교에서 근무할 영어 · 생물 교사를 모집한다.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63)636-3369

▲참선 기초반=부산불교교육원은 3월 1일부터 6개월과정으로 진행될 참선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두차례 실시되며 성재도 원장이 강의한다.(051)466-4080

이전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스님)는 24일 안국동 하나은행 근처 단독 주택으로 이전한다. 전화번호는 (02)734-6401 그대로다.

새해맞이 삼사성지순례 및
도선사 청운당 무차선원 제 2회 단기출가 모집

신사년 새해를 맞아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에서는 불자로서의 신심을 새롭게 다지고 설레이던 초발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 일시 : 3월 3일 오후 7시 30분 ▣ 동참금 : 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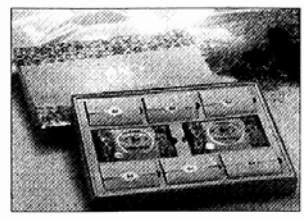
도선사는 지난 1960년대 청담큰스님과 성철, 서옹, 서암큰스님과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께서 함께 용맹정진하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큰스님들이 용맹정진하신 선의 기풍을 이어받아 도선사 시민선방 청운당 무차선원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보십시오.

▷ 일 시 : 3월 8일 ~ 4월 8일(음력 2월 14일 ~ 3월 15일)
▷ 동참금 : 십만원
▷ 문 의 : 도선사 종무소 02) 993-3161~3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랙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빗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상담은 내가 그사람 되는 것"

신행현장

조계사 상담실장 박원각성 보살

"여~에, 그러시면 한 번 나오시죠. 그리고 눈을 좀 낮춰보세요.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전화 수화기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지 귀가 아플 지경이다. 하지만 박원각성(61) 보살의 얼굴은 만족스런 표정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노크소리와 함께 한 지체장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첫 눈에 무엇인가 알아차렸음인지 박 보살의 얼굴엔 일시 긴장감이 스친다.

"결혼상담을 하러 오셨군요." "예, 아가씨들이 저같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가는 가야겠는데…."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적어도 몇 번은 만난 사람처럼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조건 맞는 아가씨들은 성한 사람을 원하고…, 아가씨를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어눌한 말이었지만 박 보살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다 때가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얼굴표정이 밝은 것은 보니 어렵지 않겠네요."

조계사 신행상담실 실장 박원각성 보살은 하루 평균 5명의 내담자들과 얼굴을 맞댄다. 13일 오후도 계속되는 결혼상담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결혼문제부터 부부·자녀문제, 신행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담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전화상담도 최소 하루에 8건 이상. 10시에 상담실에 도착해 상담에 응하다보면 점심 때를 놓치는 것은 약과이다. 1시간 이상 수화기를 통해 계속되는 신세한탄을 들어주고, 상담하러 와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다보면 퇴근할 무렵에는 온 몸이 파김치가 된다. 사람을 상대하고, 게다가 구구절절한 사정얘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설득까지 해야하는 일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루 평균 15차례 상담

소년소녀가장 돕기도

박 보살이 봉사활동으로 조계사 상담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96년부터.

"92년에 중랑구에서 지역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소년소녀가장을 찾아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었죠. 처음엔 뜻있는 일을 하자고 시작했는데 막상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운슬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상담이야말로 가장 좋은 포교'라고 생각한다는 박원각성보살(오른쪽)이 내담자와 결혼상담을 하고있다.

93년 서울시로부터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상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불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던 시절이었다. 시어머니 성화에 못이겨 일년에 서너 차례 절에 다니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아버지 49재를 지내면서 문득 불교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무진장 스님이 지도하던 경전공부 모임인 '국청회'와 조계사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96년 조계사 카운슬러대학을 1기생으로 졸업하고 신심 깊은 불자 상담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상담하다가 같이 울 때도 있었어요. 듣는 사람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하는 사람은 가장 급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 서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상담을 하다보면 어느새 '나'를 잊어버리곤 하죠. 상담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 보살은 상담이야말로 가장 좋은 포교라고 믿고 있다. 상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불자들의 모임인 '지혜의 등불'에 발기인으로 참여해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곧 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저 언덕에 이르는 길

부처님의 십대제자에겐 한 가지씩 별명이 있다. 두타제일, 지혜제일, 신통제일, 다문제일 등. 가섭존자는 의·식·주에 집착하지 않는 두타의 행으로, 사리불은 지혜로, 목건련은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그러한 별명을 얻었는데, 수행 방편의 다양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십대제자들이 한 가지 방편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다. 또 방편의 덕으로 십대제자의 반열에 오른것도 아니다. 각자 인연도리에 따라 좀 더 익숙한 방편을 택하긴 했어도, 그들의 수행은 오로지 삼법인(三法印,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의 처절한 실천 그것이었다.

불법은 실천으로 일관한다. 부처님 말씀이나 역대 선지식의 가르침 어느 것을 보아도 실천을 떠난 것은 없다. 팔만사천 법문도 한결같이 실천을 역설한다. 경전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터득하게 된다'는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언어도단을 강조하는 것은, 실천만이 진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불법에서 실천을 뺀다면 다만 철학이나 사상으로 남게된다. 고로 불자로서 실천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처님을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격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자리에서 '사상'의 자리로 낮추어 평가하는 꼴이 되고 만다.

경·율·론 삼장은 다 행을 위한 것이다. 팔만사천 경전을 가로 세로로 꿰고 달달 왼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자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그렇다고 가르침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 강물에 대해 소상히 아는 것만으로 내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건너편 언덕에 이르려 하면 그냥 다리를 건널 일이지, 다리의 구조나 재료 공법 따위를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는다. 다리는 건너가라고 놓여진 것이지 감상하라고 놓인 것이 아니다.

도피안(到彼岸)은 실천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우주섭리 꼭 알아내겠다' 기복 벗어난 초발심내자



반월스님
부산 연등사 주지

불법의 깊고 깊은 정각의 세계는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어떠한 강줄기도 결국은 바다에 이르러 큰 바다의 품에 들어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중생도 결국은 깨달음의 장에 도달하고야 만다는 사자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법의 큰 바다에 들기는 어려우므로 초발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처음 발심한 인연공덕은 지고지순해서 그 가치는 무량광이라 했고 온 법계의 가장 수승한 공덕과 동등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찬 칠보로써 보시한다고 해도 한번 초발심을 낸 사람의 마음 공덕에 비하면 발끝에도 미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의 마음을 내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번민, 고

'나만의 이익' 생각말고

일체가 더불어 복되게

뇌, 집착, 한계 등 일체를 벗어나 우주법계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초발심은 당장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에서 탈피하려는 소극적인 발심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를 알아내어 현재의 고통과 인연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려는 적극적이고 대의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즉 나 하나만을 이익되게 하려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일체를 더불어 복되게 하겠다는 하화중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발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다겁생래에 쌓여 있는 업식을 씻어 내고자 정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은 흔히 '여태까지 지은 죄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단계 나아가 내가 지은 것으로 오는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선업을 쌓아 청정무구한 마음을 드러내겠다는 적극적인 발심을 내고 곧바로 행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업을 쌓고 실천을 하는 지혜가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길로 바로 들어서도록 길잡이입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밝혀나간다는 다른 말이므로 부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실천해 나가면 나에게 가득 쌓인 습기가 제거되어 현재 나에게 오는 어떠한 인연이라도 수용하는 대긍정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경전에 중생을 비유하기를 바다 가운데서 목이 마르면 바다물을 마시는 존재라고 했듯이 우리는 살다가 괴로우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바다물을 마셔 갈증을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생로병사를 거듭하며 육도윤회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주 법계의 진리는 원융자재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급급한 마음을 쉬고 원융자재한 불법의 경지를 터득하여 근본을 해결하려는 큰 욕심, 즉 진정한 초발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미혹들을 정화해 주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물을 건너는 뗏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문이요, 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가며 습기를 제거하고 자신의 미혹을 떨쳐 나간다면 언젠가는 염불이나 기도는 물론 불교라는 큰 틀까지도 벗어나는 대자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생에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듣고 번뇌 망상을 여의어서 언젠가는 큰 바다에 이르고야 말겠다는 초발심의 마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행 캘린더

2월 22일 (목)

■선덕사 집단상담 수련회=광주 선덕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24일 오전 12시까지 '참 만남과 자아실현을 위하여'란 주제로 집단상담 수련회를 봉행한다.(062)263-4660

2월 23일 (금)

■조계사 신중기도=조계사는 25일까지 대웅전에서 주지 지홍스님을 모시고 신중기도를 봉행한다.(02)732-2115

■강남 포교원 수계교육=강남포교원은 28일까지 수계를 받고자하는 불자를 대상으로 수계 교육을 실시한다. 02)539-2631~4

2월 24일 (토)

■불교사진연합회 사찰순례 및 정기촬영회=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25일까지 무박 2일간 전남 강진 백련사와 무외사에서 사찰순례 및 정기촬영회를 봉행한다.(02)764-7348

■목포불교대학 초청법회=목포불교대학은 오후 2시 불교대학 4층 강의실에서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25일 오후 6시 목포 봉황예식장에서 불자연예인 김병조씨 초청법회도 봉행한다.(061)279-0577

■진여회 방생법회=조계종 진여회는 25일까지 한산사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조계사 앞.(02)821-3242

■한불총 국태민안 기원법회=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오후 4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태민안 기원법회를 봉행한다.(02)734-5221

■동방불교대 졸업식=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은 오후 2시 태고사 설법전에서 졸업식을 봉행한다.(02)745-2030

2월 25일 (일)

■창원불교청년회 3주년 창립법회=창원불교청년회는 오후 2시 시민의 법당 마하연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55)267-2307

■원정각 대종사 7주기 다례공양=서울 밀각심인당은 오후 2시 원정각대종사 열반 7주기를 맞아 추모불사 및 다례공양을 봉행한다.(02)2292-8730

2월 27일 (화)

■원응스님 화엄경 금니 사경전=벽송사는 3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원응스님 화엄경 금니 사경전을 개최한다.(055)962-5662

■중앙승가대학교 입학식=중앙승가대학교는 오후 2시 김포학사 대강당에서 2001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한다.(031)980-7713

제50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 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법문큰스님 : 지관 (가산문화원 원장) 인환 (동국대 교수) 정관 (전 범어사 주지) 성오 (범어사 주지) 세민 (해인사 주지) 각성 (화엄사 주지) 홍선 (중앙승가대 교수) 금담 (극락선원 원장) 법희 (감로사 회주) 혜인 (약천사 회주) 석성우 (파계사 주지) 철우 (영산율원 원장) 혜총 (감로사 주지)
삼천배유나 : 철우 큰스님
인례사스님 : 보안, 변륜, 효종, 현담, 경법, 경성, 경원, 안지성 경증, 경지, 경소, 종명, 화용, 도헌, 탄준, 정찬, 정우
일 시 : 불기 2545년 음력 2월 10일~14일 (양력 3월 4일~8일) 4박 5일
동 참 금 : 3만원 (위패 한 분 모시는데 5천원) *회향날 방생갑니다.
지 참 물 : 백미·꽃·과일 약간씩 (주무실 분은 담요 한 장)
계 좌 번 호 : 조흥은행 409-04-472968 (예금주: 감 로 사)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주지 혜 총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전화 (051)809-0926

초청의 말씀
- 출판기념법회 '광덕 스님 시봉일기 1,2' -

강호 제현의 건승하심과 광휘를 지축하오며 평소 제현께서 주지이신 송암 스님과 우리 도피안사에 적극적인 협력과 뜨거운 관심을 베풀어주신 점에 대하여 저희 신도 일동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올리옵니다. 금번 우리 도피안사 주지이신 송암지원 스님께서 스승님이신 금하당 광덕 대선사님의 교화가풍을 책으로 엮어 '광덕스님 시봉일기 1,2권'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효의 위덕이 날로 쇠미해져 가는 오늘날에 주지스님의 이러한 값진 효행이야말로 참으로 뜻 깊은 장거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신도 일동은 경건한 마음으로 개산조사이신 대선사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주지스님의 출중한 효행을 본받을 것을 다짐하는 뜻에서 아래와 같이 조촐한 출판기념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동참하시어 효사상 선양 모임을 한층 크게 빛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아 래 -
· 일 시 : 2545(2001)년 3월 1일(목:국경절) 10시 30분
· 장 소 :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대웅전
· 연락처 : 전화 031-676-8700 전송 031-676-8704 E-mail dopiansa@kornet.net
*서울지역은 당일 사당역 국민은행 앞에서 9시에 도피안사행 버스 출발 *장소 관계로 부득이 화환은 사양하게 되었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 도원 김영진, 자심문 희숙희 선학보살: 자신 신영균 부회장: 능혜 이상륜, 향국 최형재, 법행 이원무, 혜안 최정일, 혜명 최정수, 혜광 이한성, 도수 김연생
향적회장: 평등심 신승심 지장회장: 공덕행 김은자 보문회장: 묘국 김석환 대원회장: 도수 한원석 보현회장: 연지명 정순연 문수회장: 향봉 이기호 구로회장: 본각행 박인순 안양회장: 원광 이남수 반야회장: 혜파 윤병호(죽산 지역) 안국회장: 혜찬 임종주(안성 지역) 행원회장: 보현 나덕현 용인회장: 용주 박상은 금강회장: 덕운 구본일(청년모임) 합창단장: 평등심, 심승심 영학회장: 법해 이석우 이천회장: 도봉 권인택 과천회장: 도일 김규복 및 신도일동 합장경배
봉행위원회: 능혜 이상륜외 부회장 일동 추진위원회: 혜안 최정일외 각 회장 일동 준비위원회: 평등심 심승심외 임원 일동

반야바라밀걸사 보신도량
도솔산도피안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박태원 교수의 25

불교로 보는 인생

일상에서 찾는 행복

한 생각 돌이킬때면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다

무작정 길을 떠났다. 갑자기 전라도 음식이 너무도 먹고 싶어 회가 잔뜩 동한 데다가, 겨울 바다의 유혹이 겹쳐 다짜고짜 차를 몰았다. 이런 충동에 몸을 맡길 때면 꽤나 흥겹다. 배부른 호사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긴다.

하루에 두끼 이상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게을러 취사에 의욕 없고 식도락을 즐기는 것도 아니어서 오로지 외식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할 때, 가끔은 조미료 덜 들어가고 간소절한 음식이 정말이지 간절해진다. 똑같은 두 세 가지 메뉴를 조합하는 일에 잔뜩 물릴 때면 감칠 맛 나는 전라도 음식이 아른거린다. '그래, 밥 먹으러 좀 멀리 가보자꾸나' 그렇게 시작한 여행이었다.

여행길에 오를 때마다 느끼는 그 모한 감상은 '익숙함으로부터의 일탈'에서 오는 것 같다. 일상의 반복되는 패턴과 환경에서 몸을 뺄 때, 그 어떤 상쾌한 느낌이 물씬 솟구친다. 일상 결별의 자유, 타성 일탈의 해방감, 낯선 만남이 줄 신선함 등이 어울려 묘한 흥분과 즐거움을 자아낸다. 불박이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쉽게 놓쳐 버리던 일상 인연의 전모가 눈에 들어온다. 참선과 유사한 국면이 길 떠날 때의 감상 속에 있어 보인다.

길 위에 오르니, 내 일상을 받쳐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새삼 생생하게 떠올랐다.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정서적 안정을 든든하게 뿌리내려 주신 부모님, 불화가 기억나지 않는 형제들, 공부 길 올려주신 스승들, 원칙을 중시하며 존중과 신뢰를 가꾸어 가는 직장 인연들, 순박한 제자들, 제 식구 위해 마련한 음식을 '먹어 봐유' 하며 슬쩍 꺼내놓곤 하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 언제 만나도 한결 같은 선우 인연들, 그 따사로운 마음들을 느낄 때면,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언 땅 녹이는 봄볕을 온 몸 가득히 담아낼 때의 행복감이 솟는다. 에고의 환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놓치고 둔감하던 이 밝고 따스한 생기들이, '나'를 풀고 지켜보면 일시에 고스란히 감지된다. '나'를 꼿꼿하게 세운 채 몸이며 마음의 경험(경계) 속으로 말려들어 갈 때는 닫히고 일그러져 있던 마음의 창이, 부처님 법대로 한 생각 돌이킬 때면 활짝 열려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다.

얼마나 좋은 일상인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공부는 이렇게 일상을 온전하게 살려 놓는다. 생각생각 죽여가던 일상을 생각 생각 살려놓는다. 일상 밖에서 구하려고 부산떨던 그 거창한 몸짓들은, 바로 그 일상에서 모든 것이 풀릴 때 그저 '허허 그것참!' 하며 목에 잔뜩 들어간 힘을 풀어놓는다. '일상을 떠나 따로 구하지 말아라.' '바로 지금 그대의 그 마음을 떠나 구하지 말라.' 참으로 빛나는 생명의 희망이 아닌가. 조금 엿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크게 사무쳐 버린 경지에서는 어떨 것인가.

내내 이 일상일 뿐임을 다지고 돌아오니 편지 한 통이 기다린다. 언젠가 소개했던 정지태님이 또 소식을 주셨다. 무슨 곡절이었는지는 모르나, 수인(囚人)의 삶을 그분은 실다. 일상 결별의 자유, 타성 일탈의 해방감, 낯선 만남이 줄 신선함 등이 어울려 묘한 흥분과 즐거움을 자아낸다. 불박이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쉽게 놓쳐 버리던 일상 인연의 전모가 눈에 들어온다. 참선과 유사한 국면이 길 떠날 때의 감상 속에 있어 보인다.

길 위에 오르니, 내 일상을 받쳐주는 소중한 인연들이 새삼 생생하게 떠올랐다. '언제나 내 편이 있다'는 정서적 안정을 든든하게 뿌리내려 주신 부모님, 불화가 기억나지 않는 형제들, 공부 길 올려주신 스승들, 원칙을 중시하며 존중과 신뢰를 가꾸어 가는 직장 인연들, 순박한 제자들, 제 식구 위해 마련한 음식을 '먹어 봐유' 하며 슬쩍 꺼내놓곤 하는 단골 식당 아주머니, 언제 만나도 한결 같은 선우 인연들, 그 따사로운 마음들을 느낄 때면,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언 땅 녹이는 봄볕을 온 몸 가득히 담아낼 때의 행복감이 솟는다. 에고의 환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놓치고 둔감하던 이 밝고 따스한 생기들이, '나'를 풀고 지켜보면 일시에 고스란히 감지된다. '나'를 꼿꼿하게 세운 채 몸이며 마음의 경험(경계) 속으로 말려들어 갈 때는 닫히고 일그러져 있던 마음의 창이, 부처님 법대로 한 생각 돌이킬 때면 활짝 열려 세상이 그대로 들어온다.

얼마나 좋은 일상인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공부는 이렇게 일상을 온전하게 살려 놓는다. 생각생각 죽여가던 일상을 생각 생각 살려놓는다. 일상 밖에서 구하려고 부산떨던 그 거창한 몸짓들은, 바로 그 일상에서 모든 것이 풀릴 때 그저 '허허 그것참!' 하며 목에 잔뜩 들어간 힘을 풀어놓는다. '일상을 떠나 따로 구하지 말아라.' '바로 지금 그대의 그 마음을 떠나 구하지 말라.' 참으로 빛나는 생명의 희망이 아닌가. 조금 엿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크게 사무쳐 버린 경지에서는 어떨 것인가.

내내 이 일상일 뿐임을 다지고 돌아오니 편지 한 통이 기다린다. 언젠가 소개했던 정지태님이 또 소식을 주셨다. 무슨 곡절이었는지는 모르나, 수인(囚人)의 삶을 그분은 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조사선 · 묵조선 · 간화선 등 다양

◇참 자아를 찾아 선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좌선이라는 형식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다가가게 된다.



참불자의 길 참선⑥-선의 종류

참 자아를 찾기 위해 선(禪) 수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좌선(坐禪)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좀 더 다가서게 된다.

처음 선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큰 고통이다. 또 앉았다고 하여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어떤 종류의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간화선 전통이어

선은 크게 그 내용에 따라 소승선(小乘禪)과 대승선(大乘禪)으로 나뉘며, 불교이외의 선을 외도선(外道禪)이라고 부른다.

〈안반수의경〉 〈차제법문〉등에서 선의 분류를 논하고 있는데, 종밀스님은 〈도서〉에서 각 경논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선정설을 종합해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最上乘禪 : 여래선)이라는 5종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 형식에 따라 선불교의 기본 수행인 좌선(坐禪)을 비롯해 행선(行禪) 와선(臥禪)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는 당대 선종(禪宗)이 발달하면서 조사선(祖師禪)을 형성하고, 송대에 이르러 묵조선과 간화선으로 나뉘게 된다.

조사선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적인 삶의 사상으로 전개하여, 교학중심으로 전개되던 중국불교를 선승들에 의해 불교의 본래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생활종교로서의 불교를 추구했다.

당대 조사선의 정신을 좌선 실천을 통해 새롭게 체계화 한 것이 묵조선이다. 수행과 깨달음을 따로 두로 두지 않고, 우리들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는 경전의 가르침을 좌선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언어와 사량분별을 떠나 모든 차별을 넘어서 묵묵히 좌선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송대 묵조선의 가풍은 일본으로 전래되어 일본 조동선을 형성하게 된다.

간화선은 옛 조사들이 깨닫게 된 기연(機緣)인 공안을 참구하는 선 수행의 방법이다. 공안을 응용하고 조합하면서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안이 타파되기까지 끊임없이 공안과 부딪쳐야 한다. 오직 모든 의심을 한곳에 집중시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이 간화선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안거 때 사찰의 선방에서 하는 선수행법도 바로 이 간화선이다.

최근 위빠사나 수행 '붐'

최근에는 위빠사나 수행법이 시민선방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의식의 힘을 강화하는 통찰(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이 위빠사나는 육신의 동요는 물론이고, 느낌이나 생각 등 정신적 움직임까지 살펴 우리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외에 참선수행과 염불을 합친 중국불교의 독자적인 실천행인 염불선이 있다. 일반적으로 염불선이라면 주로 부처님의 모습을 염상하는 관상염불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송대 이후에 정토종이 널리 실천되고 있는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혹은 나무 라고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과 선정의 수행을 일체화한 염불선의 수행을 말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②

올바른 발심은 '어떻게' '무엇을' '왜'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서장〉의 첫머리는 증시랑이 질문하는 편지이다. 여기에서 증시랑은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까닭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대혜의 가르침을 구한다. 증시랑의 글 가운데 공부인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발심(發心)에 관한 결의를 보이는 부분이다.

"세운 뜻과 발(發)한 원(願)은 진실로 가벼운 지견(知見)의 사이에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옛사람이 직접 깨달아 얻었던 곳에 곧바로 당도하여야 비로소 크게 쉴 땅으로 여길 것입니다."

발심이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이 마음먹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내용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 가운데 '누가'는 물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와 '어디서'는 '어떻게'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발심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어떻게', '왜'이다.

왜 불교를 배우고 선을 공부하려 하는가?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을 얻기 위하여? 집안에 탈이 없기 위하여? 심리적 의지처를 찾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불교와 선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복을 구하는 기복(祈福) 행위이다.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석가모니의 출가 동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 동기는 현세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해결에 있다.

무엇을 선에서 공부하려 하는가? 지식을 공부하려 하는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려 하는가? 선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러한 것들이라면, 이것 역시 현세에서 조금 더 즐거운 삶을 바라는 기복행위에 불과하다. 현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현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 때 현세에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간 길이요,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따라서 선을 공부하겠다고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부처나 조사들과 꼭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위의 증시랑의 말은 바로 이 발심을 나타내고 있다.

불교나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깨달음은 너무나 먼 길이므로 깨달음에 목적을 두지 말고 더 작은 것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불교를 왜곡하고 부처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불교도 아니요 부처의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깨달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라고 신비화하지만, 이것 역시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경전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은 말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지, 범부로 남아서 자신의 추종자가 되기를 바라진 않았다.

어떻게 선을 공부할 것인가? 증시랑은 어릴 때 발심하여 일생동안 공부하였으나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 공부에 결실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흔히 공부를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이 공부가 살아서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임을 말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의 역할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므로 당연히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일상생활과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은 선 공부야말로 일생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가슴 깊이 새겨두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공부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도록 하라는 말이다.

즉 명예, 돈, 자존심 등 세속사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선 공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일대사는 마치 전쟁에 나간 외아들 생각하는 홀어머니 심정같이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늘 염두에 있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통있는 불교 교육의 명문학당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포교사 과정 · 포교사과정 통신반 · 교리반(주.야) · 경전연구과정 · 수화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실 (051) 867-9944 로 문의바랍니다.

1982년 설립된 본 대학은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님을 모신 권위있는 교수진,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교육, 충만한 면학열과 엄격한 학사로서 전법도생에 앞장설 조계종 포교사를 국내 최다배출 시키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45년 2월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벽 파
학 장 이하우

구 분	제11기 포교사 과정	제11기 포교사 과정 통신반	제6기 경전연구 과정	제17기 교리반(주.야)	제8기 수화반
1.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남.여		본 대학 포교사 과정 수료자나 동등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2. 교육기간	1년(2001년 3월 ~ 2002년 2월)		2년(2001년 3월 ~ 2003년 2월)	6개월(2001년 3월~8월)	6개월(2001년 3월~8월)
3. 교육일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7시~9시	매월 강의 태잎 16개로 수업 두달에 한 번 출석수업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주간:매주목,금오후2시~4시 야간:매주월,화오후7시~9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4. 원서접수	2001년 1월 8일 ~ 2월 28일				
5.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 명함판 사진 2매				
6. 입 학 식	2001년 3월 2일(금) 오후 7시		2001년 3월 7일(수) 오후 7시	주:2001년3월8일(목)오후2시 야:2001년3월5일(월)오후7시	2001년 3월 8일(목) 오후 7시
7. 등 록 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40,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60,000원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3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3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10,000원
8. 특 전	수료생은 포교사고시를 거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로 품수		본대학 학칙에 따라 자격증 수여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회관 5층 (부산시청, 시경찰청 옆)
☎ 051) 867-9944

조계사에서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기본교육(3개월)
■ 모집 분야
주간반 : 화 · 수 오전 10시30분 / 야간반 : 화 · 수 오후 7시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시
■ 개강일 : 2월 24일 ■ 수강료 : 50,000원

조계사불교대학(2년제)
■ 모집 분야

주간반	월 · 화 오후 2시 - 4시	토요반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야간반	월 · 화 오후 7시 - 9시	통신반	테이프 발송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입학식 : 3월 3일(토)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 특 전 : 포교사 시험 자격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장학금 지급

신학강좌 · 문화강좌
■ 육조단경 강의 : 변상섭 선생님('도올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의 저자)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월 15일 개강) □ 수강비 : 100,000원
■ 노자 도덕경 강의 : 원주용 선생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월 15일 개강) □ 수강비 : 100,000원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02) 720-1390
www.ijogyesa.net

이렇게 들었다

시화호와 환경

흙과 물은 나의 옛몸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 된다.〈법구경〉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강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범망경〉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 모든 물물(物物)에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국토불성론'이 자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눈앞의 이익만을 내다보는 개발 논리에 자연은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생명체 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백지화를 발표한 시화호 담수화 사업이 그 실례다.

84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은 바다를 막아 농 ·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담수호를 만들려던 것인데, 94년 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와 축산 및 산업폐수 등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돼 담수화 사업을 둘러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시화호 담수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기 이르렀는데, 16년에 걸쳐 쏟은 방조제 건설비 6천 220억 원과 수질개선사업비 2천 79억 원 등 약 8천 300억 원의 국고만 낭비한 꼴이 됐다. 말이 좋아 백지화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고의 낭비로만 끝나질 않았다. 경기도의 화성, 안성, 시흥을 잇는 서해안 갯벌 훼손 등 해양 생태계 파괴 피해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이 지역은 100여 종에 달하는 어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갯벌 생물의 보고(寶庫)였다. 그런데 방조제가 완성되는 순간 이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죽거나 사라진 것이다.

어느 불교학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현대의 환경 훼손은 불가의 입장에서 보아 차라리 '훼불'이라고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인 산천초목, 바위나 흙에도 불성이 깃들고 숨쉬고 있다는 '국토불성론'에 입각한 말이다.

국토불성론은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활구(活句)가 될 수 있다.

시화호의 비극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부처님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아무렇지도 않은 산천 자연 온통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청정국토를 보존하기 위한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유 · 무정물 모두에서 불성이 있다고 선언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야 할 때이다.

오종욱 기자

인간게놈지도 완성

질병 완전정복 '기대'

'단백질의 결합' 숙제

마침내 인간유전정보 지도가 완성됐다. 미국 · 영국 · 일본 등 6개국 공동연구팀인 인간 게놈프로젝트와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셀레라지노믹스는 12일 인간유전정보(게놈) 지도를 완성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인간 게놈프로젝트는 인간의 유전자 수가 3만~4만개, 셀레라사는 2만6천~3만9천개라고 각각 밝혔다. 이는 당초 10만여개로 예상됐던 것보다 작은 규모며, 초파리의 2배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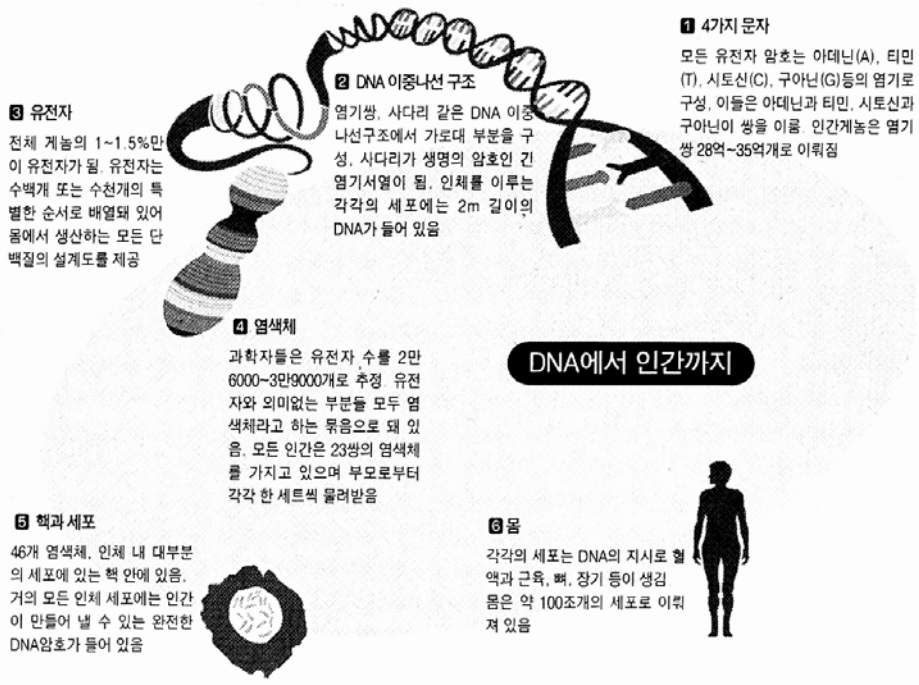
하지만 인간 게놈은 단순히 유전자 수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조절회로에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서 벌레나 초파리보다 훨씬 복잡하다. 즉 유전자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이 뒤섞이며 다양한 결합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 벌레나 파리보다 5배 정도 많은 9만~15만개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은 게놈보다도 10배 정도 더 복잡하며, 이 점에서 인간과 동물간 뚜렷한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발견으로 인류는 질병유발 유전자의 규명과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유전자 분석 및 진단을 통한 맞춤의료가 가능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성 질환이나 정신질환, 비만 체질에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해냄으로써 이들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약개발로 인해 산업 · 경제적 성장도 급속도로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윈의 진화론을 증명하는 부수적 성과도 올렸다.

그러나 유전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인간특성 개조로 인한 유전자 계급사회 도래, 획일화된 유전자로 인한 생물학적 다양성 상실, 맞춤인간 등의 문제도 한층 더 현실 가까이 다가오게 됐다.



풀리는 인체 신비…불교의 생명관 확인

불교에서 본 게놈

▲진화론과 불교

이번 발견으로 얻은 성과중 하나는 다윈의 진화론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진화론의 입증은 창조론을 주장해 온 기독교 쪽에서 보면 당황스런 결과이겠지만 업 · 윤회사상을 통해 진화론을 뒷받침해 온 불교로서는 '불교의 과학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진화론은 일체만물의 시작과 끝이 없다는 불교의 순환론적 우주관 속에 있으며, 업이나 윤회론도 상당부분 진화론과 일치한다.

윤용택 교수(제주대, 철학)는 "업사상이란 모든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씩 쌓여 나가는 것이지 갑작스레 새로운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볼 때 진화론은 업사상과 상통한다"고 말했다.

물론 종교와 과학은 분명히 별개다. 그러나 얼마나 과학적 사고를 하고, 또 과학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본다면 불교는 분명 다른 어떤 종교보다 현실적이며, 과학으로 인한 갖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종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진스님(동국대, 불교학 교수)은 "미래시대는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며, 종교도 과학에 가까이 다가서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는 이번 발견을 불교와 과학의 일치성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노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전자 수와 생명

인간과 하등동물과의 유전자 수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또 박테리아가 인간의 조상인 초기 척추동물에 들어가 인간 유전자를 탄생시켰다는 점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간에게는 다소 실망스런 결과다. 즉 인간만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서구사상은 곧 인간중심사상이다. 그러나 불교는 '범생명주의', 즉 생명의 평등은 물론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번 발견은 불교의 연기법이 말하듯이 모든 만물이 서로 얽혀져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학자와 관계전문가들은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과 다른 종간의 차이가 없음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한다. 분자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다른 생물종간의 차이는 미미하며, 다른 생물종도 인간만큼 소중하다는 것이 이번 발견이 주는 소중한 교훈이라는 것이다.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대)는 "불교가 말하는 올바른 삶이란 조화의 삶"이라고 강조했고,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이번 발견을 생물계를 공생의 체계로 다시 보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물의 유전자수(개략)

(단위:개)



윤리적 문제

▲윤리헌장 필요성 대두

유전자 조작은 질병치료에서 보면 분명 인류에게 큰 혜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아직 유보적인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석하는 불교학자들마다 다소간의 견해 차가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우려대로 '맞춤인간'이 태어난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가치는 파괴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또한 유전자 조작이 불교의 업 · 윤회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반대 이유다.

유전공학의 생명관은 '유전자 결정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불교의 생명관은 '탄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유전자 조작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학자들은 조작된 인간 스스로가 그 자신의 업에 의해 인간적 가치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질병치료 목적으로만 쓰여진다면 인류에게 '선(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전자 계급사회' 우려

인간 유전자 지도 완성은 의학과 약학의 획기적인 발전과 동시에 유전자 정보가 사회적 차별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대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전 고객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의 한 철도회사는 철도 수리공들을 대상으로 '수근관 증후군(손근육의 감각마비)' 관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오다 최근 종업원들에게 의해 연방법원에 제소당했다. 유전자 계급사회가 이미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국가와 계층의 유전자 정보 독점은 강대국과 약소국,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 유전자 정보 누출은 취학과 취업, 결혼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로 이어지면서 인간평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현실의 복리만을 추구하다보면 지혜를 잃을 수 있다. 과학이 그렇다. 그러나 불교는 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해왔다. 모든 생명이 평등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보면 '유전자 계급'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윤리강령 마련이 가장 시급하기는 하지만 종교가 해야 할 역할도 크다. 특히 생명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온 불교야말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며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회 안내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강남구 개포3동 주공5단지 Apt.)
- 내용

첫째주 - 정병조 박사의 육조단경 강좌	둘째주 - 권기종 박사의 아함경 이야기
셋째주 - 인환 스님의 선불교 산책	넷째주 - 김상현 박사의 한국불교사상사

이 겨울 만남…불교사상강좌

대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금번 강좌를 통해서 불교의 정수를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월 26일(월) - 28일(수)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12시
-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
- 주제 : 불교란 무엇인가?
- 강사 : 정병조 박사(본원 원장, 동국대 교수)

[illegible]교의 산실…원효학당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동장과정 ○○명
- 모집기한 : 2001년 3월말
- 강의과목

사기열전(진성규 교수 · 중앙대)	화엄경십지품(송찬우 교수 · 중앙승가대)
무량수경(정병조 교수 · 본원 원장)	법화경(권탄준 교수 · 동국대)

☎ (02)3411-6167~8 / 지하철3호선 대치역, 63번 버스 이용 개포동 5단지, 개포빌딩 6층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을 받는 가치관은 자신의 성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법사학인을 위한 지도방안

- 불교 수행을 통한 인격함양
- 바른 정체성 갖는 법사법위
- 실제 상용화 되는 불교의식
- 바른 이해를 갖는 불교교리
- 육화 법우 동산의 학습환경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 가능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교육방법 :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 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학습 교과목및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학습 교과목및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년 2월 26일까지(현재 접수중)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 접수 가능)
8. 입학식 : 3월 8일 오후 2시, 본 대학 강의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사·부·대·중

절집의 경제구조



홍승 스님
대구 부도암

사찰의 소임을 맡아 살다보면 경제의 흐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법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던 신도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길을 끊으면 영락없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실직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은 하지만 그 동안 꾸준히 내던 기도비를 내지 못하는 신도들도 역시 같은 경우에 속한다.

특히 정월이 되면 각 사찰에서는 정초산림기도니 입춘기도니 방생이니 각종 행사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신도들로서는 각종 기도가 많은 만큼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이면 절에 시주하는 돈의 액수가 제법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제사정으로는 웬만한 마음먹기나 신심으로는 선뜻 기도에 동참하기가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올해 정초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숫자만 보아도 심각할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하다. 예전의 40%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으니 말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스님들은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스님들의 모임에서는 요즘 들어 부쩍 앞으로의 불교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다. 시주에만 의존해서 살아왔던 절집안의 경제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의견이 다양한 만큼 논란의 소지도 많다.

이럴 때 항상 제기되는 의견 중의 하나가, 이제는 시주에 의지하지 말고 절집안만의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익사업이 될만한 것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대목에 와서는 다들 시원스런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경제관념이 약한 스님들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찌 됐든 시대가 시대니 만큼 어느 정도의 부작용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의 살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고민이 공적인 마음에서인가, 사적인 마음에서인가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어찌 됐든 사부대중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목탁소리

호진 스님의 사직서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석 · 박사 학위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교수라는 직함도 깨달음을 좇는 수행자에겐 버려야 할 짐인 모양이다. 지난 5일 동국대 기획인사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호진(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 스님의 결단은 이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

더욱이 2001년 교수 임용 문제로 동국대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결국 동국학원 이사회가 '2001년 불교학과 4개 부문의 임용을 보류한다'는 사상초유의 결정이 있었던 탓이어서 스님의 사퇴 의사는 교계 안팎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남들은 못 되어서 안달인데,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8년부터 줄곧 지켜왔던 강단을 정년까지 5년을 남긴 상태에서, 스님은 왜 홀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스님이 지인들에게 전한 평소 말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88년 동국대 강단에 설 때만 해도 빈자리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후학들이 학문의 세계를 펼칠 공간이 없다."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시간과 돈을 들여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그 후에도 교수로 임용되는 것도 순탄치 않다. 더욱이 불교학 전공자들의 문은 동국대로 한정될 만큼 좁을 뿐 아니라 보통 교수들이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30여 년 간을 재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불교학 박사들은 강사로 전전할 수밖에 없다. 즉 호진 스님은 후학들에게 삶의 길을 터주고 싶었던 것이다.

스님의 거취는 28일경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스님의 지인들은 "그 결심을 장하지만, 초기불교에 대한 스님의 연구 업적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학 양성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나"며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후학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는 스님의 결심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호진 스님은 퇴직 후 경주 기림사 경내에 머물며, 수행과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다.

화엄광장 출가자—재가자—이웃 종교인 한자리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난상토론

100여명 형식 탈피 자유발언
불교적 토론문화 새 모델 제시

출가자와 재가자, 이웃 종교인들이 모여서 수행과 삶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화엄광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최해 9일 오후 7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제1회 화엄광장은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난상토론을 이어갈 정도로 열기로 가득했다.

스님, 학자, 시민운동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9명의 대표토론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발표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무차(無遮)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토론문화를 선보였다.

토론 부재의 사회에서 불교적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연 이날 화엄광장에는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 발제자로 나서고 정해숙 화엄광장 기획단장(전 전교조 위원장)이 좌장으로,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이 사회자로 참석했으며 대표토론에 오성 스님, 성태용 교수(건국대 · 철학), 황선진(생명축제조직위원장)씨 등 9명이 참여했다.



◇7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회 '화엄광장'. 스님, 재가자, 학생, 귀농자, 수녀님, 외국인 신부님 등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모여 깨달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명망성을 지양하고 주제의 선명성과 실천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가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나이 계층 지위를 떠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젊은 불교광장이 되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이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새벽까지 토론 열기

왜 깨달아야 하는가

이날 토론에서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우리는 왜 깨닫고 싶어하는가. 정말로 깨닫고 싶은가, 우리가 깨달음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깨달음에 가까워지는가 등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치열하게 오갔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떠난 깨달음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통일된, 현실에 있는, 살아있는 깨달음의 의미를 찾고 싶어했다. 질문과 답변들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이 아닌 반대방향에서 즉, '현실'을 진지하게 보는 눈에서 출발했다.

도법스님은 '왜 깨달아야 하는가'란 문제에 대해 "깨달음을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유일한 희망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깨달음이 지금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순간순간의 구체적인 삶과는 다른 특별한 무엇으로 취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준호(부산대 강사)씨는 이 물음에 앞서 "먼저 '깨닫고 싶은가'를 물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화되는 삶의 현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성스님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 인드라망의 세계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국가와 국가,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등 존재와 삶의 질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허우성(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무아와 오온개공의 깨침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올 무사(無私)한 봉사를 목표로 삼지 않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질문 행위 자체에 이기성과 불완전성이 내포되어 있다"며, 그렇게 묻기 전에 '무사(無私)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갖자고 주장했다.

천주교 신자인 이병철(녹색연합 공동대표)씨는 "깨달음을 향한 삶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며, "거룩한 존재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자비의집 등 다양한 곳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께서 환자의 고름을 씻어주시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지원경(경불련 자원봉사단장)씨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주상 보시행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씨는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과 계 · 정 · 혜 3학을 통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총체적인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경험에서 나온 수행론을 폈다.

계 · 정 · 혜 기초한 수행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은 깨달음을 향한 방편만이 아니라, 깨달은 삶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깨달음이란 또 하나의 진리세계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명에 의해 가리워진 것을 벗겨내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

이도흠(한양대 강사)씨는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꿰뚫어보는 깨달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진정한 깨달음'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도법스님은 "전도몽상을 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구경열반은 불생불멸의 연기무아의 삶, 영원과 무한의 자유자재의 삶이 이루어짐을 뜻한다"며, 보현행원을 한 예로 들었다. 도법스님은 '보현행원'은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과정과 방편이자 깨달은 자의 조건없는 무연(無緣)자비라면서, 완성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의 보살행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회문제 불교적 대안 찾기"

인터뷰 화엄광장 정해숙 기획단장



"화엄광장은 분열과 대립, 경쟁과 승리, 소유와 독점의 사고와 논리로 피흘려온 과거를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 해원과 화해, 통일과 균형, 공유와 평등의 논리로 자타가 일시에 성불하는 이상과 가치실현의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몸짓입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이자 화엄광장 기획단장인 정해숙(전 전교조위원장)씨는 "그간 수행법이나 정화운동 등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많았지만 사회문제를 불교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거의 없었다"며 "화엄광장이 우리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가장 원만하고 조화로운 상태의 존재'인 생명을 보듬고 모든 사람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삶을 모색하는 화엄광장은 생명공동체, 생태적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이론적 토대이자 대화의 문이라고 강조했다.

'삶의 지향성, 발원의 구체성'을 목표로 두 달에 한번씩 1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화엄광장의 주제에는 ▲삶과 수행(몸 · 마음 다루기, 수행결사, 21세기 사찰의 선택) ▲지역공동체(귀농, 21세기 증농주의자들, 도농공동체운동, 사찰공동체운동) ▲대안문화(대안교육, 곡선의 문화, 에코페미니즘, 계율과 사회윤리) ▲환경과 생명(업사상과 유전자조작, 생물지역주의와 생물다양성, 생태사찰 및 생태마을)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망라된다.

고 언

1998년 2월 3일 당시 선암사에서 발생한 불상사를 기화로 태고종 총무원 현판식을 선암사 일주문에 걸면서 거창하게 총무원 입주식을 거행하였으나, 기존에 서울 소재 두 곳 사찰에 태고종 총무원 현판이 걸려 있었고(지금도 있음) 실제 종단 사무집행을 서울 소재 태고사에서 관장하고 있음에도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절차법을 무시하고 선암사를 태고종 총무원 직할사찰로 정하고 선암사 운영위원이란 이름으로 41명을 임명하고 총무원장 홍모 스님이 당연직인 직할사찰 주지직을 겸직 역임하다 2000. 11월에 태고종 총무원 임기 만료로 총무원장 선거인단(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결과 송모스님이 선출되었으나 소납이 보건대 현대불교(12. 13일자 제 298호 광고란)지에 게재된 청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대종단의 총무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간과한 결과로 인해 전 종도에게 누를 끼친 책임을 이번 선거인단 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새로이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가 공고한 선암사 주지 선출(12. 15일)건을 보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바 그 지적내용은

1. 위의 적시한바 대로 선암사가 태고종 총무원 직할사찰이라면 선암사 주지는 선출된 총무원장 송모스님이 당연직인바 따로히 선출할 근거 없다 할 것이며,
2. 선암사 주지를 새로이 선출한다면 원래의 태고총림 선암사(본사 중심제)로 환원되었음을 전제한 것인바 그렇다면 주지선출은 1,500년 선암사 전통대로 선암사 재적승려대회에서 행해져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지도 아니한(직할사찰이 아니므로) 선암사 운영위원(41명)단에서 선출(12. 15)하였고
3. 위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선출된 주지 정모 스님은 1994. 당시 "석"모라 성까지 개성하고 선암사 주지로(당초 잘못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재직 중 여러 불미스런 일로 본사 재적승의 탄핵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 직에서 해임되었기에 참회하고 또 참회해도 다하지 못할 것임에도 주지직에 연연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글 선출하였으니 이로 인해 발생할 앞으로의 사태는 전적으로 태고총무원 집행부의 책임임을 지적해 둡니다.

불기 2545. 1.

조계산 선암사 재적승 혜강 합장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둥간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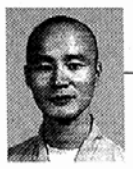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③

사성제 등 10가지 지혜 제시

깨달음 얻게 하는 37가지 수행방편 눈길

〈안반수의경〉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세계는 앞에서 설명한 10힐(十詰) 가운데 앞의 육사(六事) 즉, 수식(數息) · 상수(相隨) · 지(止) · 관(觀) · 환(還) · 정(淨)의 여섯 가지와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를 들어서 10힐이라 말하며, 이것이 이루어질 때 37도품경(三七道品經)에 합일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안반수의에는 열 가지 지혜가 있다. 숨을 세는 수식(數息), 숨과 마음이 서로 따르는 상수(相隨), 마음이 숨에 머무는 지(止), 자재로운 상태인 관(觀), 자기에게 돌아오는 환(還), 깨끗한 상태인 정(淨) 그리고 네 가지 진리인 사제(四諦)이다. 열 가지 지혜가 이루어지면 이른바 삼십칠도품경(三十七道品經)에 부합되어 그 행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안반수의는 들숨과 날숨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청정한 본성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며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열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면 안반수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으로 설법하고 있는 내용과 합일되는 것이다.

〈삼십칠도품경(三十七道品經)〉이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서른일곱 가지 수행 방법인데, 삼십칠도품이라고도 한다. 도품은 깨달음의 종류라는 뜻이다. 도는 지혜, 곧 깨달음이며 품은 종류이다.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사념처라고 부른다. 부모에게서 받은 육신이 부정하다고 관(觀)하는 신념처(身念處),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관하는 수념처(受念處),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하고 있다는 무상(無常)을 관하는 심념처(心念處),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고 관하는 법념처(法念處)이다.

다음은 네 가지 올바른 노력을 뜻하는 사정근(四正勤)이 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쁜 습성이나 마음을 끊기 위해 애쓰는 율의단(律儀斷), 이미 나타난 악행이나 마음을 끊는 노력인 단단(斷斷),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호단(隨護斷), 이미 나타난 선함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힘쓰는 수단(修斷)이다. 이 네 가지 노력들은 마음의 해태함을 끊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다음에는 다섯 가지의 훌륭한 힘인 오근(五根)이 나타나게 된다. 뛰어난 믿음이 생기는 힘인 신근(信根), 부지런히 노력하는 힘인 정진근(精進根),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힘인 염근(念根), 한결같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의 힘인 정근(定根), 지혜로서 세상을 보는 힘인 혜근(慧根)인 것이다.

다음으로 또 다른 힘으로서, 믿는 힘인 신력(信力), 부지런히 노력하는 힘인 근력(勤力),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힘인 염력(念力), 선정의 힘인 정력(定力), 지혜의 힘인 혜력(慧力)을 얻게 된다.

이어 깨달음의 지혜를 도와주는 일곱 가지를 닦게 되는데, 모든 법을 가려서 선악을 선택하는 택법각지(擇法覺支), 수행의 바른 길로 정진하는 정진각지(精進覺支), 마음에 선함을 얻어서 기뻐하는 희각지(喜覺支), 그릇된 번뇌를 제거하고 능히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제각지(除覺支), 밖의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각지(捨覺支), 명상에 들어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정각지(定覺支), 생각을 잘 가다듬어 지혜로 가는 생각만을 하는 염각지(念覺支)가 그것이다. 이것을 칠각지라고 한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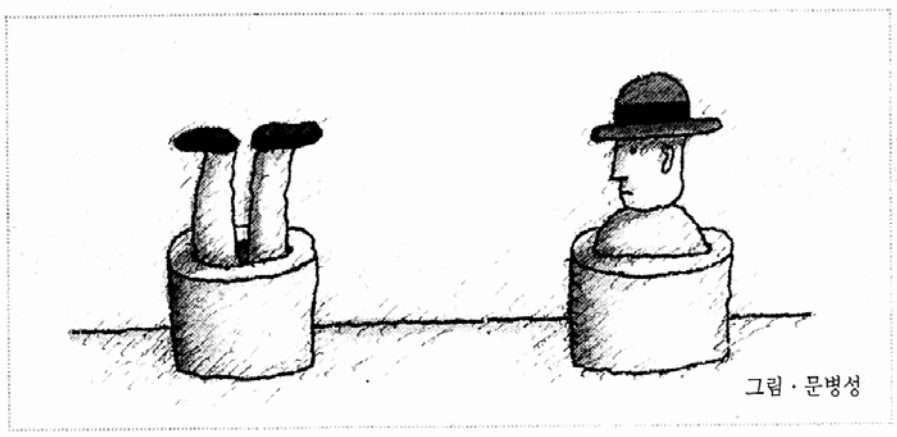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물질과 정신 둘로 보지 말라

불교와 과학 〈18〉

현상과 본질

서양사상의 틀은 기본적으로 현상세계를 넘어 초월세계를 찾아가는 구도를 갖는다. 플라톤에 의해 정형화된 서구철학은 현상계와 초월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진리는 반드시 초월계에만 존재한다는 믿음 위에서 발전하였다. 기독교의 경우도 역시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구분은 서로 넘나들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구획의 경계선이어서 신의 성곽인 저 세계는 이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구철학의 간판 격으로 등장하는 데카르트에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현상세계를 너머서 자족적인 실체의 영원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현상과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축이라는 생각이 바로 서구의 현상과 본질의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과학 본질 - 현상 이원론 과학혁명 선도

불교 공과 색 따로 보지 않고 中道 주장

현상과 본질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서구 이원론은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사상적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은 갈릴레오의 운동법칙을 낳게 하였다. 갈릴레오는 지난 이천 년 동안이나 운동의 법칙을 지배해 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다. 물체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계속적인 힘을 가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과 달리, 갈릴레오는 외부의 힘을 한번만 물체에 작용시키면 영원히 운동한다고 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옳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외부의 힘이 물체에 한번만 작용하면 얼마 못 가서 그 물체는 서고 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당연한 경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저항과 마찰이 없는 이상상태(ideal state)를 새로이 상정하였다.

갈릴레오 당시 저항이 없는 진공상태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사고실험(思考實驗)이라는 머리 속에서만 하는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틀리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그 사고실험은 너무나 간단했다. 경사면에서 물체에 힘을 한번만 주어서 공을 아래로 굴러가게 하면 그 공은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 공을 아래서 위로 힘을 가하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진다. 그렇다면 위로도 아래로도 아닌 평면에서 공에 한번만 힘을 가한다면 점점 빨라지지도, 점점 느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속도도 아니고 감속도도 아닌 것을 등속도라고 말한다. 등속도란 한번 물체에 힘을 주면 그 초기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초등학생도 알만한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운동의 등속도 원리를 갈릴레오는 찾아내었다.

이러한 운동법칙의 발견은 운동의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이 현상에 얽매어 있던 것이라면 갈릴레오의 운동학은 본질을 들추어 낸 결과였다. 달리 말해서 저항과 마찰의 세계를 경험의 현상계라 한다면 저항이 없는 이상상태를 경험을 초월한 본질계라고 보는 것이다. 확실히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서구의 종교와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구의 기독교를 오늘날까지 지탱해 온 사상적 뿌리였으며, 서구 근대과학혁명을 낳은 세계관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의 생각은 물질과 정신을 구획하여 물질을 현상계에 그리고 정신을 본질계에 배속하고, 그들 사이의 우열을 규정함으로써 수많은 사회적 모순을 낳게 하였다. 먼저 물질을 저급하고 오류의 범주로 놓고, 정신만을 고급하고 진리의 범주로 놓음으로써 추상적인 세계가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지배하여 물질의 현실을 오도하고 구속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사상적 동기에서 서구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고 마는, 말하자면 환경위기 그리고 인간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서구 산업화의 가장 큰 문명적 질병의 하나인 인간소외로부터의 탈출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 것인가는 현대인이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고 보아도 좋다.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지면에서 말했던 공과 색의 관계를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한다면, 공과 색은 서구 이원론에서 말하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에서 공과 색이 하나라는 말은 너무나 자주 들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과 색의 범주에 대하여 은연중에 우열의 판단을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의 세계에 오히려 충실하지 못하는 현실의 결과를 자주 볼 수 있다. 색을 분별의 세계에서만 보면 미망함에 빠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공을 이치의 세계에서만 보면 그 공도 허무해 질 수 있다. 기계와 정보에 얽매이기 쉬운 현대인에게 본질과 현상의 구별됨 없는 중도의 눈은 삶의 중요한 좌표계이기도 하다.

▩최종덕/상지대 교수(jdchoi@chiak.sangji.ac.kr)

외국 구법승 즐겨찾던 남방불교 중심 도시

지구촌 불교 / 스리랑카 아누라디푸라

불교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아시아 불교 유적으로, 스리랑카의 아누라디푸라를 꼽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이 곳은 1000년 이상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지이자 동남아 불교의 성지였다. 역사적으로 아누라디푸라는 인도에서 발생한 상좌부 불교의 동남아시아 첫 전래지이자, 부처님 사후 구전되어 오던 불교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문자화된 곳이며, 이를 토대로 오늘날 불교의 원전으로 간주되는 빨리어 경전과 주석서들이 편찬된 곳이다.

불교 전래 당시 스리랑카 티사 왕은 인도승 마힌다 스님에게 왕궁 정원 예정지였던 넓은 땅을 기증했고, 그 자리에 커다란 사찰을 세웠다. 이 사원이 바로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이 된 '마하비하라' 사원인데, 그 주변에 다른 사원과 탑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아누라디푸라를 거대한 불교 도시로 변화시켰다.

5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마하비하라 사원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님들이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 인도 출신의 붓다고사 스님이 큰 족적을 남겼다. 오늘날에도 남방 불교의 기본 교재로 널리 읽히고 있는 〈청정도론〉 등 수많은 주석서가 바로 그것이다.

인도발생 상좌부 불교 첫 전래지
경전도 최초 간행 … 유적만 현존

이외에도 마하비하라 사원에는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많은 스님들이 불교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중국의 구법승 법현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스님까지 이곳을 찾았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미얀마 역시 이 시기에 마하비하라 사원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스님들에 의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5세기 이후 인도로부터 대승불교도 전해져서 스리랑카에는 한동안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가 공존했지만 점차 대승 불교는 사라지고 상좌부 불교만 남게 됐다. 이후 스리랑카 불교의 중심은 폴론나루와, 캔디 등 남쪽으로 옮겨갔고, 아누라디푸라는 퇴락해 갔다. 지금은 당시의 불교문화를 짐작케 하는 유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스리랑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보통 소승불교라고 부르지만 현지 불교도들은 이 명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불교 승단의 발전 과정에서 당시 주류였던 계율과 수행 중심의 전통에 반발해 대중교화와 보살행을 강조하는 새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자신을 대승, 기존 승단을 소승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한 것일 뿐 객관적인 명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상좌부 불교라는 예로부터의 이름이나 남방불교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불교가 4세기부터 힌두교의 부흥에 의해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11세기 이후 인도를 침범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오늘날 불교의 원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은 남방불교로 평가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빨리어 경전을 토대로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밝히는 데 더 큰 노력을 쏟고 있다. 대승불교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는 한편으로는 너무 알지 못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승이라는 편견 때문에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던 남방불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藏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큰 뜻은?
직지인심 교외별전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 오본래자토 五本來玆土
● 전법구미정 傳法救迷情
● 일화개오엽 一華開五葉
●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

신사년 제 1회 0과1수의 교채 대운맞이
제62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윤달드는 해에 서성명성의 대운 받아 도통군자되소서

천년에 한번드는 1월 1일에 갑자일이 시작되는 해인법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의 기도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2월 25일 2월 26일, 자시와 오시에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궁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우담바라의 비밀을.. 2000년 5월 9일의 하늘의 대서사시의 광경을

이 법의 소식은 象 · 形 · 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육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에 득도하시어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하시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혼과 얼을 찾고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명자, 진인 도통 일류 스승 되소서.

● 입 제 : 양력 2월 25일 밤 10시 ~ 2월 26일 亥時에 해제
● 동참금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일요일 밤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척순 동참
● 전 화 : 02)821-6622 / 야 923-3110 /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전화요망)

달마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달 마 종 악사도량 달 마 선 원 天龍眞人 泰日法師

「특히, 이번 법회에 달마심기선무기공 달통봉으로 간강은 삼목에 있고 수명은 삼백에 있느니라. 이법은 조사께서 면벽 9년 수행하시던 건강법을 공개하오니 동참하시어 건강지도자 되소서」



◇조계종 21교구본사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법맥을 이은 진각국사때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16명의 국사를 배출해 승보(僧寶)사찰의 지위를 굳혀왔다. 사진은 16국사의 진영을 봉안한 국사전의 내부모습.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근원 없는 샘 없다.'

2천5백여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후 지혜의 등불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흘러왔다.

한국불교 1천6백여년의 역사도 열사의 사막을 가로질러 경을 구하고, 대양의 폭풍을 이겨내며 법을 구한 선사들의 구도열에 힘입었으며, 깨달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승한 선지식들의 자비심 덕분이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이 저마다 종조 및 중흥조 선양사업에 나섰다. 뿌리 찾기를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인 포교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각 종단, 종조-중흥조 선양 사업

조계종은 종조(宗祖) 도의국사 추모 학술토론회와 정부가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한 중흥조 보조 지눌(1158~1210) 국사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흥조인 태고 보우(1301~1382) 국사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는 대법회와 추모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태고종은 종조 보우국사 탄신 700주년 다례법회와 국가안녕 및 발전을 위한 기원법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우국사 법어와 논문집 보급, 북한산 태고사 성역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천태종 역시 문화관광부가 '11월의 문화인물'로 지정한 종조 대각국사 의천(1055~1101)스님과 관련한 기념예술제와 학술대회를 연다.

'뿌리찾기'로 종단 정체성 확립하자



한국 선종 종조 도의국사

6월 추모학술토론회

한국 선종의 종조로 추앙되는 도의국사는 통일신라 말인 784년 당나라로 건너가 개원사에서 서당 지장(西堂智藏)에게 불법을 이어받은 뒤 귀국, 신라의 선종(禪宗선)의 씨를 뿌렸다.

당시 서라벌을 중심의 왕권불교와 대립하며 진보적인 선사상을 전파했던 도의국사는 말년에 설악산 진전사로 들어가 은둔하였다. 이후 도의국사의 사상은 염거화상-보조 체징에게 전해지고 체징은 9산선문 중의 하나인 가지산파를 열며 우리나라 선종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사상적 일대 전환을 일으킨 대선사임에도 도의국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현행 역사교과서에조차 도의국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조계종이 종헌에 종조로 밝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도의국사의 기일인 6월 22일(음 5. 2)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도의국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조명을 시작한다. 세미나는 국사가 말년에 주석했던 강원도 양양군의 진전사지 복원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천태종 개조 대각국사 의천

11월 예술제-학술대회

우리나라 천태종의 개조이자 고려대장경을 간행한 의천스님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11세에 영통사 경덕왕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불래 송나라로 건너간 스님은 그 곳에서 각 불교교파의 교리를 두루 섭렵하고, 1086년 귀국했다.

개경 흥왕사의 주지 소임을 살면서 제자를 양성하는 한편 요 송 일본 등지에서 4천여 권의 장서를 수집, 교장도감을 통해 이들 경서를 간행하고 간행 경서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3권을 편집했다.

1097년 2월 태후의 발원으로 국청사가 낙성되자, 1세 주지가 된 의천스님은 여기서 천태교학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이 때 비로소 고려 천태종이 한 종파로 성립된다. 고려의 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져 대립하면 당시에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역설하고, 화엄종인 규봉의 학설로 고려의 교종을 통일한 후, 선종의 교리에 입각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통합했다.

의천스님을 종조로 받드는 천태종은 오는 11월 예술제와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 지눌과 함께 고려불교의 양대산맥이었던 의천스님을 기리는 조계종단 차원의 추모행사는 아직 없다.



조계종 중흥조 보조국사 지눌

5월 유물전시회 · 세미나

태고 보우스님과 함께 조계종의 중흥조인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1165년(의종 19) 종희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182년(명종 12) 승과에 급제했으나 출세를 단념하고 평양 보제사의 담선법회(談禪法會)에 참여했다. 창평 청원사에서 육조 스님의 〈단경(壇經)〉을 읽고 대각한 뒤에도 수도에 더욱 정진했다. 1185년 하가산 보문사에서 〈대장경〉을 열독하고 선 교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공산 거조사에 머물면서 정혜사(定慧社)를 조직하고 〈권수정혜결사문〉을 발표, 독자적인 사상을 확립하고 불교 쇄신운동에 나섰다. 1200년 (신종 3)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 중생을 떠나서는 부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설파,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주장하고 선으로써 체(體)를 삼고 교로써 용(用)을 삼아 선 교의 합일을 추구했다. 한편, 의천이 교로써 선 교의 합일점을 모색한 반면, 종래의 구산선문을 조계종에 통합, 종풍(宗風)을 떨쳐 의천의 천태종과 함께 고려 불교 양대산맥의 내면적 통일을 기한 큰 업적을 이룩했다.

조계종은 오는 5월 보조국사 유물전시회(장소는 송광사), '보조국사의 생애와 사상' 주제 세미나(보조사상연구원 주최), 보조국사 유적지 순례 등의 행사를 갖는다.



태고종 종조 원증국사 보우

탄신 7백주년 기념행사

1301년 음력 9월21일 태어난 원증국사 보우 스님은 13세에 회암사 광지스님을 은사로 득도, 가지산에서 수도했다. 1319년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 참구에 전념, 1333년 성서 감로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1329년 화엄선에 합격했으며, 1337년 전단원에 있으면서 '무(無)' 자 화두를 참구, 이듬해 대각을 얻었다. 1346년 원나라 연경 대관사에 머물다, 호주 하무산 천호암에 가 석옥청공 선사를 만나 인가를 받고, 임제종을 얻어 그 시조가 되었다. 1356년 왕사가 된 스님은 원융부를 설치, 구산선문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선교일체론을 주장, 선과 교를 다른 것으로 보던 당시의 불교관을 바로잡고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양평 사나사는 우리 나라 임제종의 시조이자, 조계종 중흥조인 태고보우 국사의 탄신 700돌을 기념하는 다례제 봉헌, 학술세미나, 진영각 건립, 관련유적 문화답사, 왕사국사 추대식 재현, 보우스님 사상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한국불교의 법통논쟁

법통논쟁은 한국불교 제종단의 종조가 과연 누구이며, 그 종조의 법이 어떠한 형태로 계승되었는가, 또한 그 종지(宗旨)는 무엇인가 하는 등에 대한 문제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곧 조계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이러한 법통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30~40년대 접어들어서다. 한암 스님의 '도의종조설'과 석진 스님의 '범일 종조설' 등을 비롯해 '보조 종조설'과 '태고 종조설'이 팽팽히 맞섰고, 이후 50~60년대 조계종 정화(태고종에서는 '법란')와 관련해 보조냐 태고냐 하는 문제가 주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의 쟁점은 청허 휴정 스님의 법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왕조의 억불정책으로 법맥의 사자상승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휴정 스님의 법맥은 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서산휴정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정심 스님의 법맥이 어디에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정심 스님은 입적에 앞서 "내 법사가 환속했으므로 멀리 구곡 각운 스님에게 법을 이으라"고 했다고 전한다.

학계에서는 각운 스님의 법맥이 보우→환암혼수→각운→정심스님에게 이어졌다는 설과 각진 복구(송광사의 13대 국사)→졸암 연온→각운→정심으로 이어졌다는 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태고 법통설'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대다수의 금석문, 전기 등 사료들이 태고 종조설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의 조계(태고)종은 태고 보우 스님의 문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조가 보우 스님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조 법통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고종조설이 휴정, 유정 스님 입적 이후에 사대모화풍에 의해 위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최초로 조계종을 개창한 인물이 보조 지눌 스님이므로 지눌 스님이 조계종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단호박마탕

덕유산 영각사에는 어김없이 봄이 왔고 박씨 부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부드러운 아지랑이보다 더 잔잔한 모습이었다. 주씨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박씨 부인의 치성은 결사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덕유산 자락이 온통 늙은 호박덩이로 덮이는 가운데 곱게 핀 호박꽃 사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박씨 부인 품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었다.

꿈을 꾼 후 박씨 부인의 몸에는 태기가 있었고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1574년 9월 3일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에 해산을 했다. 아기는 기다리던 사내아이가 아니라 여식이었다. 아들이 아니어서 못내 서운했으나 딸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며 당시엔 술(戌)을 개라 하였기에 그 자리에서 사갑술(四甲戌)이니 논개라고 이름을 붙였다. 주논개는 그렇게 태어났다.

왜군의 총반격으로 진주성의 명운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최경희 장군의 전사소식을 전해들은 논개는 이제 의지할 하늘도 조국도 없었다. 그 해 7월은 장마비가 억수로 쏟아졌고, 무서운 수마가 냇가를 휘감는 속에서 사람들이 호박넝쿨을 끌어안고 물살을 헤쳐 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논개의 두 눈에선 빛이 반짝였다. 왜군들의 전승기념 잔치에서 관기를 소집한다는 소문을 들은 논개, 그녀는 스무살의 아름다운 몸을 여미고 있었다. 7월의 황토물은 진주 촉석루를 삼킬 듯한 기세로 출렁거렸다.

거친 물살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호박넝쿨처럼 그렇게 논개는 왜장을 끌어안고 자신의 사랑과 조국을 위해 인간으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위대한 길을 갔다. 지금도 덕유산 영각사 자락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더욱 붉고 아리따운 호박꽃이 피고 있다.

■ 약선식 연구가,<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감기 · 불면증 효과…치매예방도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단호박, 올리브유, 조청, 호박씨가루, 잣가루, 통깨

요리법 ① 껍질 벗긴 단호박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물기를 제거한다. ② 130~140℃에서 노릇하게 튀겨낸다. ③ 조청과 물을 5 : 1의 비율로 해서 한번 끓였다가 튀긴 단호박을 골린다. ④ 고명으로 호박씨가루, 잣가루, 통깨를 듬뿍 뿌려서 낸다.

효능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노인, 산모, 어린이에게 좋다. 감기나 인후통, 불면증에도 효험이 있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⑳

是以 晝三夜三 懃懃蘊習 惺惺無妄
시이 주삼야삼 근근온습 성성무망
寂寂明亮 不違修門 屈卽失於此心
적적명료 불위수문 굴즉실어차심
鑒通應物 常在目前 終日隨緣
영통응물 상재목전 종일수연
而終日不變之德 是以 將痴愛
이종일불변지덕 시이 장치애
成解脫眞源 運貪嗔 現菩提大用
성해탈진원 운탐진 현보리대용
逆順自在 縛脫無拘 順於性
역순자재 박탈무구 순어성
門也 此修性二門 如鳥兩翼 闕一不可
문야 차수성이문 여조양익 궐일불가

그러므로 밤낮 부지런히 공부하여 항상 깨어있으되 망령됨이 없고, 고요하되 밝아야 하는 그런 수행의 문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물러서면, 항상 눈앞에서 사물을 상대하며 종일 인연을 따르되 변함이 없는 신통한 마음의 덕을 잃고 만다. 그러므로 어리석음과 애욕 가운데서 해탈의 참된 근원을 이루고, 탐욕과 분노를 잘 운용하여 보리의 큰 작용을 나타내어, 역경과 순경에 자재하여 결박과 해탈에 구애되지 말고 성품에 순응해야 한다. 수행과 성품이라는 두 문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

수행과 성품이라는 두 문은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것이다

先德云 恰恰用心時 恰恰無心用
선덕운 흡흡용심시 흡흡무심용
曲談名相勞 直說無煩重 無心恰恰用
곡담명상로 직설무번중 무심흡흡용
常用恰恰無 今說無心處
상용흡흡무 금설무심처
不與有心殊 若能於此 得意進修
불여유심수 약능어차 득의진수
則雖是末世衆生 何患乎落斷常之坑也
즉수시말세중생 하환호낙단상지갱야
向來所謂塵數法門 諸地功德
향래소위진수법문 제지공덕
妙心體具 如如意珠 豈誣也哉
묘심체구 여여의주 기무야재
言妙心者 是惺惺寂寂之心也
언묘심자 시성성적적지심야

옛 스님의 말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쓸 때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없이 쓰게 된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양을 헤아리느라 수고롭고, 바른 말은 번거로움과 되풀이가 없다. 무심히 자연스럽게 쓰면 항상 써도 자연스러워 쓰는 것이 없다. 지금 말한 바 마음이 없다는 것도 바로 마음이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였다. 만약 여기에서 뜻을 얻어 닦아나간다면 말세 중생이라도 어찌 단멸(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과 상(常·항상 있다는 생각)에 떨어질 걱정을 하겠는가. 지금까지 이른바 수 없는 법문과 보살의 모든 지위의 공덕이 다 묘심의 본체에 갖추어져 있음이 여의주와 같다 한 것이 어찌 거짓말이겠는가. 묘심이란 바로 깨어있으면서도 고요한 마음을 말한다."

問今時修心之人 若博學多聞
문금시수심지인 약박학다문
說法度人 則損於內照 若無利他之行
설법도인 즉손어내조 약무이타지행
則何異趣寂之徒也
즉하이취적지도야
答此各在當人 不可一向 若因言悟道
답차각재당인 불가일향 약인언오도
藉敎明宗 具擇法眼者
자교명종 구택법안자
雖多聞而不起認名執相之念 雖利他
수다문이불기인명집상지념 수이타
而能斷自他憎愛之見 悲智漸圓
이능단자타증애지견 비지점원
妙契實中則誠當實行者也
묘계환중즉성당실행자야

물었다. "지금 마음 닦는 사람이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설법으로 남을 제도할 경우에는 마음을 관조하는 공부는 손실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타행(利他行)이 없다면 고요함만을 즐기는 무리와 무엇이 다른가."

답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말로 인해 도를 깨닫거나 교(敎)에 의해 종지를 밝히거나 일단 법을 택하는 눈을 갖춘 이는 많이 들었다 해서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타행을 하더라도 자기다, 남이다 하여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생각이 끊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점점 원만해져서 절대의 법계에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참다운 수행인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천운스님

광주 향림사 조실

"계율 안지키면 불자 아니다"

"실천하는 큰 스님" "언제나 현역"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가까이서 모신 상좌들이나 불자들은 한결같이 스님을 이렇게 칭한다. 스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중에서 오불관언으로 근엄하게 앉아 있는 전통적(?)인 큰 스님의 이미지에서 멀어도 한참 멀다. 또 친견하기 까다롭고 일반대중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법문을 내리는 큰 스님상과도 거리가 멀다. 스님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신도들을 제접하는데 보낸다. 또 직설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법문으로 신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스님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매사에 긍당하고 기가 펄펄 느껴진다. 70이 넘은 지금도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법회를 자상하기 돌보고, 군법당을 돌며 법문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개원을 위해 봄철주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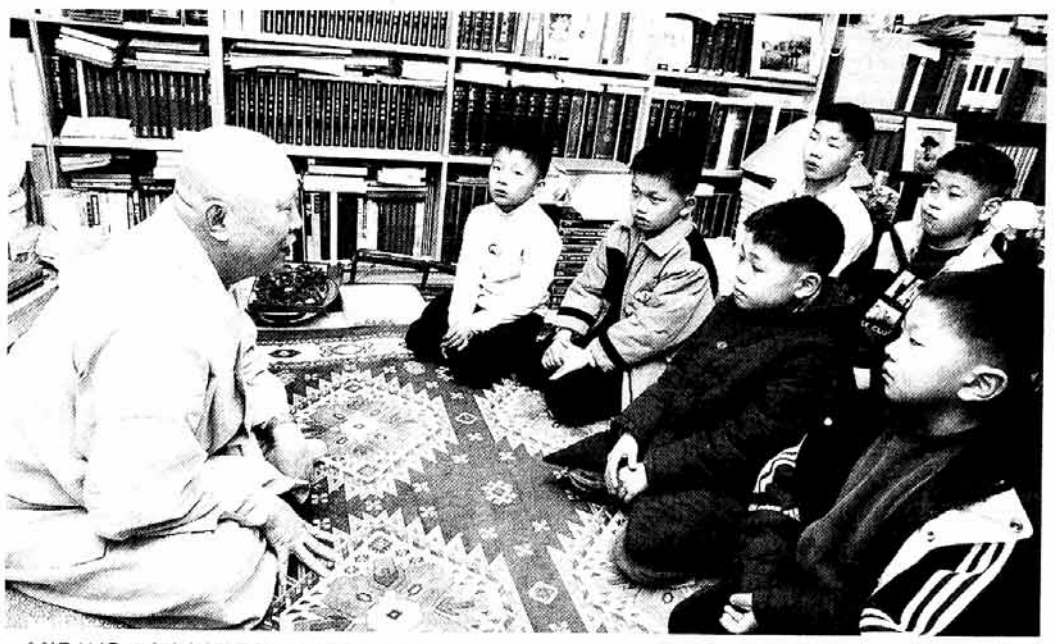
불교의 불모지로 첫손 꼽혔던 호남, 그 중에서도 광주가 이만큼이나 불교포교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천운스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계의 이구동성이다.

스님이 광주 상무동에 향림사를 세운것은 지난 70년대 초. 당시 절들은 대부분 불공중심이었고 법문은 어려운 한문투였으며 또 신도들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었다. 그러한 때 천운스님은 직접 찬불가를 부르며 청소년들이 절에 오도록 했고, 어린이법회, 중고등학생법회, 대학생법회를 만들어 어린이 청소년들을 불교와 맺어주고 수련회도 직접 주관했다. 또 쉬운 말로 법문을 했고 한글경전 읽기를 권장했다.

스님의 교육열은 유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중진 · 원로 스님들이 상좌가 대학에 가고 현대식 교육을 받으면 환속하기 쉽다고 상좌들의 교육 의지를 꺾을 때 천운스님은 전통적 수행도 중요하지만 현대적 교육도 중요하니 동국대나 승가대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외국유학도 하라고 독려했다.

법인스님(해남 대둔사 총무)은 "상좌는 물론 손상좌와 다른 문중의 스님일지라도 인연있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며 열심히 뒷바라지해주시는 분이 바로 큰스님"이라며 "특히 포교에 관심이 크셔서 22교구 말사주지 회의때는 늘 지역특성에 맞게 포교를 하라, 각 말사들은 면 단위까지 포교를 할 수 있는 복지포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지를 할 수 없다고 일갈하셨지요"라고 전했다.

절에서 일하는 종무원들의 자녀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찰이 전국적으로 몇이나 될까. 향림사와 광주불교교양대, 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50명이다. 스님은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 일체를 부담한다. 자녀가 둘이건 셋이건 관계치 않고 교육비를 댄다. 그 교육비가 1년에 1억이 넘게 든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스님이 전국 사찰에서 법문한 후 받는 여비를 모아 충당하고 있다.



◇천운스님은 40년 가까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부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키워오고 있다. 향림사 아이들과 즐겁게 담소하고 있는 천운스님. 사진=고영배기자

종무원 자녀에 교육비 "누구든 공부해야 한다"

스님은 제자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상좌인 범각스님(도갑사 주지)은 "절에서 라면이라도 끓이면 호되게 나무라시고 삼천배 참회를 해야했다"고 일화를 들려준다. "어쩌다 밖에서 음식을 사먹고 절에 들어오면 스님에게 들킬까봐 양치질을 몇 번씩 하고 스님과 5m 이상 멀찌감치 서있어도 어떻게 아시는지 혼나곤 했다"는 것이 상좌들의 이야기이다. 그만큼 스님은 스님 자신은 물론 상좌, 손상좌들에게도 철저히 계행지키기를 강조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먹는 것, 담배피는 것, 수염기르는 것, 화투치는 것, 장기 바둑 두는 것이예요. 상좌들에게 그런 짓 하면 나와의 인연은 끝이다 그래요.

많은 불자들이 오계와 보살계 등을 수지하고 또 스님들은 사미(니)계, 비구(니)계 등을 받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불교계는 전체적으로 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또 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계를 받더라도 무시하기 일쑤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래 청정하게 구족되어 있는 불성을 계발하여 성불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이 절실합니다."

스님은 은사스님인 지암스님의 가르침을 일러주신다.

"불자는 항상 계율을 근본으로 지키고 계율에 따른 실천을 하며 삶의 지표로 삼으라고 역설하셨지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중생이 부합하는 것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과 중생이 하나되는 수행의 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율을 받아지니지 못하는 자는 진정 수행을 한다고 볼 수 없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승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누누히 강조하셨지요. 또 계율의 실천이 없는 수행자는 세인의 신망을 저버리게 되어 정신적 사표로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자는 스스로 스님이 아님을 자인하는 것이 되고 그런자가 진리를 말함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셨어요. 계율은 청정을 근본으로 하는데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입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성인의 말씀을 역설해도 그것은 이미 삿된 마구니의 소리라고 하셨어요. 스승이 청정한 계율을 지니지 못하면 어찌 그 제자에게 청정한 계율을 지키라고 경책해 주겠습니까?"

천운스님은 "계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바로잡는 기둥과도 같지만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정화를 위한 근본이 되는 것이니만큼 개인의 신앙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중생계를 맑게 한다는 원력을 가지고 계율을 지키고, 또 계를 받지 않는 자는 자기 절제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삿된 행위를 하고도 뉘우침과 죄책감이 없으므로 인연이 닿는 중생에게 보살계를 설해주어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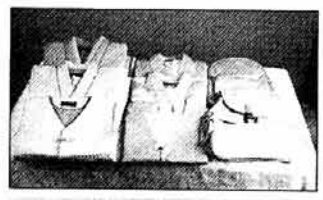
수행자의 본분지키기에 투철한 스님은 출가한 이래 조석예불 드리는 것을 결코 거른적이 없다. 범각스님은 "제가 은사스

제2회
3천 3백 3십 3배 특별정진
"큰 업장 108 번뇌 즉시 녹이고
큰 소원 한가지는 필히 이뤄라"
소리산 출세봉, 해탈봉, 반야봉, 피안봉의 신령스런 길상지 수행전문도량에서 환희심으로 가슴벅찬 감동을 체험하시고 부처님 밝은 빛으로 방광 하심의 가피를 입게됩니다.
■정진내용
1회 (3배+108배)+(3배+108배)+(3배+108배)
= 333배 (45분+5분 축원기도+10분 휴식)
~10회+3배 = 3333배
※ 절을 못하시는 분은 부처님 크신은혜 고맙습니다 를 절 한번에 3회 염송하시게 됩니다. (3333배×3=9999회)
■준 비 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일 시 2001. 2. 24 토요일 저녁 9시~일요일 아침 7시
※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스님의 지도하에 일괄적으로 절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 3박 4일 수행체험 특별기도 수행 (수시참여 가능)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6736(팩스겸용)
▣찾아 오시는 길
⊙ 서울 상봉터미널~모곡행 버스 종점 하차 하신 후... 전화 요망
⊙ 서울 대명관광 [02)538-7300]
서울 역삼역 한국은행 후문 홍천 대명 스키장 하차 하신후... 전화 요망

경북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불기2545 (2001)
15년 전통을 갖고있는 본 대학에서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불자들의 질적향상과 전법도생,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개발을 목적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새 시대를 여는 지혜밝은 포교사 및 대덕법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 음
1. 모집정원 및 입학자격
① 불교 대학 - 2년과정 200명(연령, 학력제한 없음)
② 불교대학원 - 2년과정 30-50명(연령, 학력제한 없음)
③ 대학원은 본 불교대학 2년 수료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사진 3매
3. 입학절차
① 원서를 제출한 자 중 입학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에 한하여 2001년 3월 2까지 개별 통지함
② 등록회비 30,000원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① 원서교부 : 2000. 11. 5 - 2001. 3. 1 까지
② 원서접수 : 2000. 11. 5 - 2001. 3. 1 까지 마감
5. 원서교부처 ① 본 대학 교학처 및 서무과
전화 : 054) 632-8226 팩스 : 054) 632-6675
② 안양원(상망동 영주여고 옆)
전화 : 054) 636-8877 팩스 : 054) 632-0860
6. 강의교과 및 시간(야간)
① 강의교과 - 주요경전 6과목, 불교학기초, 일반교양, 수련법회 2회, 성지순례 2회
② 강의시간 - 대학원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2시간)
대 학 매주 금요일 19시 - 21시 (2시간)
7. 입학식 - 2001. 3. 3 (토요일) 오후 2시 - 본강당
8. 수료 후 혜택
① 대학을 수료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을 드림
② 대학원을 수료한 자에게는 원효 대덕법사 자격증을 드림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로얄상가 5층 전화 : 054) 632-8226 팩스 : 054) 632-6675
경북불교대학원장 철학박사 원의범
경북불교대학장 삼장법사 안경우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입니다.
사진에 소개된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것입니다.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집을 짓고 고친 후 정신질병, 손재, 혼수, 호신부 패물, 부적,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재앙, 액운,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향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홍 련 암 공덕하 법사
☎ 02) 909-1360 · 011-9778-2803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 女	130,000
누비 (上, 下)	男 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 女	130,000
누비조끼	男 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 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133-1 (봉용빌딩 3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천운스님은

호남지역 포교 '대부'



스님에게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 '알고 가는 길'이란 포교지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누어준 것도 처음이고 찬불가를 보급시킨 것, 어린이 중고등학생법회, 수련회를 만든 것도 호남에서는 선두주자에 속한다. 그만큼 스님은 남보다 한발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고 이끄는 수행자다.

천운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향림사에는 3대가 함께 신도인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4대가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들 천운스님을 마치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한다. 그것은 스님과 신도라는 종교적 위계관계에서 비롯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존경심이다. 스님은 매일 시간을 정해 누구라도 차별않고 제접한다. 이 시간에 신도들은 가정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신행상담을 하기도 한다. 스님은 신도 누구라도 법도에 어긋나게 잘못 산 것이 보이면 사정없이 야단친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라도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하는데서 불행이 오기 때문에 이성으로 가정사를 꾸려나가야 된다고 말하며 모든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생활할 것을 강조하며 신도들을 정법으로 이끌고 있다.

천운스님은 1930년 전북 고창 生으로 47년 월정사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58년 선운사서 지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0년 선운사 도솔암 대교과를 수료하고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구례 화엄사, 해남 대둔사 주지를 역임했고 지난 1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불교의 불모지였던 전남 광주일원에서 포교에 주력한 공로로 지난 97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님을 39년 모셨는데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모시고 좌선, 염불, 다라니를 꼭 하십니다"고 회고했다. 사실 스님들조차 예불 거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 풍토에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철두철미 지키는데 스님은 조금의 양보도 없다.

스님은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참선하고 예불모시고 염불하는 시간을 갖는다. 6시15분에 아침공양, 그리고 행보를 1시간동안 하고 신도들과 만나 문답으로 상담한다. 점심공양후에는 광주불교대학, 사무실, 복지관, 정광학원, 향림원 등의 결재를 해준다. 그날 그날의 행사나 나가야 하는 경비 지출을 보고받는 것도 이 시간이다. 밤 8시부터는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스님은 시간 개념이 철저하다.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에 스님은 많은 일을 척척 해나간다.

스님이 16살에 내장사로 갔을 때 그곳에는 박한영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스님은 1년여 정도 노스님을 시봉하고 이후 월정사에서 지암스님을 스승으로 모신다. 스님은 항상 "두 스님과의 인연은 내 수행의 발판"이라고 말한다. 스님이 수행자로서 일관되게 해오는 수행자세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노스님들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이다. "우리 스님(지암스님)은 특히 남의 평을 하고 남의 이야기나 일삼는 시비 등을 엄하게 경계하셨고 남의 일에 시시콜콜 관여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포교하는 사람은 감투쓰면 안된다, 무소유로 살아라, 여자관계 철두철미하라는 세가지를 간곡히

예불 · 좌선 · 염불
신도들과의 문답
빼놓수 없는 일과

당부하셨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최대의 도둑이고 역적이라고 하시면서 삿된 일, 범속한 일상사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책하셨지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 것, 포교와 복지, 교육, 인재양성에 열심인 것 등 모든 것은 은사인 지암스님에게서 받은 영향이지만 진실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은사의 뜻을 올곧게 계승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시는 천운스님의 모습에서 후학들은 또 여법한 수행의 귀감을 삼게 되는 것이다.

정화이후 전국 수많은 절에서 세칭 '대처승 몰아내기'가 벌어져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도 비일비재 했지만 스님은 대처승이라고 해서 강제로 쫓아내 본 적이 없다. 스님은 "내 권속이 거의가 대처승이고 내가 대처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몰아내는 데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무조건 쫓아버리니 입에 풀칠도 못하게 힘들게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가운데 분에 못 이겨 개종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내 눈으로 그런 것을 보니까 무자비하게 쫓을 수가 없었어요." 생계마련을 해준 다음에 나가게 했다. 즉 논을 얼마 줄테니 그것을 밑천으로 벌어 자시시오, 또는 주지는 두 만기만 하게되어 있으니 세 만기째 하실 생각 말고, 할려면 포교당을 따로 지으시오 했다는 것이다. 사람은 살려서 보내야 한다는, 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확연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스님이 40년 가까이 갈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아 온 것도 사람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인권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믿음하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지금도 향림사에는 40여명의 아이들이 부처님품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고 있다. 39년동안 향림사를 거쳐간 아이들은 150여명. 이중의 10% 정도는 출가수행자가 되었다.

개중에는 가출했다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말썽장이 아이들도 있었다. "큰스님은 아이들이 몇 번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셨어요. 주위에서 받지말자고 해도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지요. 지난 IMF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부처 키우는 것'이라며 스님은 다 받아주셨지요" 범각스님의 말이다. 천운스님은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 장차 큰 인물이 되도록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자라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식을 위한 나의 의무"라고 주위에 말씀하시곤 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교사 의사 사업가 등 사회 곳곳에서 훌륭히 역할을 하는 불자로 생활하고 있다.

천운스님은 늘 '지혜로 살기'를 강조한다. "누구나 전생의 업이 있으니까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업(除業)이라고 해요. 제업을 하려면 일념으로 가야합니다. 일념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일념도 없어지는 무념(無念)의 세계가 옵니다. 무념의 경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일념으로 닦아야만 제업이 이뤄져 무념경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면 성질부리고 과욕부리고 남을 음해모략하고 노름하고 그런 몹쓸 짓을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늘 신도들에게 강조합니다. 돈놀이, 노름, 음란한 생활, 습관성 담배 술 아편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이런 생활을 하다보면 마음이 허랑해져서 제업생활이 안돼요. 무념까지 가도록 지속시키는 일심이 중요합니다. 스님들은 물론 재가불자들도 그 경계까지 가야 해요."

온갖 타성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으로 제 마음을 제가 추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하심으로 정진하고 보시정신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여 참다운 불자로 살아가자는 것이 스님의 간곡한 당부이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승원스님

충남 예산읍내를 거쳐 대술면 쪽으로 한참을 가다 보면 천방산이 나온다. 그 천방산 산줄기를 따라 큰 저수지를 한참 돌아가보면 천방사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다. 그 암자에 승원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 승원 스님은 나이로는 나보다 한참 연배이지만 강원생활을 함께 한 도반이다. 강원을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하면 스님들도 동창모임을 갖는다. 스님은 한번 그 모임에 왔다가 나이 어린 스님이 나이 많은 스님에게 경우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곳은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훨훨 떨쳐 버리고는 그후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여러 도반들이 함께 하자고 여러번 권유를 했지만 스님은 '홀로 수행'에 힘을 다 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지라 어쩌다 스님을 찾아간다. 그리곤 천방산 기슭에서 침묵을 배우고 검소를 배우고 참나 주시함을 배우고 돌아 온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손수 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스님에게는 가능한 시은을 덜 지어 갈려고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곳에는 현대의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스님의 손은 거칠다 못해 손톱이 다 부러질 정도이다.

천방산 기슭서 무소유 삶
고아들 돌보며 수행열심

내가 대중처소로 가기를 몇차례 권유했지만 시은이 무섭다고 했다. 받아 먹기만 하고 제대로 정진을 못하면 마음이 더 무겁고 몸이 더 무거우니 내 몸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현대생활이 주는 편안함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다.

스님은 그곳 천방사에서 은사스님을 떠나 보내야 했다. 또 한분의 노스님도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의 장례도 손수 치러야 했다. 그리고 속가로는 언니고 절집으로는 사형의 인연을 맺은 스님마저 손수 장례를 치르는 아픔을 견디면서, 어쩌면 허망함과 무상함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는지도 모른다. 또 부모 없는 고아들을 몇 명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아이들마저 자기들 살 길 찾아 떠나고자 했을 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부모처럼 방을 얻어 주고, 직장을 구해 주는 등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채비를 해 주었다. 좁은 내 소견으로 "그렇게까지 한다고 저 아이들이 고마움을 알까?" 했을 때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아이들의 집은 바로 이 천방사야. 내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어. 그래도 부처님 밥 먹고 자랐는데 결혼을 하겠다면 결혼도 시켜주어야 해. 모든 것이 억지로는 안되고 그 업력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데 머리 깎고 먹물 옷 입을 인연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나. 어디 가든 부처님 뜻으로 살면서 마음 하나 잘 쓰면 되겠지" 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이 뵙고 싶을 때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찾아 오라, 천방사는 다 너희들의 집이기에 기대고 쉴 수 있는곳이라고 단단히 일러 주곤 했다.

사실 절집은 '숨은 고아원'이다. 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면서 아이들을 키운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모두 머리를 깎고 출가사문의 길을 가준다면 대성공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 둘 스님 곁을 떠날 때 그 떠나는 아이들을 서운해 하고, 많이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떠난 그 아이들은 다시 절집으로 오지도, 가지도 않는 모습을 보아온 터라, 미련없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승원 스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보시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알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문제가 급박하게 닥쳤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익 쪽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이 아닌가, 가끔은 주위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라고 내게 권유하지만 나는 거부한다. 왜냐하면 나는 승원 스님처럼 진정한 보시행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승원 스님이 정진하는 천방사는 어쩌다 찾아오는 반연들에게 기도 법을 알려 주는 정도고 법회를 하거나 불사를 거대하게 하지 않는다. 청빈 그대로이다. 어쩌다 재라도 들어오면 스님은 참으로 부담스러워 한다. 그 조그마한 토굴은 찾아가고 찾아 오는 이가 드문 골짜기에 있지만 스님은 그곳이 수행자에게 극락이고 열반의 언덕이라고 누누히 말한다. 생활권이 편안한 대중이나 도반들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지 않는 승원스님, 나는 때로 번잡하고 분주한 내 생활에 지쳐 기운을 잃을 때 승원 스님을 찾아가 무소유의 가치를 배우고 '더 많이 비우기 작업'을 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수행이 되는 것처럼 편하게 살아 가는 나의 초라함이 스님 앞에서는 더 크게 느껴진다.

스님은 물질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꾸며, 청빈을 즐기면서 사는 스님이기 때문이다.

▩ 세원사 주지

혜거스님의
경전강좌 안내

해거스님께서는 다년간 불교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상담과 경전강의를 하셨습니다. 본 선원에서는 신사년을 맞아 새로운 경전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유식 삼십송
강의 일시 : 3월 2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 교리
강의 일시 : 3월 7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3개월간 회비 6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금 강 선 원

TEL : 02) 445-8484 FAX : 02) 445-8043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교 수 초 빙

세계수준의 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에서 다음과 같이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 초빙분야

학 과	전 공 분 야	초빙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교학(원시불교)	1명	계약제 임용
	불교교학(유 식)	1명	
	심리학	1명	
	사회복지학	1명	

◉ 지원자격 가.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나.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 불교를 이해하고 신심이 돈독한 분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빙자료, 사본은 인정하지 아니함) 각 1부
라. 연구실적물('97. 3. 1. 이후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각 1부
마. 석 · 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제출기한 2001. 3. 5 ~ 2001. 3. 7. 17:00까지

◉ 제 출 처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8-21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705호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설립추진위원회

◉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2001. 3. 7.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외국어로 된 각종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라. 전형결과는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분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임용직급은 자격기준에 따라 결정함.
바. 불교 신자인 분은 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인사관리규정에 따름
아. 본 대학원대학교 개교 지역은 서울특별시내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 02-3486-830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 2. 21 한국불교대학원대학교(가칭)

2001년 포교사대학 입학안내

21세기는 고도의 전문화된 포교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견고하고 불퇴전의 용맹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길을 제시 할 수 있는 통찰력 갖춘 불교지도자를 어느 때보다 요청됩니다. 1981년 설립된 본 대학은 현재 1000여명의 포교사가 활동 중이며 초(법)종단 대덕 스님, 교수, 법사님을 초청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포교사 양성을 위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시간
주 2일 2강좌 각 90분 강의 출석, 야간수업
직장인을 위한 야간(토요반)운영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 한국불교사, 불교문화사, 법화사상, 원효사상, 불교의식
2학기 - 근본불교, 아비달마구사론, 반야사상, 불교사회복지론, 선문염송, 생활불교
2학년 1학기 - 유식론, 중국불교사, 법화사상, 정토불교사상, 밀교특강,
2학기 - 불교경전 개설, 인도불교사, 화엄사상, 선종사상, 원각경강독, 불교상담론

◎ 강사진
무진장스님, 법산스님, 운곡스님, 오국근교수, 오형근교수, 이봉춘교수, 박경준교수, 이혜속교수, 김사업교수, 한정섭박사, 서윤길교수, 리영자교수, 이정희교수, 심만춘스님, 문보경스님, 노병산스님, 장각성스님, 관태일법사, 허은법사, 김일룡법사, 구해스님, 최홍주법사, 최중찬교수 등

◎ 모집 및 전형 (2년제 야간 - 출강, 통신과정)
◎ 모집과목 및 인원 포교사학과 출강 35명, 통신 100명
◎ 지원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 및 불교교리 숙지자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선착순 등록금(1학기) 30만원
◎ 특전사항 - 포교사 과정이수 후 수료중, 포교사 자격증, 포교사증 수여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 가능
- 스님, 교임, 종단 추천 스님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720-1001 팩스 02)722-1585

한국불교포교사협회 부설 포교사 대학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2001학년도 봄학기 원생모집 】

모집과정

과 정 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교육기간	주/야 구분	비 고
교양교육과정	불 교	불교란 무엇인가	1학기	주간	
		참선수행	1학기	주간	
	종 수 역 학	생활풍수	2학기	주간/야간	
		생활역학	3학기	주간/야간	
	문 화 예 술	서예	2학기	주간/야간	
		문인화	2학기	주간	
		서예	2학기	주간	
		보석디자인	2학기	주간	
		캘리그라피	2학기	주간/야간	
		전통생활지수	2학기	주간	
		한지그림강의	2학기	주간	
		전통의상실기	2학기	주간	
		건강전통무용	2학기	주간	
	외국어	영어회화고실	1학기	야간	
		중국어회화고실	1학기	야간	
		일본어회화고실	1학기	야간	
	건 강	신기공(초급/중급/고급 시범/연구)	4학기	주간/야간	
		수지침	2학기	주간/야간	
전문교육과정	불 교	불교전문교육	5학기	주간	
		천태학	2학기	주간	
		불교영어	2학기	야간	
		한문해석법	2학기	주간	
		기초한문	2학기	주간	
		불교한문강독	2학기	주간	
방통고교과정	학점은	동국학점은행대학	2학기	주간	
특별교육과정	예술지망	포항예술지교	6학기	주간	
학점은행제교육과정	고 양	고등학교에서 인정하는 16개 고과과목 운영	각 1학기	주간/야간	학점인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중 운영교과에 대한 문의는 본 원 교학과로 문의요망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없음(단, 학점은행제 및 일부 교육과정은 제외)

원서교부기간 및 접수
■ 기간 2001년 2월 1일(목) ~ 2월 28일(수)
■ 접수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기념관 1층)
※ 단, 학점은행제 과정 접수기간은 별도로 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및 사진(여권용) 2매
■ 주민등록등본(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불교전문교육과정 지원자에 한함)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 일부교육 과정은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 2260-3728~9 / FAX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edu/~soedu

e-세상에서 '불교문화' 자리잡다

목아박물관 매달 새작품 '입력'
원성 스님 '풍경' 사이버 전시
능화스님 무용 '보고 또 보고'



◇목아박물관장인 박찬수 씨의 웹사이트.



◇영산재보존회 능화 스님의 불교무용 사이트.

국내 인터넷 사용자수가 이미 400만 명을 넘어섰다.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부상한 인터넷 속에는 사이버박물관, 사이버미술관, 사이버영화관, 사이버방송국 등 없는 게 없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교계도 이미 미술, 음악, 무용 등의 문화예술분야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이버문화공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아직은 개인 홈페이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불교문화를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고, 특히 젊은층과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로서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목공예품의 진수를 보여주는 박찬수 씨의 목아박물관(www.moka.or.kr)은 매월 15일 새 작품을 갤러리에 선보이며, 사이버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동승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진 원성스님 (www.pungsyung.co.kr)은, 풍경이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전시는 물론 관람객과 대화도 나눈다. 불교서각가 가 혜안스님(www.heean.co.kr)도 사이버공간에서 전통 서각과 선판화, 단청문양 등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불교전통무용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능화스님의 불교무용(www.buddhistdancing.co.kr), 불교음악계의 소식과 새 찬불가 앨범 등을 소개하는 부디스트뮤직(www.buddhistmusic.co.kr)사이트 등도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사이버문화공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 모여든 네티즌들을 실제 문화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노력들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온라인에 모여든 네티즌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개별공간이 부족한데다 전시나 공연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국내 유명 화랑 가운데 하나인 금호갤러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에게 상세한 전시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시를 여는 등의 방법을 통해 네티즌들이 직접 미술관을 찾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가나아트센터,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 전당 등 국내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이미 이같은 방법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다. 사이버문화가 인간 중심적 문화의 가치를 압살할 것이라는 사회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사이버 문화 공간을 통해 새로운 문화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문화공간의 활성화가 직접적인 불교문화 수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 수준을 넘어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네티즌들을 실제 문화 공간으로 이끌어내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시 - 신경림 씨
소설 - 한승원 씨
평론 - 홍기삼 씨


◇신경림 씨


◇한승원 씨


◇홍기삼 씨

대한불교조계종 제6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분에 신경림 시인(동국대 석좌교수), 소설 부분에 한승원 소설가, 평론부분에 홍기삼 문학평론가(동국대 교수)가 선정됐다.

1956년 〈문학예술〉로 등단한 이후 우리 문단의 대표적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경림씨는 지난해 가을 발표한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에서 평범한 시어들을 통해 불교적 직관을 펼쳐낸 점을 평가받아 수상하게 됐다. 중견 소설가인 한승원씨는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인연과 업, 우주적 존재 원리를 탐구해 간 장편소설〈사랑〉으로, 홍기삼씨는 평론 〈불교문학의 두 방향〉으로 불교문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1996년 제정된 현대불교문학상은 지금까지 시 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시, 소설, 평론 등 3개 부문으로 범위를 넓히고, 상금도 5백만원으로 늘렸다.

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 수완스님은 "조계종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 소설, 평론 뿐 아니라 시조, 희곡, 아동문학 등 수상 장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것"이라면서 "침체된 불교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 불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은 〈불교문예〉 봄호에 소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은자 기자

문화소식

국악 FM방송 3월 개국

국악 FM방송이 3월 2일 개국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내에 자리잡은 국악 FM방송국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2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는 국악 전문 채널. 주파수 FM 99.1㎒로 서울 · 경기 일원에서 청취할 수 있다. 시험방송 기간중에는 오전 6시~밤 12시까지 정악과 산조, 민요 및 국악동요, 창작음악, 판소리를 해설없이 음악만 방송한다.

국악 FM방송 채치성 편성제작총괄팀장은 "단순히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문화 전반을 폭넓게 다루어 전통문화의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댄스그룹 '무사' 첫 공연

한국 춤의 맥을 잇는 3명의 젊은 무용수로 구성된 'MUSA(舞死)'가 22일 서울 청담동 섬유센터 3층 홀에서 창단 공연 'Promis'를 갖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정재만류 승무 전수자인 정용진씨(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를 비롯, 이재성, 변지훈(상명대)으로 구성된 무사는 이번 공연에서 사물과 록 발라드 음악을 춤과 조화시킨다. 02)516-1540

만다라 불교예술전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제3회 만다라 불교예술 정기전이 15일~3월 8일까지 서울 롯데월드 쇼핑몰 3층 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만다라예술관과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 전시에는 한국 티베트 중국의 만다라 및 탱화 100여점과 부처님 진신사리 및 천연수정 사리함 10점, 한국 티베트의 분상 10점 등 독특한 불교예술품들이 선보인다. 또 행사장에서 달마그림과 행위선무 시연도 이뤄진다. 02)732-6373



전시

김양수 퓨전미술전

21~27일 덕원미술관



수묵화의 절제와 여백의 미로 선정의 세계를 펼쳐 왔던 동양화가 김양수씨가 21일~27일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들녘에서 꾸는 꿈'을 주제로 전시를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유화와 조각의 테크닉까지 집목시킨 독특한 작품을 통해 인간 내면의 자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흔히 퓨전 미술이라고 불리는 김씨의 작품은 이미 지난해 말 중국 북경국제예원미술관에서도 선보여 중국 화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02)723~7771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그리스를 다녀왔다. '인간의 최고의 작품은 자기 자신이다'란 명제 아래 스스로 이상적인 인물이 되도록 연마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건설해 놓은 찬란한 문명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고대에서 현대를 관통하는 그리스적 이상은 '자유로운 인간'이다. 그 이상이 끊이지 않고 내려와 현대 그리스의 대표적 작가인 카잔차키스(1885~1957)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즐거웠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적 자유를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승화시켰는데, 흥미롭게도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불교였다. 그는 자신에게 구원의 빛을 먼저준 것은 부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푸르다 못해 군청색으로 빛나는 에게해가 멀리 바라보이는 크레타 섬의 언덕 위에 카잔차키스의 묘가 있었다. 그 흔한 대리석 하나 없는 소박한 돌무덤 앞에는 그리스 정교에서 파문 당한 상징인 나무십자가가 외로이 서 있었다. 카잔차키스가 추구한 자유는 그리스의 국교인 완고한 정교회의 교리가 용납하는 도덕적인 선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의 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묘비명이었다.

카잔차키스의 조르바

최후의 걸림돌인 자유마저 초월 마침내 해탈로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걸림이 없다.

카잔차키스는 '책벌레'형 인간이다. 그런 그가 찾아낸 가장 이상적인 자유인은 세상의 온갖 궂은 일을 하며 떠도는 야생마 같은 실존인물이었던 조르바였다. "삶의 길잡이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택했을 것이다. … 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책으로부터 빨아들인 영양분의 질량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로부터 느낀 자유의 질량을 들이켜 볼 때마다 책으로 보낸 세월이 억울해서 나는 격분과 쓰라린 마음을 견디지 못한다.('영혼의 자서전')"

조르바로부터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배운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위와 같이 적어 놓고 갔다. 서양적인 자유가 아니라 불교적인 해탈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 내용은 불교의 핵심인 고집멸도(苦集滅道)와 일치한다. 지식인인 그는 평생 고뇌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바람처럼 떠돌던 무애인 조르바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고뇌의 원인이 집착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집착의 원인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유의 최대의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자유의 핵심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는 반야심경의 키워드인 '무유공포(無有恐怖)'를 이해한 것 같다.

확실히 문수보다 보현이 한 수 위인 것인가? 문수 카잔차키스는 보현 조르바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리스적 자유는 최후의 걸림돌이었던 자유 그 자체마저도 초월하여 마침내 해탈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업에 실패하고도 오히려 그 쓰라린 경험을 한바탕 춤으로 승화시킨 그리스의 원효, 조르바. 영화 '희랍인 조르바'에서 안소니 퀸이 야생마처럼 펄펄 뛰며 춤추는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문학평론가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1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 1 정규반 2 근본불교반 3 송천우 교수 통신반

구분	요일	과목	교수	내용	방법(모집인원)
1	월요일	법화경	박종 (동산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보문시현의 원력을 강의 〈관세음 보문품〉	정규반(50명)
	화요일	화엄경	한정섭 (금강선원이사장)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보리장회 강의 〈세주묘엄품, 약찬게, 법성게〉	통신반(30명)
	※ 경전개설과목 : ㅁ 법화경 방편품, 법화경 여래수량품, 법화경 관세음보문품, ㅁ 화엄경 약찬게 · 법성게, 화엄경 십지품, 화엄경 입법계품, 화엄경 보행행원품 ㅁ 금강경, 무량수경, 대승불교, 보성론등 강좌				
2	목요일	아함경의 연기법	최봉수(동국대)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을 관통하는 근본교설 강의	정규반,통신반(각30명)

구분	방법	교수	내용	방법(모집인원)
3	통신강좌	송천우(승가대)	반야심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육바경, 조론, 능엄경을 송천우교수의 명쾌한 강의로 통신 수강	통신반(30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1년 2월 1일~ 2001년 3월 3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1 정규반 : 2001년 3월 5일 (월) 오후 7시
· 2 근본불교반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4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 (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02)732-1206~8 / FAX 02)732-1207

주부 ·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본야벨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연2회(매년 2월,8월)
■ 모집인원 : 200명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2학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2001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 (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재내용

개강일시 : 2001년 3월 3일 (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입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1년) 연구반 30명(1년)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2월 1일(목)~ 2001년 3월 3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3시 (동산법당)
※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함.				

3.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 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홈페이지 - http : www.dongsanbud.org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의식법사 전문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세 성인이 나눈 동양사상의 정수

'공자 노자 석가' 모로하시 데쓰지 지음

日 석학 100세에 쓴 작품
시공초월 가상토론 통해
空·無·天 등 쉽게 설명

"인간은 번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 번민으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 나의 근본 바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삶과 죽음(生死觀)의 문제에 대해 주장을 펴자 공자와 노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세 성인은 서로의 사상과 철학에 공감하고 때로는 격론까지 벌인다.

시공을 초월한 '동양 세 성인의 가상토론회(三聖會談)'를 주선한 사람은 일본 동양학 연구의 태두로 평가받고 있는 모로하시 데쓰지(1883~1982). <공자 노자 석가>(심우성 옮김, 동아시아)는 그가 백수에 쓴 동양학 연구의 결정체다.

그는 왜 이 책을 쓰려 했고 100살에야 이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학문이 몇 명 학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렇지만 어렵고 복잡한 것을 쉽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에 100년 이란 세월을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평생 고민하다 '삼교도(三敎圖)'란 그림을 보고 삼성회담이란 기발한 구상을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보냈다.

이 책에서 세 성인은 생과 사, 중도와 중용, 인과 자비 등 9가지를 큰 주제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인다. 글쓴이가 이 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무엇보다 동양사상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 성인이 자신의 생애를 직접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서로간에 의견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질문함으로써, 유·불·선 삼교의 공통점과 다른점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의 힘도 갖게 도와준다.

음식과 취미 그리고 산수 등 가벼운 주제에서 시작해 점차 심도를 높여나가는 서술방식도 흥미롭다. 이 책의 내용 전개는 질의 문답이지만 간혹 격렬한 논쟁도 펼친다. 이를테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노자님은 '도'를 만물의 근원으로 생각하면서 '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점은 내가 설명하는 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라고 말하자, 노자는 "얘기가 좀 이상하군요. 서로 그런 논의는 그만두기로 하지요. 원래 '공'이니 '무'라는 것이 없는 것이라면 의논도 설명도 무이고 공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문을 막는다. 이를 듣고 있던 공자는 "그렇다면, 노자께서는 '도'를 '무'라고 단언하지 않고 '현(玄)'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셨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어디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노자가 되묻자, "첫 장의 유명·무명이 그것이 아니오."라고 공자가 맞받아 친다. 그제야 노자는 "현은 '현묘불가식(玄妙不可識)'으로 알아달라."고 주문한다. 첨예한 이 토론은 "꽤 깊이 생각했군요, 본래 나도 그것은 공 또는 불이(不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요."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재로 일단락 된다.



글쓴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공(空), 무(無), 천(天)이라는 삼교의 핵심 사상을 자세하게 풀어준다. 이는 더 나아가 중도(中道)와 중용(中庸), 인(仁)과 자비(慈悲) 등의 개념에까지 접근한다.

세 성인의 가상토론회를 지상 중계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글쓴이의 해박함과 읽는 재미가 보태져 동양사상의 진수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일본에서 18년 간 33쇄를 거듭한 스테디셀러란 점에서도 이 책의 가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오랫동안 지구에 발을 디디며 살았던, 또는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고민스런 물음이다. 특히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중시하고 있는 불교의 시각에서 볼 때, 나에 대한 무지는 무의미한 삶의 늪이다.

인도의 영적 스승 라마나 마하르쉬의 〈나는 누구인가〉(이호준 옮김, 청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이 책은 '자기탐구'를 깨달음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라고 한다. 진정한 나(眞我)의 본질, 깨달음과 무지 등 자아탐구의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징한 논리가 담겨 있다. 이 책의



자기내면 탐구
참나 알아내는
깨달음의 길 제시

들머리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은 '나의 소멸'이다.

마하르쉬는 말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진아를 알면 풀리지 않는 문제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아를 아는 일이다."

이처럼 진정한 나, 즉 진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해야 한다고 글쓴이는 강조한다. 이런 논리들은 모두 치열한 수행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읽는이의 내면 깊숙이 곧장 전달된다.

이 책이 지난 87년 초판 발행 이후 10여 쇄를 거듭할 정도로 많이 읽히는 이유는 독특한 전개방식이다. 사실, 우리의 경우 수행만 강조했지, 수행 과정에서의 의심이나 장애를 일으킬 때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없다. 이런 수행풍토에서 이 책은,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준다.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제자(독자)와 글쓴이간의 질문과 대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점차 진정한 나의 실체로 다가가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치열한 수행의 결과를 담은 이 책을 진아를 찾는 사람들에게 권해본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성공은 과정속에 있다

'승려와 수수께끼' 이은선 옮김



1999년 2월, 벤처 창업 컨설턴트인 코미사가 불교의 나라 미얀마의 광활한 황무지 위를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다. 그는 그 여정에서 한 스님을 만난다. 코미사는 오토바이 뒤에 스님을 태우고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길을 달려 사원에 도착한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스님은 난데없이 자신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다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다. 어처구니 없어하는 코미사에게 그 절의 주지스님은 회두 하나를 건넨다. "계란을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리되 깨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화두의 해답은 무엇이고, 이 화두는 우리 인생이나 벤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바로 한 풋내기 창업컨설턴트의 창업기를 통해 하나씩 밝혀진다.

21세기형 벤처 자본주의와 참선의 화두를 섞어놓은 〈승려와 수수께끼〉(이은선 옮김, 바다)는 직업과 사업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묻는 인생 교훈서다.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매력은 단지 실리콘 밸리와 벤처 기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 컨설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글쓴이 랜디 코미사가 자신의 인생과 실리콘 밸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 '여행으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과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다.

그는 사업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 즉 일 그 자체라고 강조한다. 값 7천8백원.

김중근 기자

인도 여행중 깨달은 참된 웃음

길연 지음 '푸하하 붓다'



"나에겐 작은 믿음 하나가 있다. '웃음 속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다. 하회탈의 그 초탈한 듯한 웃음도, 중국요리집마다 걸려 있는 배불뚝이 성자 포대화상의 호탕한 웃음도, 모두 다 깨달은 자의 웃음이다."

명상가 길연(44) 씨의 말 속에는 수행의 향기가 배어있다. 길 씨는 명상가이지만 두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현실주의자에 가깝다. 이러한 그의 삶은 신간 〈푸하하 붓다〉(미토스)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제목이 주는 느낌만큼이나 가볍게 읽힌다.

인도에 대한 정보와 재미로 버무린 이 책은, 글쓴이가 지난 10년 간 인도·티베트·네팔 등지를 여행하며 겪었던 해프닝들을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전한다.

80년대 이후 인도 관련 책들은 여러 권 나왔지만 주종은 여행안내서다. 이 책도 그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인도 여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웃기는(?) 사례들만을 담았다는 점이 다르다.

택시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요금 외에 300루피를 더 지불한 바가지 사건, 한국에서 온 소포에서 알 수 없는 종류의 폭발이 일어났다며 끝까지 열어보는 김치소동 등 61개를 소재로 한 짧막한 글들은 읽는 이들의 웃음보를 자극한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가려뽑은 신라시대 밀교 수행법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신라·백제·고구려 세 나라의 사적과 신화 그리고 전설, 시가 등을 담은 〈삼국유사〉에 대해 말을 덧붙이는 것은 쓸데없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신간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 밀교〉(하남)는 오랫동안 불가기공(유가밀교)을 수행하고 현재 밀교 연구를 하고 있는 영우 스님이 〈삼국유사〉속의 밀교를 되살려 내는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영우 스님은 〈삼국유사〉 나오는 대부분 스님들이 밀교 수행자였다는 사실에 착안, 신라 밀교의 자취와 수행법 등에 대해 천착한다. 유가불교에 정통한 대현 스님이 〈금광명경〉에 대해 설한 내용의 '현유가(賢瑜伽)', 밀본 스님이 선덕여왕의 병을 치유했다는 '밀본최사(密本催邪)' 등 〈삼국유사〉 4·5권에 등장하는 밀교 수행자들이 탐구의 기둥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학술적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에도 비중을 둔다. 그것은 바로 오부심관(五部心觀) 수행법이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건	붓다의 마을
3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4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 레
5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7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8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일 지	민 족 사
9	깨달음 뒤의 깨달음	소갈린포체	민 음 사
10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도서 안내: (02)737-0695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터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문화재청 올 예산 2795억원

관광자원 개발 치중 문화재 관리 '곁가지'

불교문화재 조사비 '없던 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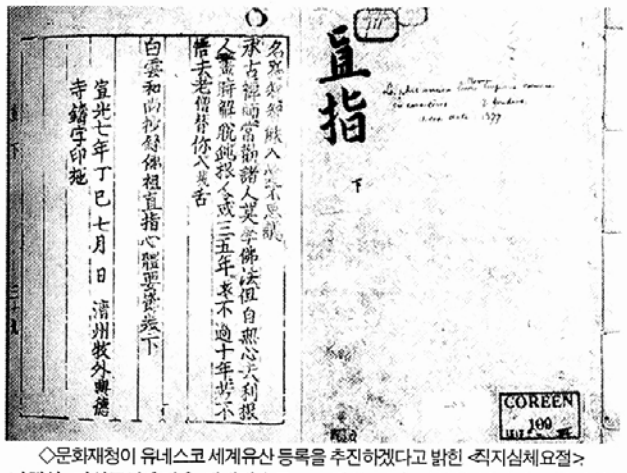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은 올 문화재청 주요 사업계획이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보다 그 활용에 치우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예산은 1999년 6647억 원에서 2000년 9639억 원으로 크게 는 데 이어 올해는 1조458억 원으로, 문화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았다. 이에 따라 문광부 외청인 문화재청 예산도 1999년 1620억 원에서 2000년 2558억 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79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지난 1994년 전체 문화예산(2361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14일 문화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과 현대적 활용'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문화유산의 항구적 원형 보존 및 관광자원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우수성 선양 및 국제협력 강화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문화재의 과학적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2002년까지 '경주출토 유물보관동'과 2003년까지 '중앙 매장문화재보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및 영세사업자에 한해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문화재 관리의 국가 책임 강화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 7개 문화권 및 유교, 남해안, 거석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직지심체요절〉과 〈승정원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지심체요절〉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존'보다는 '현대적 활용'에 치우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매장 문화재보호 예산으로 지난 해(16억 원)보다 2배 늘어난 32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67억 원보다는 절반 이상 삭감된 금액이다. 또 경주출토유물보관동(7억3천만 원)과 중앙 매장문화재 보관시설(10억 원) 관련 예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데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 사업인 분포지도 작성에 9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 문광부 예산안 심의에서도 소속 의원들이 "문화재청 예산 중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관광자원 개발에 배정된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억 대의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 등은 전액 삭감돼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종 개발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업무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인력, 특히 전문 학예직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바다 보이는 붉은 돌산 위 절

법화원 어제와 오늘

이영자 〈동국대 교수〉



위해 부두에서 출발한 현대식 나룻배가 쌀쌀한 겨울 바다를 가르며 우리 일행을 유공도(劉公島)에 내려놓은 것은 12월 26일 오전이다. 갑오전쟁기념관 입구에 걸린, 이홍장이 썼다는 '해군공소(海軍公所)'라는 현판이 청말 북양함대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던 역사를 알게 해 준다. 위해시(市)나 연대시는 근세에 부상한 항구도시지만 당송시대에도 이 연안에는 신라의 배들이 분주히 드나들며 구법스님들을 실어 날랐을 것이다.

강경의식과 송경의례

오후에는 적산법화원 관람이다. 법화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영성시(榮成市, 당대에는 文登縣 소속) 석도진(石島鎭) 적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석도는 원래 섬이었으나 지금은 육지와 연결돼 있고, 적산은 문자 그대로 붉은 돌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절에 서면 바다가 바로 보인다. 우리가 들어선 절 입구에는 최근에 돌로 만든 산문이 큼직하게 세워져 있는데 글씨는 근년에 유명을 달리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 회장이 쓴 것이다. 절은 중앙에 대웅보전이 앉고, 그 좌우로 관음전과 지장전이 마주하고 있으며, 지장전 내부에는 월전 화백이 그린 장보고 대사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절에는 비구니스님 7, 8명이 주석하고 있는데 주지 노스님은 구화산 인덕(仁德) 방장 스님의 상좌로서 10년 전에 출가하였으며, 1년 전에 이 절로 옮겨왔다고 한다. 인덕스님은 비구스님인데 비구니스님과의 사자상승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개혁 개방에 숨가쁜 중국 불교가 아직은 그러한 격식을 갖출 겨를이 없어서인가 보다.



◇장보고 해상단의 안식처였던 적산법화원. 지금은 산동성 주요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적산법화원은 당시 동아시아 해상세력을 주름잡던 장보고 대사가 세운 절이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적산법화원의 경영과 법회에 관한 내용까지도 자세히 전해주고 있다. 장보고 대사는 이 지역에 많은 논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절의 일 년간 양식으로 500석의 쌀을 충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이 절에는 30~40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여기서 행하였다는 강경의식과 종교 의례로서의 송경의례에 관한 경험담이 매우 흥미롭다. 당시 성림(聖林) 스님이 좌주이며, 돈증(頓證)과 상적(常寂) 스님이 보조강사로서 법회를 주재하였는데 대중은 모두 신라인으로서 승려를 비롯해 속인 노인 젊은이 귀족 평민이 두루 참석하는 무차법회였다고 한다. 법회를 마치기 전날에는 200명이 회향하고, 마치는 날에는 250명이 회향하였으며, 그들 모두 보살계를 받았다. 강경(講經)할 대목이 있으면 질문하고, 강사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송경(誦經) 의례도 신라풍속을 따라 신라말로 하되 낮에는 법화경과 금강경을 강의하고, 밤에는 예불과 참회하는 종교의례를 행한다. 의례 때에는 한목소리로 삼보에 귀의하고 찬불하며, 도사가 인도하는 데 따라 '나무약사유리광불',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복창한다는 등등이다.

옛 신라인의 이국 삶

이와 같이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 여행기에서 전해주는 재당(在唐)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라인들의 송경의례는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법화경 영험담이나 고승들의 법화경 연구서는 더러 남아 있으나 실제로 무슨 경을 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신행 생활을 하였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기록은 신라불교사 이해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삼불보전에서 내려다보는 적산포 앞 바다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옛적 여기 살던 신라인들도 과수를 심고 밭을 갈며 등쪽 바다의 파도소리를 벗삼아 두고 온 산하를 그리면서 열심히 살아갔으리라.

산불로 부서졌던 선각왕사비 '제모습'



지난 97년 발생한 산불로 부서진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터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가 1년 6개월여의 보존처리 끝에 완전 복원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화재 당시 높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130여 개 조각으로 부서진 비석의 몸통 부분 파편들을 모아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 작업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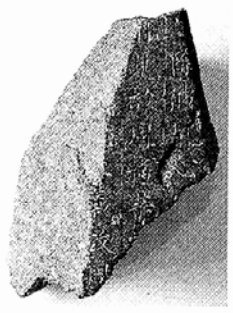
이명희 보존과학실장은 "화재로 석질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 훼손된 접합면이 맞지 않고 각각의 부재들의 접합강도가 약해 부분적으로 티타늄봉을 사용해 접합강도를 높였다"며 "22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거쳐 양주군에 인계해 경기도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분 복원이 아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석조문화재의 전면 보존처리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보고서는 3월말께 나올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화엄석경 '컴퓨터 복원'

화엄사, 2007년까지 1400여 파편 붙이기 "제작연대 · 서체 등 규명"


◇화엄석경 파편.

임진왜란으로 산산조각 난 화엄석경(보물 제1040호 · 화엄사 소장)이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살아난다.

지난해 5월 '화엄석경 보전 및 복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화엄사(주지 종걸)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석경의 조각을 맞춰 그 내용을 판독하고 판수와 서체 등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을 2007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이미 지난해 8월 고려대장경연구소에 석경 복원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

임진왜란 당시 화엄사 장륙전이 소실될 때 함께 파손된 석경은 현재 1만 4천여 점의 파편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우선 석경 조각에 대한 스캐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컴퓨터 상에서 이웃한 조각을 찾아 붙이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화엄사는 컴퓨터 상의 복원을 끝내는 대로 석경의 실제 크기와 판수 등을 추산하고, 그래픽 상으로 원형에 근접한 석경을 선별해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석경의 내용이 60권 짜리인지 아니면 40권 짜리 화엄경인지를 규명하고, 서체의 종류와 정확한 연대도 밝힐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군사보호구역내 불교유적 81건"

문화재 연구소 지표조사

강원도와 경기도 군사보호구역 내에는 모두 81건의 불교유적 · 유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강원도편에 이어 최근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경기도편〉을 발간함으로써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중 불교유적은 강원도 43건, 경기 · 인천 39건 등 모두 81건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절터 49곳, 사찰 15곳, 석불 9기, 석탑 4기, 석조 석등 부도 목불이 각각 1기다.

조사를 맡았던 유적조사실 김선태 실장은 "휴전선 부근 군사보호구역내 유적 전체를 한 권으로 묶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 및 보존의 기본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문화재연구소는 91년부터 10년 동안 휴전선을 끼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9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

권형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1년 3월 12일까지
◆ 개강일시 : 2001년 3월 13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참선교육

▣ 참선교육 53기 안내 ▣

한생각 일어났을 때 단속하지 못함을 두려워 할지언정 깨닫지 못함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조사들의 정통참선법인 화두선을 종지로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은 본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53기 참선교육(하안거전)에 동참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바랍니다.

■ 기 간 : 2001년 3월 6일 ~ 2001년 4월 3일 (5회)
■ 일 시 :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 장 소 : 본회 선방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일 자	교 육 일 자
3월 6일 (화)	참선의 자세
3월 13일 (화)	참선의 종류
3월 20일 (화)	선종발달사
3월 27일 (화)	화두의 중요성
4월 3일 (화)	화두 참구법

■ 동 참 비 : 3만원 (교재 교재비)
■ 교재제공 : 참선교육 책 1권, 참선교육 테이프세트 (10개) 대형 선종발달사 도표
■ 접수문의 : ☎ 732-5960

※ 강남 선방 (봉은사 입주문 옆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참선교육 3월 8일 ~ 4월 6일까지 5회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강남선방)

대한불교 조계종 修禪會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법장

조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가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⑳

(19)양 무제의 조서(詔書)

양 무제는 무승 철타의 충성심에 크게 만족했다. 자기를 위해선 암기를 써서라도 신명을 바치겠다는 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옳아, 옳은 생각이야. 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비라고 할 수 있도다."

철타는 무제의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무제는 철타에게 암기 시범을 명령했다. 철타는 여러 가지 암기를 신기(神技)에 가까울 정도로 훌륭하게 시연(示演)했다. 비도를 던지는가 싶더니 어느 틈에 비전을 던지고, 이어 눈 깜짝할 사이에 비표를 던지는 솜씨가 보는 이의 얼을 빼놓았다.

"고스야, 과연 고수야."

무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대 같은 무승을 호위로 삼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시간은 훌쩍 정오가 되었다.

무제는 이쯤 해서 궁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막 문지방을 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참례전을 감도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무제는 눈을 비비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햇빛이 눈이 시리도록 밝게 비치고 있었고 정원에선 흰빛이 참례전 주위를 휘감고 있었다.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듯 흰빛이 나선형으로 휘감기면서 상승하더니 이내 북쪽으로 사라졌다.

참례전 휘감은 흰빛

무제는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각아, 법광아. 실로 보기 드문 광경이도다.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구나…."

시신(侍臣) 정각과 법광도 정원에서 서광이 상승하는 것을 감지했지만 그 연유를 알 수 없었다. 황제의 물음에 대답을 찾기 위해 아지랑이 같은 기운의 흐름을 눈여겨보았다. 참례전 꼭대기에서 맴돌던 상서로운 기운은 자금전(紫金殿) 상공을 감도는 듯하더니 북쪽으로 사라졌다. 참례전은 황제가 예불하는 곳이고 자금전 또한 황제가 머무는 곳이니 이것은 길조가 분명한 것 같았다. 정각은 몸을 굽혀 두 손 모아 대답했다.

"폐하께 아룁니다. 저 빛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 황궁을 휘감고 승천하니 길조가 틀림없습니다. 훌륭한 귀인께서 찾아오실 예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광도 역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했다.

"저는 생전에 이런 서기(瑞氣)어린 천상(天象)을 본 일이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반드시 큰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무제는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렇도다. 이것은 이 나라의 축복이로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정각과 법광은 한 목소리로 축송했다.

무제는 다시 고개를 들어 서기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미 그 빛은 허공에 사라져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왜 흰빛이 내궁을 감돌고 북쪽으로 갔을까? 무제의 머리에 박힌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막 이런 물음을 두 시신에게 하려고 할 때 무승 철타가 급한 걸음으로 황제 앞에 나서더니 종이 한 장을 올렸다.

"폐하께 삼가 아룁니다. 지방에서 급한 상소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무제는 영문을 몰랐지만 상소문을 받아 들고 읽어 내려갔다. 무제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눈꼬리에 웃음이 일기 시작했다. 천축에서 큰 스님이 오시다니 좀 전의 천상은 그것을 예고한 길조인 듯싶었다.

무제는 광주 자사 소앙이 올린 상소문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상소문에는 천축의 28대 조사인 보리달마가 동쪽으로 건너와 양성에 머물면서 홍법한 경위가 상세히 쓰여 있었다. 아울러 무제께서 달마를 금릉으로 초청하여 만백성을 위한 법회를 크게 열도록 주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무제는 참례전 정원에서 목격한 신비한 빛과 보리달마가 천축에서 왔다는 소식을 연관지어 이것은 하늘의 계시라고 여겼다. 조금도 머뭇거릴 까닭이 없었다. 즉시 궁궐로 돌아가 용상에 앉더니 묵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친필로 조서(詔書)를 써 내려갔다.

삼가, 천축 28대조 보리달마 선사께 청합니다. 짐은 삼보를 존숭(尊崇)하고 불교에 귀의하여 항상 대승의 법을 펼쳐 정법(正法)을 호지(護持)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께서 멀리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오시어 심오한 불법을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불교를 널리 펼치시어 어리석은 이들을 계도하시니 승속(僧俗)이 모두 흠모하고 우러르고 있나이다. 생각건대 이는 이 나라의 큰 행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성(都城)과 조야(朝野)가 모두 조사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 자사가 주청한 대로 조사를 모시어 공업(功業)을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청컨대 곧 출발하시어 하루속히 경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제가 조서를 내렸다는 소식으로 경도 금릉은 금새 술렁거렸다. 게다가 궁성 안에서 환한 빛이 감돌았다는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천축의 달마 대사가 이 땅에 큰 복을 내리기 위해 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기뻐했다.

천축에서 오신 큰스님

무제가 조서를 내려 달마를 초청했다는 소식은 재빠르게 양성으로 전해졌다. 법성사에도 알려져 광지 주지와 달마 조사의 귀에도 들어왔다. 무제가 불교를 숭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달마는 진작부터 마음 속으로 은근히 기대가 컸었다. 이 곳 양성 광주가 비록 불교로 번창하고 있긴 하지만 넓은 진단의 한 모퉁이에 불과하지 않는가. 만약 왕도로 들어가 불법을 편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퍼질 것이고 세세 대대토록 밝게 드러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천축에서 십 년 면벽하고 삼 년 동안 고생하며 바다를 건너온 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 달마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삼년동안 고생하며
바다를 건너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날 저녁, 법성사 안은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승려들뿐만 아니라 속가의 불제자들도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황제가 달마 조사에게 조서를 내렸다는 소문에 모두 안절부절못했다. 한편 기쁘기도 했지만 큰 스승을 떠나 보낼 일을 생각하면 섭섭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저녁예불이 끝났는데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법당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답마 조사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광지 주지는 불상 앞에 향을 계속 피우고 등에 기름을 채우라고 당직 스님에게 이르고는 방으로 돌아갔다.

광지 주지는 옷을 벗고 침상에 누웠다. 그러나 두 눈을 감고 있어도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다. 무제의 부름을 받고 달마 조사가 금릉으로 떠날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새삼 만감이 교차했다. 사실 달마 조사가 이 곳에 온 것은 그로서는 일생일대의 큰 복이었다. 지난 일 년 동안 조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가. 게다가 조사가 온 이래로 법성사가 흥창한 것은 얼마라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광지는 그 동안 조사의 심요(心要)를 깊이 이해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하루속히 정과(正果)를 이루어야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나 이제 조사가 떠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그의 나이 이미 고희(古稀)가 넘었기 때문에 또다시 조사를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광지는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답답한 하룻밤을 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조사가 머무르는 유화선실(流花禪室)로 갈 채비를 했다. 달마 조사 앞에서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방문을 나서려고 할 때 동자승이 달려와 아뢰었다.

"자사 소대인께서 조정의 어사(御使)와 함께 이미 절 안에 당도하셨답니다. 주지 스님께 만나기를 청하십니다."

광지 주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소대인과 조정의 어사가 너무 빨리 당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형편도 못되었다. 소앙과 어사가 벌써 출입문을 들어서고 있는 것이었다.

주지는 황망히 두 손을 합장하며 예를 표했다.

"소대인께서 오신 것을 미처 모르고 마중 나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소앙은 답례하면서 말했다.

"주지께 여쭙겠습니다. 달마 조사께서는 일어나셨는지요?"

"조사께서는 아침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면서 엄격하게 계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당연히 일어나 계실 겁니다. 지금쯤이면 아침 공부를 하시고 계실 시간입니다."

주지 광지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좋소. 우리 함께 찾아뵙도록 합시다."

소앙은 바로 옆에 서 있는 어사를 주지에게 소개하면서 말했다.

"달마 조사를 도성으로 모시라는 황제 폐하의 조서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사가 계신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광지 주지는 앞장 서서 유화선실로 향했다. 유화선실은 절 뒤편 유화산 아래에 특별히 지어진 곳이다. 작은 개울이 선실 앞을 흐르고 개울 위엔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선실은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는데 다리에 이르는 길 양쪽은 꽃밭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주지가 말했다.

"여기가 바로 달마 조사께서 계시는 유화선실입니다."

자사 소앙과 어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선실 문은 꽉 닫혀있고 창문만 약간 열려 있었다. 안은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곤 느낄 수조차 없었다.

소앙과 어사가 망설이자 주지가 말했다.

"조사께서는 이미 입정에 드신 듯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 안에서 마치 종소리 같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밖에 오신 손님들은 들어오시지오."

그러나 광지 주지는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몸을 굽혀 아뢰었다.

이제 조사가 떠나면…

"조사님, 자사 소대인과 조정 어사께서 뵙고자 합니다. 황제 폐하의 조서도 와 있습니다."

선실의 문이 가벼운 마찰음과 함께 열렸다. 달마가 문고리를 제치며 맞으러 나왔다.

광지 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합장했다. 자사 소앙도 몸을 굽혀서 읍했다.

"제가 세속의 업무 때문에 바빠서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함께 온 어사도 예를 갖추었다. 달마는 합장으로 답례하면서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 노납을 부르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앙은 황급히 대답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토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길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敬啓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救濟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鹿茸으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경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利用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서울「장뇌산삼」사업부

키우지 마세요. 만병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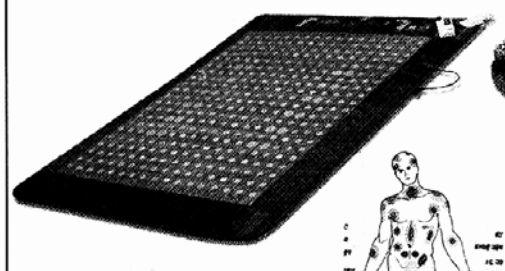
피로 이제 매일 매일 푸십시요

돌침대전문 리빙스톤의 2001년 히트상품!

금강약돌 리빙스톤 안마 찜질 방

- 지압 맛사지로 전신에 기(氣)와 활력(活力)을!
- 16가지 기능으로 온몸을 안마 맛사지 하십시요
- 부위별로 맛사지 해주세요!!(15분간)

싱글 (950×2000)	금강 맛사지 101	790,000
	육각 맛사지 103	590,000
더블 (1400×2000)	금강 맛사지 201	980,000
	육각 맛사지 203	880,000
참숯육각 매트 701		188,000
참숯금강 매트 703		290,000





원적외선 방사율 96% 최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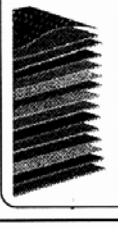
북한이 자랑하는 三大 명산품 **금강약돌**, 개성인삼, 신창버섯

리빙스톤 금강약돌 안마 – 찜질방 효과

- 맛사지와 지압 효과 - 지친 신경조직 강인하게!
- 혈압, 동맥경화 순환기 기능에 최고의 효과 - 경직된 혈행을 원활하게!
- 근육피하조직 지방막을 터뜨려 군살제거, 체중감소 효과 - 뭉친 근육을부드럽게!



금강안마 찜질방의 구조층



금강약돌
숯목수판층
농성층(수맥, 전자파차단)
바이오칩(3세국외요기부분금상수상)
질연부직포
바이메탈(내부과열방지장치)
탄강지선서(자동온도조절)
이동판치(열열선고정층)
카본사(음이온방출)
5mmHR우레탄스폰지
20mm압축바이오솜
폭우방수고밀천단

리빙스톤 ® 세계건강을 한손에쥐고 건강하게

☎ 02)424-9427/2203-7821

- 50%입금하시면 택배로 배송합니다.
- 2회분할 가능
- 한빛은행(김학철) 546-275994-02-001

종립대 총장 졸업식사

용맹정진 정신 살려 역경 돌파

동국대 송석구 총장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곤경(困境)과 과도기(過渡期)가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역사가 발전한다는 반증(反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곤경으로부터 탈출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는 길과 개척해 나가는 길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피하는 길은 우선은 보다 쉬운 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곤경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다 해도 우리가 영위해야 할 유일한 삶의 공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뿐입니다. 이를 위해 은거(隱居)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로 침잠하여 사색(思索)과 명상(瞑想)함으로써 자신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곤경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진정한 인간적인 힘이 곧 은거의 가치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배운 용맹정진(勇猛精進)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국에서 절차탁마(切磋琢磨)한 그 정신으로 앞으로의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로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행복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與樂)의 미덕을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내면이 충실한 동국인의 기상을 보여주는 사회의 청량인(淸凉人)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빛으로 도덕회복 앞장

위덕대 손제석 총장



졸업생 여러분, 이제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인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동안 인내하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의 열성을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끝이 곧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속에서 그 노력과 열성은 다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며 인내와 노력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인류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 형성되어 왔듯이,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에서 겪을 많은 문제가 어렵게 보인다고 해도 의지와 인내로 살피고 노력한다면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졸업생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자가 곧 현명한 자' 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에는 대학생활에서 다 배우지 못한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더욱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를 아는 자는 영합하지 않는다' 는 말입니다. 이 사회의 곳곳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불의와 비리에 영합하는 부도덕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일시적으로 묻혀질지는 몰라도 언제나 다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충실하게 진리탐구의 대학생활을 한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진리의 빛으로서 이 사회의 원칙과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는 지성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삼보께 귀의합니다

홍 건 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그림 · 이준석

천수경 매일 독송하며 업장소멸 발원

친정 어머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많은 자식을 기르셨다. 아들이 6명, 나를 포함해 딸이 13명 등 모두 19남매를 길러 가르치시고 손수 결혼까지 다 시켰다.

그 기구한 사연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님은 19세가 될 때까지 곁혼을 못해 노처녀가 되었다. 이유인 즉 나의 외할머니께서 병환이 깊어 장녀로서 어린 등생들을 두고 일찍 시집 갈 수가 없어서 혼기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다 상처해서 딸이 4명, 아들이 1명 있는 지금의 아버님에게 시집와서 5남매를 기르시느라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후 어머님께서는 딸 7명과 아들 하나를 합해 모두 8명을 두게 되었다. 그 가운데 아홉 번째인 내가 딸이어서 어머니의 시어머니 즉 나의 할머니께서 씨받이를 두자고 극성이어서 딸을 많이 낳은 죄로 작은 어머니를 두어 모두 6명을 낳았으니 19남매가 되었다. 10남매 의 장손 며느리가 또 19남매 자손에다 시부모까지 모셨으니 마음 고생이 어느정도 였는지는 굳이 말을 안해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엄하신 아버님 밑에서 말씀한 번 제대로 크게 못하시고 죽으라면 즉는 시늉까지 하면서 사셨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분들이 어머니께 지어준 별명이 '태평양 바다' 다. 그 많은 자식들을 기르시면서 온갖 희생을 하고 사셨지만 간병에 효자 없다고 막상 어머니의 치매가 깊어져 거동도 못하게 되자 모두가 외면을 했다.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의 사정과 이유는 저마다 다양했다.

얼마전 시댁의 묘 이장 문제로 고향엘 갔었다. 그때 친정 어머니가 거처하는 집엘 들렀다. 집에 가서 친정 어머님께 인사를 했지만 나를 전혀 몰라 보셨다. 추석때만 해도 "오 내딸 왔냐" 하시던 분께서 겨울로 접어드니 거동도 못하시고 일어나시지도 못했다. 아무리 흔들어 보고 손을 잡고 말을 해봐도 서글픈 사슴처럼 물끄러미 우리 부부를 쳐다만 보고 계셨다. "어머니, 어머니 아홉 번째 딸 건자예요" 해도 애처롭게 쳐다만 보는 그 모습이 이 불효자식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차가운 방안에서는 대소변 냄새가 진동하고 손이며, 발이며, 옷이며, 이불이며, 분뇨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참한 친정 어머님의 모습에 눈물이 나서 한참을 울었다. '생노병사' 는 피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친정 어머님의 옷을 먼저 벗기고 몸 구석 구석을 씻겨 드렸다. 어디를 먼저 닦아 드려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망연자실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몸 전체의 여기저기 묻어 있는 분뇨며 방바닥에 말라붙은 분비물들을 열심히 닦았다. 시골집이라 따뜻한 물도 안나오고 수도도 얼어 수건과 걸레를 우물에서 빨아 오다보니 청소 시간이 반나절이나 걸렸다.

청소를 하며 어떤 사람이 치매가 심한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다 비위가 상해서 담배를 배웠다는 말이 생각났다. 나도 친정 어머니 대소변을 치우면서 혹 비위가 상해지지나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인생이 불쌍해서 울면서 꾹 참았다.

청소를 하며 어머니도 내가 어렸을 적에 더러운 대소변을 이렇게 치우며 기르셨다고 생각하니 냄새가 나기는 커녕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유난히 냄새에 민감한 나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것이 모두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극진히 공양하라고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는 영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일 불자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해낼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께서는 개운하신지 그날밤에 아무말씀도 없이 잘 주무셨다.

그 이튿날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친정 어머니를 두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 차마 집을 나올 수가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지금 당장 극진히 간호할 젊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당신께서 낳은 자식들도 외면하는데 그 누가 대소변을 받아 내겠는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도 손녀딸을 기르면서 집에서 살림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기하나 더 키운다는 마음으로 모시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남편에게 사정 얘기를 해 동의를 얻어냈다. 남편도 경제 한파로 구조조정을 당해 직장에서 퇴출 당하고 우울 증세가 심한데다 혈압과 심장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환자였지만, 살아 생전에 어머님을 극진히 돌봐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흔쾌히 허락했다.

정말로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서 아들차로 친정 어머니를 우리집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도 못가누는 친정 어머니는 한 곳으로만 오래 누워계셔서 인지 욕창이 나 있었다. 그래서 좋다는 약을 다 구입해다가 정성껏 소독해 드리고 간호를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매일 매일 기도를 드렸다.

이런 노력때문일까, 우리 집에 오신지 1주일만에 소변도 보시는 등 감각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기저귀를 갈아 드리고 몸을 깨끗이 씻겨 드리며 말동무도 해드리니 많이 좋아지셨다.

이제는 걸어서 밖에도 나가려 하시고 말씀도 제법 많이 하신다. 기억력도 되살아나 예전 일들을 많이 기억하며 말씀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치매증세는 계속됐다. 바느질하신다고 가위로 온갖 천을 자르고 이것저것 꿰매느라 온방을 다 헝클어 뜨렸다. 또 전화기 전선을 다 빼놓으시고 신문은 찢어서 접어 놓아 화장지로 쓰시는 등 치매 증세가 날로 심해져 갔다.

치매가 무서운 병이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한 인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치매가 아주 곱고 얌전하게 온셈이다. 화장실까지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도 하고 세수도 가끔씩 혼자 하시기도 한다.

내 딸 둘도 효성이 지극해 나이가 들도록 우리 두 부부를 봉양 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새벽 6시 직장에 갔다가 야간대학 공부까지 하고 밤늦게 돌아와 피곤해 하면서도 꼭꼭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를 안고 뽀뽀해 드리고 사랑스럽게 해 드리니 할머니도 좋아 하신다.

정말 두 딸이 고맙기 그지 없다. 다른 집 아이들은 냄새 난다고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옆에 있는 것 조차 싫어 함께 밥도 먹지 않는다던데 우리 딸들은 외할머니를 서로 안으려고 까지 한다. 친정 어머니를 모셔온지 1주일만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 큰 딸 아이가 회사에서 진급을 한 것이다. 요즈음 구조조정이니 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직장에서 인정받아 상도 두 번씩이나 타더니 진급까지 했다. 이웃집 노인을 하루만 잘 모셔도 3일 먹을 복을 준다는데 외할머니께 잘하니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시립대학에 근무하며 저녁에는 시립대 법학과에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 타려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부모까지 봉양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고 밝게 살려고 노력하니 대견하고 고맙기 그지 없다.

친정 어머니를 모셔놓고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도 생겼었다. 8남매중 두 언니들이 "왜 친정 어머니를 네가 모셔 왔느냐"며 야단을 쳤다. 자기들도 남편과 아들 자식도 있고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몇배 나은데 무슨 속셈으로 의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셔 왔느냐며 마음에도 없는 억지를 썼다. 그말을 들으니 정말로 괴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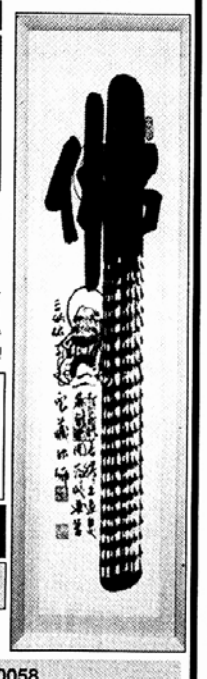
부처님 앞에 맹세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고, 병든 어머니의 고통스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모셔왔는데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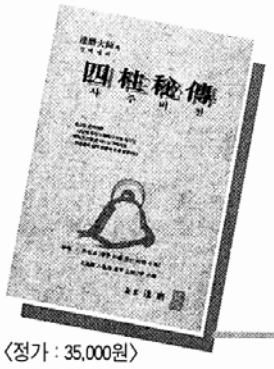
순간 '선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비로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만 보인다' 는 무학대사의 말씀이 생각났다.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업을 짓는 언니들이 안타까웠다. 나는 결코 형제 자매에게 잘했다고 공치사들으려고 어머니를 모셔 온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의 진실을 알겠지 하고 있지만 형제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만일 내가 불제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슬픔을 현명하게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도 부처님만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염불관일회 회원으로서 쉬지 않고 정진을 하고 있다.

〈천수경〉을 매일 일곱 번 수지 독송하면서 참회와 업장 소멸을 발원한다. 또 게을러 지거나 나태한 마음이 들면 동산불교대학에 다닐 때 '나무아미타불'을 십만팔천번 사경해 받은 상패를 보며 다시 발심해 정진한다. 그리고 심한 치매로 딸자식도 몰라 보시는 어머니를 위해 발원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염불하면 친정 어머님드 가끔씩 따라 하신다. 이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안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친정 어머님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오늘도 부처님전에 굳게 다짐한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백과 차단) 특별보시!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백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농 협 307077-51-031273 운장사
덕화산 돌탑 부처 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한국불교 예술문화원

달마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達磨大師의
四柱秘傳
사 주 비 전

— 목 차 —
1. 우주의 기운
2. 역의 시원
3. 시간과 운명
4. 사주 분석과 해석
5. 인연법
6. 작명 비법
부 록
〈정가 : 35,000원〉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고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고
오복은 이것을 잘분석 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나에 있다.
作名法【좋은 이름 짓는 비법 수록】
大法院 人名用 漢字 2,962字 수록
著者 達磨
◎본 책의 판매대금은 달마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됩니다.
※ 구입송금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97-034764-01-014 예금주 달마사
· 입금후 전화 주십시요
구 입 문의처 051-301-4949 051-312-4804
011-301-4949 051-506-4804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석, 굴진 공사 전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당사는 10년 전통 사찰, 석, 굴진 공사, 까다로운 길 공사 및 축대, 자연돌탑, 샘 공사 및 마애 불상조각, 돌에관한 전문 업체로써 (전, 태성건설 서울)
▪ 지금은 독일제 암반 석, 굴착기계까지 여러대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 현대, 석재도 운영함)
※ 당사의 요소
1. 저렴한 가격
2. 기술진 H·R·S 항상대기 (5명정도)
3. 절대 폭 · 발파는 금물 (몇 년 안가서 파손됨)
4. 신영 H·R·S 3조 (1조에 2대) = 6대 보유
(착암기, 콤푸, 스웨덴제) = 4대 보유
▪ 요사이 중고 15년씩 구형 H·R·S 구입해서 신문에는 큰 회사 처럼 행세하며, 광고 내는 영세 업체가 늘고 있사오니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회사는 전에 영세 업체들에게 하청도 몇 번 주었습니다만, 폭파하는 바람에 금이 가고 물이 많이 새는 관계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직접 공사를 100% 하고 있사오니 전화 바랍니다.
천안시 원성동 542-1
사무실 041)567-4884~5 대 표 041)657-4843
H.P 011-456-4843
동광건설 상무 김영진

'자기' 없다면 상대와 부딪침도 없어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작년, 올해, 내년도 없겠지만, 질서를 지키고 살아 나가려면 작년, 올해, 내년이 있어야겠죠. 그런 반면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가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미래는 훤히 내다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몸이라는 싹 때문에 자기 종성을 모르고, 즉 종자라는 뜻입니다. 항상 자기 싹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더 많고,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겹쳐서 사는 게 뭔가 하고 허망한 생각도 들고,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따지고 본다면 과거 · 현재 · 미래가 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살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영원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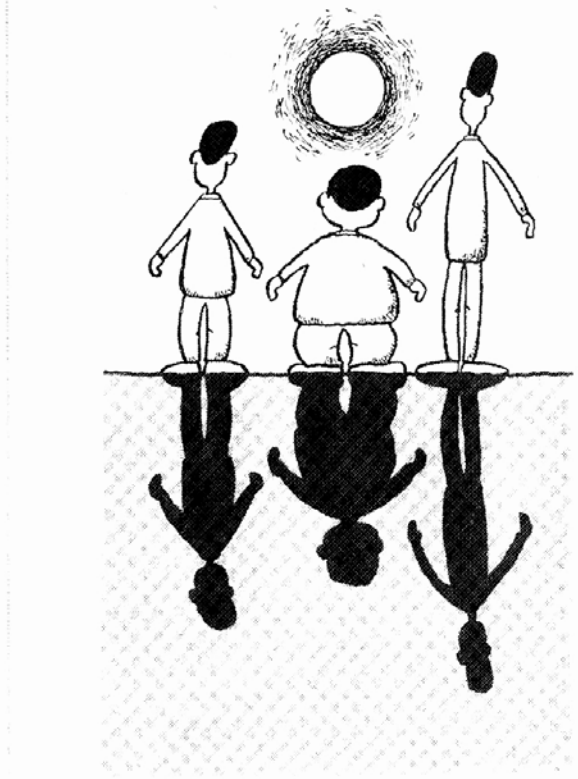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심봉박혀 흔들리지 않아야 지혜 생겨

줄지도 두드러지지도 않는 마음 도리

지난번에도 오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오분향이 오계의 근본, 공부하는 이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아침, 저녁 스님들만 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마다 수계할 때 받는 오계가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기 이전에 지혜로우면 경충경충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고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을 하며, 어머니의 행동을 하며 또는 아들의 행동을 하며, 형의 행동을 하며, 아우의 행동을 하며, 사위의 행동을 하며, 친구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렇듯이 부처님 법은 매달아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다, 누구를 만나면 저렇다하고 말씀해 놓으신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만나고 말하고, 듣고 보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자유스럽죠? 그런데 콩을 심어서 싹이 났는데도 콩 싹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자기만이 자기인 줄 안다는 거죠. 엄연히 자기 종자가 있어서 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면 콩씨가 없어도 콩싹이 없고 콩싹이 없어도 콩씨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듯이 말입니다.

생사없는 영원한 삶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한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둥글려서 전체, 이것 저것, 소소한 거든지 다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게끔 말을 하죠.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오계니 모두 거기 포함돼서 들어가는 이치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다보면 늙어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걷지 못할테니까요. 그래서 룰은 강하면서도 유유히 돈다, 힘이 없어서 유유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시대에 좇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우리를 좇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죽거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는 바꾸어 질 수 있고 좋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우리 마음이 주인이죠. 지구의 근본과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이 둘이 아닙니다. 과거 · 미래 · 현재를 한데 포함한 것을 삼천이라고 그럽니다. 삼심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한 개체에 있어서 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본다면 삼천이죠. 삼세간이라고 하는데 그 삼세간이 어떻게 돼서 일심으로 돌아가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사는 지금, 현실에 돌아가고 있는 자체가 바로 삼세간에서 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는 이 자체에 하세계 · 중세계 · 상세계가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계에, 삼천하면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한마음과 외부의 한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간 더불어 대천세계와 더불어 같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하면, 삼천은 벌써 돌아가고 대천에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삼천하면 삼천은 벌써 금방 말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현실로, 그냥 대천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이 천심이요, 천심이 일심이라.

내가 아는 마음이 천심으로 돌아간다. 남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마음이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가니 이건 무슨 까닭인가? 여러분이 죽어 보지 않았으니까 죽은 세상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또 살아 있으면서 그 살아가는 업식에 의해서 즉, 남의 다리 긁어가면서 살았거든요. 허허허…, 그런 면이 많죠. 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가야된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도 이쪽으로 가야된다, 가야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천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중심이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남의 다리 긁어주는 거죠. 자기 다리를 시원하게 긁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분향을 얘기 할 때에 누구든지 함이 없이 해라하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상이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이 없이 주되 아주 똑 부러지게 해놓는 것이 바로 무주상이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똑똑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단 얘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남의 탓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해라.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잘한 것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기 탓으로 생각해라.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어떻게 부딪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럴까요? 허공에다가 돌을 던진다고 소리나는 거 못 보셨죠? 돌을 마주 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는 탓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딪치고, 상대로 인해서 누가 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모든 것을 누가 되게 하지 말고, 은사에 누가 되게 하지말고, 자기에게도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되고, 불가에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되고 그러면서 모든 걸, 안과 바깥을 다 놔라, 모으는 작업을 해라, '정'에다 놓는 작업을 해라, 이게 계향입니다.

그리고 정향은 한데 모아서 익어지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는 내 주장자가 딱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게끔 됐을 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향, 즉 말하자면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이고 내진다 이겁니다. 여여하게 들이고 내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자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써 여여하게 하니까 그 때는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나는 게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줄지 않게 됩니다. 정향에서 완전히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혜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혜향!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 오면서 느끼고 배운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에, '아하! 이런 거로구나'

내탓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구나' 하구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전부 부처더군요. 전부 주인공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여도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영을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지요. 허공에 꽉 찬 마음을 다 꺼낸대도 줄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등 공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혜향이 있습니다. 그 혜향이 완성되면,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해탈향이 나옵니다. 그땐 뭐냐 하면, 바깥에 다니면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뭐 하다 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더라도 전체, 그저 보는 대로 무명을 거둬 주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 거둬주는 게 아니라 지혜로써, 무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화를 해라, 이렇게 거둬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소학교 다니는 거를 중학교로 올리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걸 첨단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례차례 올라가게끔 그냥 무명을 전부 벗겨 주는 것입니다. 묶여진 마음을 다 헤쳐주는 것입니다. 무명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생명들을 다 그냥 풀어주는 거죠.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자기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점프하게 되거든요. 진화를 해서 형성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몇 천년 가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말로는 아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같이 무명을, 묶인 무명을 풀어준다, 모든 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풀어준다, 이렇게요. '해탈지견향'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모든 게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아픔 아닌 게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도량 아님이 없어서 모두 하나가 돼서 일체 부처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부처 생각을 내면 법신 움죽거리면 보현신 삼심 합하면 한마음

둘 아니고 일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전부 하나로 묶여져서 펴지고, 펼쳐지고 묶어지고 하나로 되고, 수만으로도 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구경도리천에 이르러서 자유스럽게 과거 · 현재 ·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 번에 한 생각에, 찰나에 돌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같이 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같이 할 수 있고, 내가 되지 않는 게 없고, 내 몸 아니 되는 게 없고, 지장 · 아촉 · 아미타 · 미륵 또는 칠성 지장 · 관세음 · 지신 · 용신 모든 것이 내가 아니 됨이 없을 때 '해탈지견향'입니다.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요. 6 · 25 때 봤는데 말입니다. 접시 비행기라고 말 들어 보셨죠? 많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접시 모양뿐만 아니라 타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원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죠.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셨습니까?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가 떴는데, 하나에서 줄을 지어서 나와요. 그 때 생각을 하기에, '아하! 이건 마음의 자유로구나' 모습을 이걸로도 하고 저걸로도 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나오게 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서 응신으로 돼 주느니라,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에 보살들을 헤아릴 수 없이 낳아서 원하는 중생들에게 모두 하나로 응신이 되어 주십니다. 또,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한쪽에는 문수 보살, 한쪽에는 보현 보살 이렇게 모셔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으면 움죽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보현입니다. 그러니까 삼심이 바로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할 때가 있고, 생각을 냈다 하면 움죽거리게 됩니다. 저기 있는 거 가져와야지, 한다면 벌써 일어나서 움죽거립니다. 그것이 그대로 바로 법신이자 부처이자 보현이에요, 그냥 그대로, 따로따로 배울 게 없어요, 따로 따로 배우다간 뭐, 이 생이 다 가게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왼팔은 문수요, 부처님의 바른팔은 보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팔을 생각해 보세요. 내 왼팔은 문수이고, 바른팔은 보현이다 이렇게요. 왼팔은 바른팔을 도와 주거든요. 바른팔이 혼자 쥘 때는 혼자 그냥 독단으로 해 버려요. 그러나 어디가 좀 무겁다, 이러면 왼팔이 같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한 개체에 다복하게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속에 영계성 · 인과성 · 업보성 · 세균성 · 유전성, 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 차이일 뿐이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할 것을,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 지금 모두 알아들으려면 컴퓨터에 입력했다고 하면 알 거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에 입력한 것처럼 오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이니까요. 그래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해라 이겁니다. 굴려서 그것도 입력을 해라 이거죠. 그대로 입력을 하면 그대로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굴려서 거기다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헌 물이 나온 것도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새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그냥 바꾸어서 넣어라 이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살아나가는 데 말입니다.

해탈지견향의 묘법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서 모든 게 다 다가오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게 없어요. 남이 사니 그거 대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러더라도 똥누는 거 대신 눠 줄 수도 없고, 먹는 거 대신 먹어줄 수 없고, 죽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대신 해 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틋하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한 것이 그냥 거기서 또 나오는 구나, 이러는 거죠. 나 공부시키느라고 참 잘 나온다, 그러고선 그냥 또 거기다가 맡기는 거죠.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어, 그 저 내일이라는 생각도 없어, 너를 믿으니까, 네가 끌고 다니니까, 네가 형성 시켰으니까, 하고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해서 믿고 놓는 거죠. 바꾸어서 대치를 해서 놔야만이 바뀌어져서 나오지 그냥 놓으면, 너 할 대로해라 하면 아무 것도 입력되는 게 없어요. 너 할 대로해라 그것만 입력이 되는 거죠.

번뇌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번뇌 아닌 것이 하나나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전부가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번뇌이지 그것이 도를 이루어 나가는 도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고 한다면 여여하게 그냥 가지런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생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세계에서 한번 이런 공부를 해서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그래서 '한 생 좀 어려우면 어떻고 한 생 좀 고달프면 어떠냐' 더불어 같이 고달프지 여

☞ 20면으로 계속

가족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번뇌가 곧 道 이루어가는 부처님 법

☞ 19면에서 계속

러분만 고달프라고 한 거는 아니죠. 자나깨나 나도 여러분 못지 않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는 피가 흐를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본의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사람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세계에,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면, 마음으로써 마음껏 건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는 공부

우리 세상이 좁고 우주 세상이 넓다고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나 하세계에서 사는 것들이나 상세계에, 즉 말하자면 우주에서 사는 세상이나 똑같아요. 크고 작을 뿐이죠.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 줄고, 또 줄이고 늘이고, 또 속아 내듯이 별성도 역시 그렇거든요. 지금 지구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초월돼서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여여하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자는 거, 할 거 없이 뭐, 전체가 다 고정되지가 않다. 그냥 찰나찰나 바뀌어서 돌아간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 만나면 이 소리 듣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소리 듣고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되고 저거 보면 저렇게 생각되고, 아니, 고정되게 한 생각을 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연연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늘이 무너져서 다 깨진다 하더라도 너만 깨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하하하…, 세상에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이 모습은, 그런데 뭐 죽는다고 해서, 그게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씨앗이 남습니다. 그 씨앗이 남아서 또 심어지면 그게 또 모두 먹이고 되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부를 하면 그 종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씨앗이 아니라 형체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마음껏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해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접시비행기로 물체가 보였지만은 그건 물체 아닌 물체죠.

내가 공부하러 다닐 때는 물 한 모금 먹는 걸로도 가르쳤어요. 길을 가다 너무 기력이 없어 쓰러졌는데, 샘물이 있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걸 먹는 데 말입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먹고 세 모금 먹으니까, '네가 그렇게 여러 모금 먹어도 소용없다.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이고, 아홉 모금을 먹어도 한 모금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정되게 아홉 모금이 따로 없고, 한 모금이 따로 없고, 하루가 따로 없고, 삼천년이 따로 없다, 이 세상은 모두가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 먹은 몫이 된다 이런 뜻이고, 둘째는 삼천년이 있어도 지금 현실이고, 하나도 셋이 되고, 셋도 하나가 되고, 그거를 알게 되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둘 아니게 알게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은 질문한다고 뭘 자꾸 적어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살면서 문득,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나서 허심탄회하게 아, 요런 건 뭘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질문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죠.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형! 이게 뭐야.' 이러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얕은 것도 아니고, 단지 평등한 가운데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녀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자유스럽게 과거를 드나들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현실로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뚱이와 정신계, 영원한 자기의 정신이 없다면 자기는 지금 송장이 될 텐데 어떻게 그게 둘입니까? 그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병원에 가서 마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다리를 잘라 내는지 뭘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시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몸뚱이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뚱이 속에 또 생명들이 무수하게 들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과거를 인정하고 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거든요, 속에. 그 속에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서부터 생명들을 귀하게 생각하라. 너의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너도 예전에 그렇게 해왔느니라, 그렇게 거쳐왔느니라.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고 전자에 모자랐을 때의 너로 보라. 네 생명같이 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헌물 나오면 다시 굴려 새물로 바꿔쓰라

업신여기지 말고 모든 생명을 나로 보자

하나도 셋 셋도 하나

그래서 이 오분향만 잘 알면 오계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나는 이 오계를 여러분한테 전할 때 좀 달리 했죠.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통질 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나는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네 생명같이 생각하라, 또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술을 먹어도 식구들 괴롭게 하지말고 너가 괴롭지 않게, 망주로 하지말고 약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을 안팎으로 어렵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 놓고 가면 자식들까지도 언짢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부로 맺었으면 잘났든 못났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해라, 그저 요 한 생 살 거를, 이 모습으로 뭐 천년만년 살 거라고 이쁘니 미우니 하느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좀 그만 두고, 그저 어차피 만났으니 인연이다, 하고 그냥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얼마나 귀찮아요. 만들어 놓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털고 살 거를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는 그냥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자식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그렇게 남겨 놓고 간다면, 일심이 천심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요 다음엔 뭐가 또 좋을 겁니까? 또 그런 지경을 자기가 당해야 할 테니, 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했지요.

전생에 마부가 당나귀에게 어떻게나 심하게 굴었던지 이 생에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렸던 마부는 아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맞았던 남편이 그저 술 한 잔 먹었다 하면 들어 와서 그냥 아무 거나 들어서 팽개치고 치고 박고 이러니 부인이 멍들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똑 자기가 당나귀를 때렸듯이 그렇게 받는데, 지금 같으면 뭐 이혼했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바지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야 합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그건 인과응보니라. 네가 전자에 마부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때렸느냐.

네 남편이 바로 그 당나귀였고, 그 당나귀를 때린 너가 바로 아내가 됐느니라.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내 어찌 하겠느냐만은 이제 마음을 고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돗자리를 말아서 꼭 매서 남편이 술이 취해 들어오면 손쉽게 집어서 때릴 수 있게끔 해 놔라. 그런다면 돗자리 줄기마다 몽둥이가 되니까 마부가 당나귀를 때린 그 수효대로 되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돗자리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 한 이틀인가 사흘, 그걸 집어서 치고, 치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먹었지?" 하면서, "그런데 자네는 내가 왜 이렇게 때리지, 이상하네? 이 약한 몸을 내가 왜 이렇게 때렸지?"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더니만 그 날부터 때리던 것이 싹 없어졌답니다.

업 녹이려면 관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봐! 당신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속에 업식들이 자꾸 충동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신 남편은 참 착해."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업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관하고 남편도 자꾸 관하게 좀 해라고 하는 겁니다. 관하는 게 돈이 드니 못하느냐, 재산이 없어지니 못하느냐, 자기네들 자기 뿌리를,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지 누굴 믿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어딜 믿을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삶이 생기고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면서, 반갑고 즐겁고 이런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춥거나 덥거나 그걸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긴 조막댕이만한 그 모습을 싫다고 안하고, 얕보지도 않고, 그다지 높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좋을 뿐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래요. 지금은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지만요. "스님, 글쎄 꿈에, 천야만야한 데를 그냥 뛰래요. 그런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해골이 널려 있고 길은 두 갈래로 있는데 그 천야만야한 데를 그냥 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뛰지 말고 네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 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꽉 감고 그냥 다리를 턱 떼어놓으니까 다리가 끈적끈적한 것에 묻은 것처럼 착 붙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 가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두 갈래로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아주 험한데 지름길이라고 하고 한 길은 아주 가기 좋더랍니다. 그래서 험한 데로, 지름길이라니까 들어섰대요. 급하니까,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다고 가는데 해골바가지가 쪽 늘어섰는데 아, 거기 당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죽든지 살든지 그냥 그까짓 거, 이 세상에서 살면 뭘 하고 죽으면 뭘 하느냐 하고 그냥 하염없이 가다보니까 왕이 사는 큰 대궐 같은 데가 나오는데 보니깐 아무개 왔느냐 그러 더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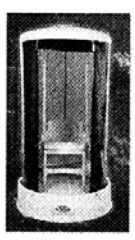
그래서 보니까, 머리카락 한 알갱이를 들고는 '이게 네 머리카락이니라. 요 머리카락 하나에 네 인생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을 쥐고선 아무개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죽으나 사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그 아래를 보니까 바다로 화해서, 그 바다 가운데서 왕관을 쓰고 법륜마크가 그냥 번쩍번쩍 금으로 됐는데 거기서 나와서는, '너무 상심말고 떳떳하고 여여하게 살라, 너는 부처님께서 인정을 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꿈을 꿨다길래 그랬죠. "꿈꿨다고 자만하지 말어. 올라가다 떨어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그래요. 그저 항상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니깐 어떠한 것도, 사는 데에 지장이 없고 어떤 게 닥쳐도 공부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금방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 찰나에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자기를 자기가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자기를 자기가 우습게 보지말고, 자기를 자기가 높이지도 말고, 그냥 중심에 심봉을 꽂고, 아까 오분향 얘기했죠. 그렇듯이 다지고 나간다면 그건 뭐 100% 성공이라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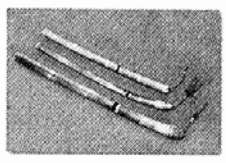
여러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저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 걸 보니까 참, 저 양반들이 부처지 다른 것이 부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부처님들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 이러죠. 너무나 흐뭇해서요, 괴롭고 분잡하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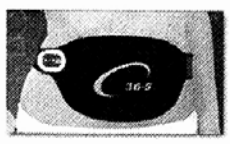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5년 12월 3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교 최대 인터넷 쇼핑몰 – 마하몰
www.hamallok.co.kr 02)732-1522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 × 90cm × 172cm
· 중량 : 본체-32kg 의자-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죽 비

· 뿌리죽비(대) 30,000원
· 뿌리죽비(소) 20,000원
·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 죽비세트 - 뿌리(대)뿌리(소) 일반형 53,000원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0마디 이상 들어가며(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玉 건강벨트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삼보죽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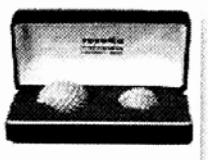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신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용량 : 600g / 가격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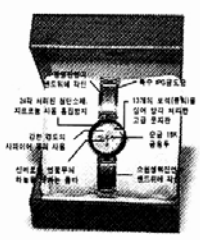
사이버 에밀레 종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을 모듈은 신종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 정사각틀 에밀레종 : 210,000원
· 팔각틀 에밀레종 : 250,000원

만다라 옥침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을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65,000원(※ 아로마오일 10ml 포함)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중풍.치매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 30,000원

연꽃 불자시계



추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임목108염주)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남성용.여성용 각각 119,000원

합천 전통 한과

한과 등가구 (2.75kg) 150,000원
한과 바구니大 (1.8kg) 80,000원
한과 바구니中 (1.1kg) 60,000원
한과 오동나무 (1.8kg) 50,000원
한과 잔치방 2호(0.6kg) 22,000원
한과 잔치방 3호(1kg) 33,000원
한과 잔치방 4호(1.5kg) 45,000원
경남 합천의 해인사 법경소리가 낭낭하게 들리는 가야산 자락에서 재배된 찹쌀과, 깨, 콩등 청정 원료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게 재현해낸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Dr.반다시(의자용)방석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옥(玉) 다기세트

각종 질병치료에 쓰이던 중국의 신강성 연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끊어졌으며 오늘날 여러 질병에 건강증진작용하는 한국춘천연옥(韓國春川軟玉)이 세계 유일한 제일 좋은 연옥이 되었다.
·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 가격 : 330,000원

참선 명상 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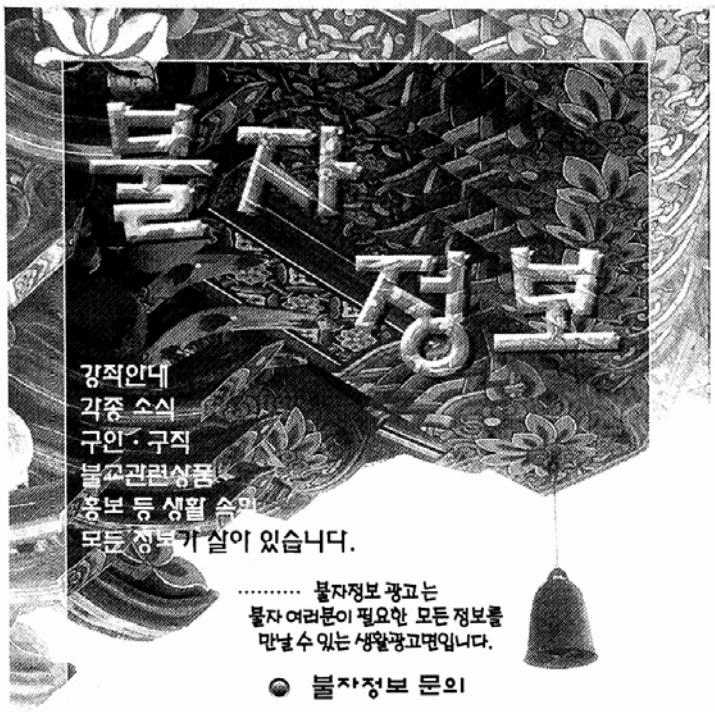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갈대 쥬스 잔 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백화향 선물세트

· 백화향 + 신지단향 + 천연목향 + 향꽂이
· 가격 : 50,000원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김창본
011) 545-7252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17시
주 5일근무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55세
전 화 : 02) 3434-0447
02) 3434-0481
※ 의욕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신문염송 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개의 방대한 양의 본 공안 한 칙 한 칙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딸려 있다
비로소 한문 신문염송 을 역적한 대원 문재현 선사는 세계최초로 신문염송 전 공안에 대해 첫째, 난자 해석에 의한 번역이 아닌 일체종지 선 통달한 지혜로 의도를 따라 번역하였다
둘째, 법문의 이해에 선사님들의 참 의중인 공안이 숨어있는가를 밝혀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셋째, 매 칙마다 노움말로 취모검을 휘둘러 보았다
http://www.zenparadise.com
☎(02) 737-8881 노 … 사

신년운세 / 소원성취 비법
후B年 한가지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가진 엄청난 비법)
◆ 신규사업, 삼재예방, 관재구설, 부부화합
◆ 결혼성취, 학업성취, 시험합격, 사고예방
감정료 1인 2만원(감정료 후불) 3일이내 상세한 감정서를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지장선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종무원 모집
▷ 30~40대
(신심있는 남녀 불자)
▷ 숙식 가능한 자
▷ 컴퓨터 능숙자(학력 불문)
경북 군위 인각사
054)383-3757
011)821-2346

공양주 보살님 구함
(울산)
052)211-1009
011)9027-8207

출가한지 4년된 사미승입니다.
중앙승가대 부분에 부전자리 원합니다.
(경인지역 가능)
054)762-9097
017)515-752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전스님도 행자도 구함)
천안 종무소 :
041)584-6674~5
주지실 직통 : 041)584-6676
수행여건 좋음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좋은 인연 맺기를 원합니다
작은암자에 비구니 스님 입니다. 산과 자연속에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가족 원합니다.
■비구니스님, 노스님, 보살님 혹은 건강상 휴양이 필요로 하신 스님 연락주십시요.
연락처 : 054)338-1238
E-메일 : yh200020@Kornet.net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행자 전용교육장 / 남 · 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수원근교 사찰
031)375-7083

기도, 공부할 분
심신을 수련하고 공부 정진 하실 불자님 모십니다.
2인 1실 원룸 방
청정도량 정안사
031)375-1831

공양주 보살님 구함
※ 급구
02)386-0926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아산
사찰 운영하시면서 수행하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기도 정진하고 휴양 하실 불자님도 모십니다
011)766-88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나이 : 50~65세
- 위치 : 경북

054)452-0845
054)452-6064

사찰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기도 이천
- 사찰부지 : 250평 임야 500평 법당 26평 지장전 : 12평 (전통목재건물) 요사 35평
- 전세 : 1억 5천
- 가액 : 3억 5천, 전세 후 매입 가능 교통 A급 전경 A급 서울 30분 소요거리

031)637-0325

男女철학원생모집
과 목 풍수, 사주, 직명, 궁합, 관상, 부적
과 정 초급반, 고급반, 개원반, 자격증반
강 사 원장직강 (사주비전外 100여권 저술)
사주 · 김정 의뢰하실분(3만원입금후 전화요)
계좌번호 기업은행 012-027395-01-017 달마사
卍 달마사 포교원 달마스님
(051)328-5551 (051)312-4804
(0 2)999-5551 · 999-4804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 (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31)375-7063 (창건주 직접)

포교사업이나 사회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2리
- 평수 : 2만 6백평(뒤쪽산 경계선에 약 10만여평의 방치된 땅이 있음)
- 가액 : 평당 5만원(직거래 원함)
- 교통 : 매우 편리함 (마석에서 현장까지 승용차로 10~15분)
- 시설물 : 기옥 2동(46평), 우사(80평) 및 부대시설, 식수탱크, 전화, 전기

031)595-4436/011)9094-4439

사찰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사평에서 백인미술관 대원사 부근
- 특징 : 아늑하고 조용한 수행도량 정남향에 자리한 명당터 사찰 선방 암자 토굴 적합 ● 종교부지 1000평 전 900평 건물 5동 총건평 70평 목조 건물 지붕간판
- 가액 : 2억 5천만원 (답사후 마음에 드신 스님께 절충가능)

061)852-5357/019)601-323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대신동
- 대지 : 200평, 절 신축 법당, 산신당, 요사채 고급
- 특징 : 교통편리 (버스 정류소 50m) 고목, 대나무 울창
- 가액 : 5억 2천

016)651-1800
011)870-1463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300만원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옥천
- 법당 8평 요사채 3방 산신전, 용왕전, 대지 215평
- 가액 : 5500만원

011)9050-3035

토굴 안내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 특징 : 지리산 주능선 전망 (남향)
① 윤판황토집 신축 23평
- 부지 : 900평 ● 가액 : 1억 5천
② 윤판 너와 황토집 30평 보살 선방 가능
- 부지 : 1000평 ● 가액 : 1억 5천

016)551-87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지역
- 법당 : (목조) 33평
- 요사채 : 32평
- 사찰부지 : 1,000평
- 가액 : 5억 (절충가능)

017)532-5689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전철역 부근)
- 평수 : 3층 건물의 2층, 45평 (법당, 방2, 주방)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258-114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 723-4082
광진불사

암자 안내(급)
- 위치 : 경북 청도 북안 구룡산 자락
- 대지 : 17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2700만원 (절반가)

신도확보 놓치면 아까운 암자
011)813-3679 사찰정보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역 앞 3층 건물
- 2층 : 차와 사주공간 커피숍 실내면적 40평 보증금 500 월 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 3층 : 포교당 (불광사) 보증금 200 월 10만원 시설비 500만원 (부처님은 제외)

042)256-1707
011)9079-0134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약 600평
- 법당 : 약 16평, 산신각 : 4평
- 요사채 : 약 35평, 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울어진 청정지역의 기도 정진할도량으로 아주 좋음. 교통편리
- 가액 : 9천 5만원

043)832-478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내 암자
- 건물 : 법당 1, 요사채 2, 주방
- 특징 : 시내속의 산사, 바다보임 교통편리
- 가액 : 권리금 1300만원 월 20만원

055)646-276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000평
- 법당 : 요사, 주차완비
- 가액 : 8천만원

017)856-3617
055)854-520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70평
- 가액 : 1억 5천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2평
- 요사 : 40평
- 부지 : 450평
- 가액 : 2억 3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포교당)
- 요사 : 18평
- 가액 : 1500/30

017-210-5527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혜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 대지 : 438평 (종교대지 등기필)
- 건물 : 법당 31평 (목조 3포, 5포, 금단청필)
- 요사 : 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 명부전 : 10평 (단청필)
- 기타 : 주지실 사무실 포함 9평, 창고 약 4평, 주차장 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가능
- 가액 : 8억 (건물완공 4년, 총공사비 12억 들었음,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큼. 노스님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055)294-4889 02)351-4447 053)652-9598 02)326-1060

사 찰 안 내
사찰 전세
-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재
- 부 지 : 1,500평
- 법 당 : 25평
- 요사채 : 30평 (현대식)

※ 산세좋은 기도 포교 도량 임
- 전세액 : 5천만원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소재
- 부 지 : 8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70평 (현대식)

※ 도심소재 역사깊은 사찰 임. 뒤는 산임
- 양도가 : 2억 2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최하가격으로)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25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기름보일러 욕실완비 사찰 몇 마지기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7)552-7350
055)746-735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 바로 옆
- 인법당 ● 전세 : 2천만원
- 임대로 : 월 25만원

051) 516-0650
017) 252-2722

지리산 청학동 신선마을 서당 하실 분
- 위치 : 구 · 심곡 분교
- 면적 : 가. 대지 - 1211평 나. 건물 - 205평
- 가액 : 상담 후 가격결정 (임대 또는 매매)

011)569-5844
055)884-5840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철성탱화, 대복, 범종, (불단조각, 달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엠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옆 진경경찰서 입구
- 건평 130평 법당 70평 방 5개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특징 : 시설 일체 완비 양도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 법회가능

055) 326-0671
011) 843-5672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함양 용추 계곡 옛날집 1채, 화장실, 전기, 전화 5,100평 도로에서 7분거리
- 특징 : 물좋고 폭포 산세좋고 함양 남덕유산, 거창 기막산 산천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음양 합수가 되는 명당 자리 임. 교통편리 함. 거창에서 안의 용추사까지 하루 13번 운행.

055)962-0082/963-33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건물 : 신축 6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 가액 : 약 1억 5천 (답사 후 결정)

055)643-7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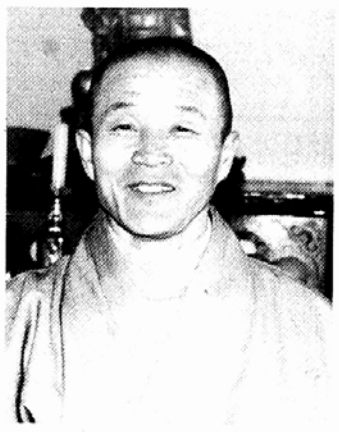
교환합시다
선착순 한분만 모십니다
- 건물 : 대구 중심 상가주택 6층 빌딩 (지하 1층 지상 5층)
- 매매가 : 3억 5천 (전세 6천 안고 월 100만원 나옴)
- 조건 : 산속 사찰이나 암자와 조건없이 교환 ● 부동산 사절 (주인직거래 현 포교당으로 활용하고 있음)

053)767-6705/011)508-1781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가야불교 맥 살리겠다"

김해불교사암련 덕일스님



"가야불교의 원류인 김해불교의 자긍심을 갖고 불교회관 건립, 불교교양대학 개강 등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펴 나갈 것입니다."

28일 김해불교사암연합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덕일(흥덕사주지) 스님은 인도불교의 전래지인 가야불교의 맥을 김해지역에 되살려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덕일 스님은 200여 회원사찰로 구성된 사암련 조직이 해를 거듭할 수록 절실해 지는 것이 불교회관 건립이라고 귀띔한다. 창립 11년째인 김해불교사암련은 내동에 40여평의 김해불교회관을 마련해 불교

불교회관 · 불교 교양대 건립

불우시설 위문 봉사단 추진

합창단 연습을 비롯 가야불교연구원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자체 건물이 아니라 비용이나 공간부족이 늘 아쉽기만 하다.

"불교회관을 건립하면 교양대학 개설이나 각 포교행사, 문화교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포교가 가능하다"는 덕일스님은 3-4년전부터 몇몇 스님들과 부지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재정적 난관에 부딪혀 있다.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는 불교회관 건립에 스님들 뿐 아니라 뜻있는 재가불자의 동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거사림회, 청년회, 운전기사불자회, 합창단 등은 김해사암련의 든든한 행동대원이자 재정적 후원자들이다. 특히 합창단원들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이나 양로원 등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쳐오던 것을 올부터는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을 본격화 한다. 현재 불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김해불교봉사단은 3월 정식 발대식을 갖는다. 덕일스님은 "거창한 사업에 앞서 김해지역 20만 불자의 철저한 정진과 자비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봉사활동, 교리 강좌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회째를 맞이한 불우이웃돕기 찬불의 밤 행사뿐 아니라 합창단(단장 한파스님)과 김해불교봉사단(단장 원공스님) 등 뛰어난 조직력을 활용, 4.8봉축 행사나 장유화상 기념 행사를 시민의 축제로 승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대에 발맞추는 불교를 표방하며 가야불교연구원에서 만드는 홈페이지에 김해불교사암련 소식과 법문, 교리 등을 지원하며 사이버 세상에서의 포교도 놓치지 않는다. 현재 준비중인 홈페이지 포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문이나 교리 등을 월간지로 다시 제작, 포교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5월 27일부터 4박5일간 부산 오륙도와 일본 큐수에서 국운 번영을 위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앞두고 있는 덕일스님은 "화합하는 김해불교의 전통을 이어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내 불교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해=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석남사 경내 소나무 고사

수령 100~200년…군 뒤늦게 실태파악 나서



◇고사 위기에 처한 석남사 경내의 고송들

울주 석남사(주지 상운) 경내 산책로변과 석남천 인근 야산의 수령 수백년의 소나무가 고사(枯死)위기에 처해 울주군청과 환경단체들이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참나무류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나무들이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해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와 잎들이 말라 앙상해 지는 고사위기에 처한 것.

이에 석남사는 지난해부터 환경단체를 통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시, 군과 연계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산책로 주변의 소나무 고사가 점차로 심각해지자 울산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측이 9일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뒤늦게나마 울주군청 산림과에서 실태파악에 들어 갔다.

상운스님은 "올 연말쯤 시나 군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참나무를 제거해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인 석남사 경내 아름드리 소나무숲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천미희 기자

부산 올 봉축행사 확정

4월17일 점등…29일 제등행진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부산봉축기획단'(단장 장산)은 14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획단 준비모임을 가지고 부산 봉축 기간과 일정을 결정했다.

장산스님을 비롯 주홍식 불교방송 총괄국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15일간을 봉축기간으로 정하고 3월 24일 결성법회를 갖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부처님 오신날 상징물인 탑 점등식을 갖고, 29일에는 제등행진을 개최해 부처님 오신 참뜻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 나눈다는 계획이다.

봉축기획단은 격주 수요일마다 준비 모임을 갖고 부처님 오신날 축제를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착안하고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광주사암련 회장 성오스님 등 신도 50명은 15일 광주우체국 앞에서 인도지진 피해돕기 탁발을 벌였다.

인도지진 피해돕기 '탁발'

광주사암련 · 32개 시민단체 구호 동참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스님)는 15일 성오스님을 비롯 문빈정사 주지 석장, 법륜사 주지 월인, 자운암 주지 경준, 흥령사 주지 상운스님과 신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우체국 앞에서 인도지진 피해돕기 자비의 탁발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광주불교사암련 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인도지진피해돕기광주시민모임은 지난 9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인도지진피해돕기 광주시민 공동모금의 날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경주남산 석탑 4기 복원

문화재硏 도록도 곧 펴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가 경주 남산의 석탑 4기를 복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남산석탑 복원계획에 착수한 연구소는 650곳의 남산 유적지 가운데 국사골 제1사지, 작은 늠비봉 사지, 기암골 제3 · 4사지, 지암골 제2사지의 석탑과, 용장골 17사지의 모전석탑을 올해 복원할 계획이다. 특히 용장골 모전석탑은 작년에 탑상륜부 보주, 3층옥신석, 연화문수막새, '上?四月日'의 명문 등이 발견되어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받고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 이윤석 학예사는 "올해 동서남산의 석탑4기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높이고 앞으로도 유물 복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불상에 대한 복원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4월경 발간 예정인 남산 종합도록 '본문편'이 조만간 발간된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본문편' 발간에 맞춰 남산의 종합보존정비계획서 초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대원사 소년가장에 장학금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11일 보성군내 소년소녀 가장 35명(17가구)을 초청해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보성군의회 안시욱 의원과 군청 문준자 사회복지과장, 대원사 자비



신행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스님은 가구장 장학금 20만원과 백미 20kg, 라면 한 박스와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충북불교협 도정발전 법회

충청북도와 충북불교협의회(회장 지명 · 법주사주지)는 10일 도청에서 도정발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종산스님과 이원종 도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스님들은 2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폭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하는 성금을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4월2일 비구 수계산림

총무원(원장 정대)은 제21회 단일계단 비구계 수계산림을 오는 4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한다. 수계대상은 97년도까지 사미계를 수지한 예비승으로 중앙승가대학과 각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자, 선원 8안거 성만자, 기초선원 교과안거 이수자, 4급 승가고시 합격자 등이다.

계율전문 승가대 개강

교육원(원장 일면)은 26일 계율전문 승가대학인 파계사 승가대학(학감 철우) 개강 고불식을 봉행한다.

파계사 승가대학은 기본 교과과목은 다른 승가대학과 동일하지만 계율과목을 강화시켜 졸업과 동시에 행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습의사 자격을 부여하는게 특징이다.

한암문도 10~11일 연수



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10~11일 1박2일간 한암문도 및 오대산 도제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연수회는 월정사 총무원행스님의 인사말, 회주 인허스님과 주지 현해스님의 법문을 비롯 독경,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금강불교대 졸업식

서울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 제17회 졸업식이 10일 서울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 천태학과 6명, 불교학과 146명, 교법사과 32명이 새롭게 배출됐다. 이날 천태학과 임현수 이서인 등 9명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각종

신당5동 어린이집 수탁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이 8일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신당5동 어린이집을 수탁받았다.

신당5동 어린이집(원장 조순옥)은 중구 신당5동 123-1번지에 위치한 어린이 복지시설로 총 181평의 지상 3층 건물이다. 13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불정심인당 감사패 받아

대구 불정심인당(주교 회성)은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복지불사를 전개해온 공로로 2일 김주환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불정심인당은 지난 3년여간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밑반찬을 제공해 왔으며 후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는 일석 금강회장이 받았다.

천태종

인도지진 성금 1천만원

관문사 주지 춘광스님은 12일 주한인도대사관을 방문, 구자라트주 대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관문사와 천태종 총무원이 4일부터 9일까지 모금한 성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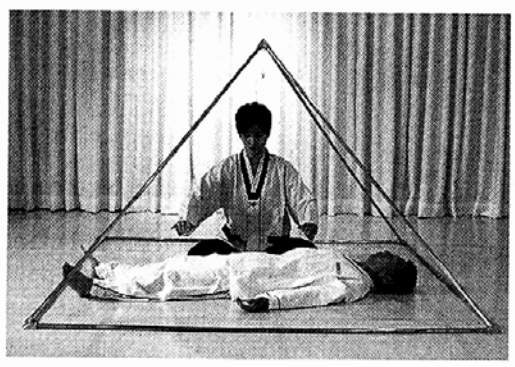
총지종

총무부장 등 임명

혜암 통리원장은 15일자로 총무부장에 원송(밀인사), 사회부장에 대원(덕화사), 교정부장에 법등(총지사) 정사를 각각 임명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기공.힐링.명상.자연치유센터 다클리닉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신의 의문은 풀리지 않을것입니다.
몸,마음,영혼의 정화와 영적인 각성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최고의 상담가에게 전생,현생의 의미와 목적을 들어보십시요.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요.



프로그램 안내
@리딩(Reading)요법 - 전문카운셀러가 상담자의 기운과 영혼의 파장 감지하여 상담자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각성.
@전생 퇴행 요법 - 전생퇴행으로 몸과 마음의 정화와 의식의 확대 인간관계 해결등, 많은 문제 해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수 있습니다.
@힐링(Healing) - 막히고 울체 되어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치유력을 극대화
@영능력개발 -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여 초감각 개발 및 힐링에너지개발.
@치유기공 - 활.기공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
@소명수련 -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깨닫게하는과정
다클리닉 강남센터:02)3218-7611
여의도센터:02)786-2333 광주센터:(062)366-1533
홈페이지주소 http:www.dahnclinic.co.kr/(원장님과직접 상담가능)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험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남짝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딜케표지 · 금박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故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음림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불교교양대 늘고 있다

전국 10여곳 원격 화상강의…해외불자도 관심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명 스님들의 설법 및 강의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버 불교대학이 늘고 있다. 특히 출석과 학점관리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불자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이미 전북불교대학이나 동산불교대학에는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 10여명의 교포불자들이 입학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의와 학사관리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의 확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부처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참다운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불교대학을 개설한 곳은 전북불교대학(ebuddhism.co.kr) 영남불교대학(cyberbuddha.or.kr) 동산불교대학(dongsanbud.org) 무불선원대학원(moobool.com)부산불교교육원(bulgyo.or.kr) 불광불교대학(bulkwangsa.co.kr) 인터넷불교대학(buddhistweb.com) 법화경교육원(any.to/saddharma) 등 10여개에 이른다.

전북불교대 사이버대학은 현장의 강의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직접 중계하며, 강건기 학장의 불교기본교리 96강을 화상으로 편집해 원거리 학인들에게 제공한다.

인터넷불교대학도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원격강의 교육시스템을 도입, 동영상으로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좌측에 강의노트가 작동돼 입체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불선원대학원은 유일하게 동영상 강좌 당 1천원씩 유료 사이트로 운영되며, 원하면 요약식 강의 노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계의 사이버불교대학들은 1년간 꾸준히 기술을 쌓고,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어 불자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사이버불교대학들은 매주 700여명이 수강하는 등 수강인원이 점점 늘고있다.

사이버 불교대학은 일반사회에 커져가는,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사이버라는 열린공간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포교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넷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신진욱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바른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 · 공간적인 문제로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사이버 교양대학 입학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대불청 항의방문단은 세계일보를 방문, 불교왜곡 기사 보도에 대해 신문지상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불교왜곡 사과-재발방지" 요구

청년단체들 국민 · 세계일보 항의 방문

교계의 청년단체들이 불교 왜곡기사를 내보낸 국민 · 세계일보에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방문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익석 서울불교청년회장을 비롯해 최윤규 대불청 종교평화위원장, 전준호 조계사 청년회장 등 4명은 13일 세계일보를 방문해 불교 왜곡기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불교계 신문 및 세계일보에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계일보 김찬호 상무를 비롯해 산찬균 주필 등 4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최윤규 위원장은 "'불교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재한 것은 중앙 일간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신찬균 주필은 "발행인이 외국 출장에서 돌아오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공식적인 사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불청 항의방문단은 국민일보를 방문해 이승한 종교부장에게도 총 11차례에 걸쳐 국민일보에 연재해 불교를 왜곡한 김성일교수(한세대교수)의 '창조사학 특강'에 대해서 교계 및 국민일보에 사과문 게재를 요청했다.

최윤규 대불청 종교평화위원장은 "두 신문사가 사과문을 신문지상에 게재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은 물론 항의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진각종 청년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 언론기관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BBS작년 광고수익

99년 비해 40% 증가

불교방송의 광고 수익이 99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약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교방송의 99년 총 광고수익은 71억원인데 반해 지난해에는 130억원의 실적을 올려 약 39.1%의 높은 성장률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12억원 정도로 불교방송 개국이래 최고의 광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MBC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100%에 가깝게 광고시간을 판매함에 따라 그 효과가 종교방송 채널에까지 파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교방송 광고사업부 안훈 차장은 "방송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더 시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혔다.

김주일기자

훈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지난 97년 일본인 전 직장교의 증언으로 50여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던 훈할머니(한국명 이남이 77)가 고난의 세월을 뒤로한 채 15일 별세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사위집에 머물던 훈할머니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쯤 노환으로 숨졌다는 현지 공관의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대구 경불련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교후원회의 도움으로 영구 귀국한 할머니는 노령에다 언어문제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98년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훈할머니는 사망하기 직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식 기자

지리산 살리기 '천도재' 연다

5월26일 '생명 · 상생' 발원… 100일기도 ·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을 살리고 지리산에서 유명을 달리한 넋을 달래는 '지리산 천도재' 행사가 1백여 범종교 시민 · 환경단체 공동주최로 16일부터 시작됐다. 190개 종교 · 시민 ·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올 한해를 '지리산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종교계 100일 기도, 백두대간 종주, 지리산 종주 및 850리 도보순례(5월 1~25일), 지리산 천도재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행동은 16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범종교계 100일 기도 입재식과 백두대간 종주 출정식을 가졌다. 입재식에서는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법문하고 대표들이 나와 기도를 올렸으며,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 등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종주단은 17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기원제를 올린 뒤 4월 26일까지 백두대간 종주에 나섰다.

5월 26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열리는 천도재에서는 지리산에서 희생된 유주무주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시민단체 연대회의' 27일 출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단체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00여개 종교 · 시민단체들은 27일 오후 1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가칭)'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식을 갖고 시민사회의 총역량을 결집해 우리사회 제반의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 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 입법 과제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탈북자 남한물가 체험

불교자원봉사연, 21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가 탈북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남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활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일씨앗가족 2001' 제2차 행사를 21일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탈북주민 교육기관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 45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사천왕사에서 집결해 동대문시장으로 이동해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등 남한사회의 실물경제를 이해하는 현장학습을 하게 된다. 이어 경복궁 관람 등 우리문화 체험시간도 갖는다.

(02)723-6258

한명우 기자

"감은사 동탑 이상무" 문화재청 실측조사

감은사지 동탑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306호 23면〉와 관련, 문화재청이 15일 실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 참여한 김동현(동국대 명예교수) 문화재위원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은 원래부터 기단부가 탑의 하중을 견딜 만큼 견고하지 못해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보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우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과는 다른 견해"라며 "행정 당국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보물급 문화재 털이범 구속

사찰 · 박물관서 100억대 유물 훔쳐

해남 대둔사 성보박물관 등 사찰과 박물관에서 100억원대의 보물급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절도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문화재사범단속반은 14일 전국의 사찰과 박물관에 보관중인 보물급 문화재를 훔친 서 모(39)씨를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으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 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문화재를 시중에 밀거래한 골동품 수집상 정 모(62)씨 등 7명을 장물 취득 등 혐의로 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씨와 박 씨는 지난 93년 해남 대둔사 성보박물관에서 부모은중경 등 3점을 훔친 데 이어 지난 해 9월에는 대방광불화엄경 7점, 금니묘법연화경 2점, 무언동자경, 금자무언경 등 13점을 절취하는 등 지금까지 5회에 걸쳐 100억 원 상당의 문화재 35점을 훔친 혐의다.

권형진 기자

어머니 시신기증에 감동

아들 · 며느리도 기증서약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기증하자, 아들과 며느리도 어머니의 깊은 불심을 받들어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지난 5일 임종한 故 이사회(91) 보살의 시신은 "쓸모없는 육신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기증됐다. 이날 어머니의 시신을 기증한 아들 이민종씨(52)와 며느리 방화영씨(45)는 시신을 기증하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육신을 기증한 대신 불심을 남겨주셨다"면서 그 자리에서 생명나눔실천회에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故 장명진(80) 거사와 유회곤(43) 거사 역시 6일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시신을 동국대 한의과대학과 충북대 의과대학에 각각 기증했다. 장 거사는 수덕사 신도로 불심이 남달랐으며, 유 거사는 생명나눔실천회 회원으로 평소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왔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Avatar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 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의대입학과정)과		■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2월 24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 02)511-1080
E-mail :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 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6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 수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 : 25-6798171 팩 스 :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팩 스 : 02-511-1080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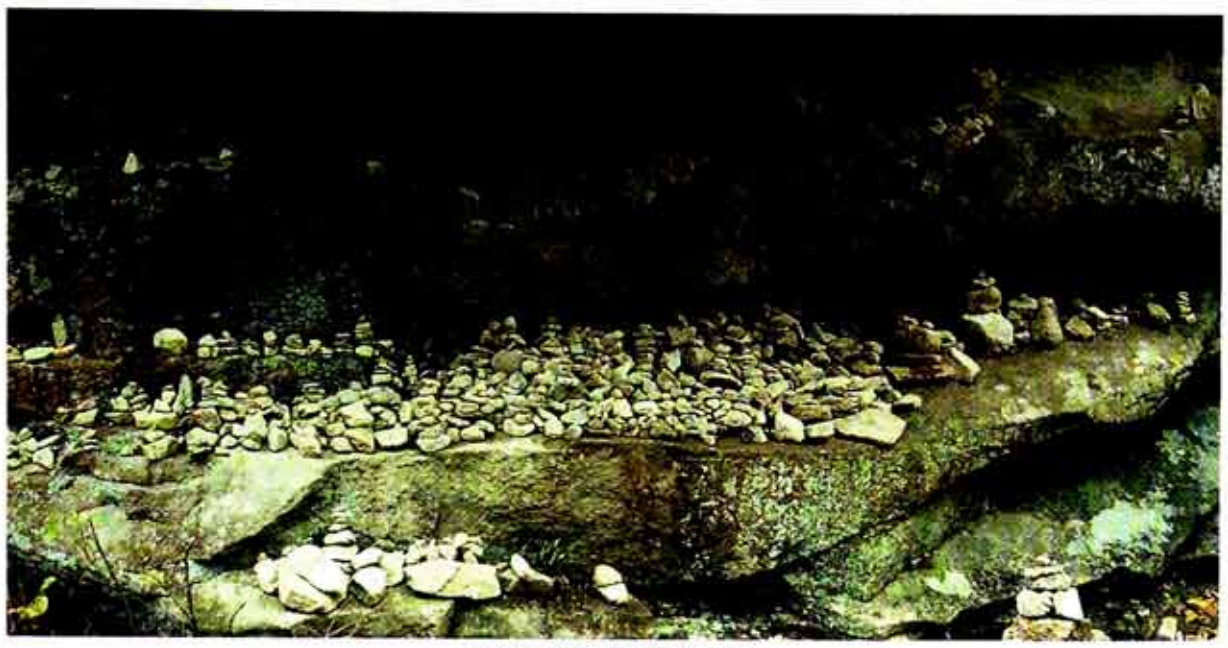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옥천 영국사 올라가는 길섶의 적석탑.

층층이 쌓인 사바의 소리

감성으로 보는 절

<3>길섶의 민속탑-적석탑

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 일주문? 글쎄, 하긴 사람의 집도 대문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정집은 몰라도 절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긴 실제로, 이제 정말 여기부터가 절이구나 하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일주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절은 그렇지 않다. 절은 열린 마음으로 돼야지 그렇게 그냥 맨눈으로 봐서는 결국 '쓰잘데없는'것만 보게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절은 어게 이거구나 하고 범부가 꼭 집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 곰곰이 되씹어 봐야 '아하, 이거로구먼!'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 주는 곳이 절이고, 그게 절에서 느끼는 참맛인 것이다.

길은 있어도 문이 없고, 마음의 문으로 찾으면 담도 없는 곳(무문관)이 불교의 세계인데, 절에 문을 떡 세워 놓고 이것이 문이요, 하겠는가?

요즘 '사찰순례'니 '관광단'이니 해서 명찰(절에 명찰이 따로 있나?)을 돌면서 절을 해설(?)해 주는 선생님들을 보는데, 그것은 절에서 '생각하는 멋'이니, 절은 무념의 맛이 최상의 멋이지!'과 '깨달음의 맛'을 말끔히 가셔 버리는 아주 멋쩍은 일 같아서 민망할 때가 많다.

절은 벽암록이다. 사바세계가 곧 다 화두인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화두를 절은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두를 받기 위해 절은 간다고 할까? 적어도 나는 그렇다. 따라서 절은 해설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불립문자의 세계인데, 왜 그처럼 '안경'을 씌워 화두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걸까? 왜 그런 일에 염심들인지, 참 난감한 일이다.

밑돌하나 놓고 소망하나 쌓고…
길옆 돌탑 다보탑보다 더 예뻐

나는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여러 절을 다녀보았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이한 현상에 놀라곤 한다. 하나같이 모두 법당을 향해 마치 쇠붙이가 지남철에 이끌려 가듯 부리나케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처럼 분주히 법당엘 가서 뭘 하려는 걸까? 불공? 부처님께 돈푼(희송이)깨나 놓고 소망을 여쭙는다? 좋지,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절에서 할 일이 그것에 그친다면 곤란하다. 불상은 부처님의 궁극적 세계를 표상할 뿐이다. 절은 그 궁극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상징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불상 앞에 백 배를 해 보았자, 아마 잘은 몰라도 부처님은 돌아앉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진짜, 간절히 바라시는 게 돈푼은 아니니까. 돈푼은 그냥 마음을 떠보는 정표쯤일 테니까.

절에 가면, 내가 산사의 중턱께 이를 때쯤이면, 나와 같이 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써 흡가분(?)하게 내려오고 있다. 부처님께 눈도장 찍었으니까 더 볼일 없다는 듯한 표정들이 정말 난 희한하다. 절엔 왜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풀이 있는가? 보물급 불상만이 불상이고, 국보급 문화재만이 가치가 있는가? 그건 색안경 쓴 미물의 잣대이겠지. 절에는 흙, 하다못해 돌 하나까지도 나에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곧 화두인데, 나는 늘상 놀라고 있는 것이다.

절에 가면 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곤 한다. 절로 가는 길을 절로 절로 따라가다 보면 길섶에 옴망좀망 서 있는 작은 돌탑의 행렬들! 길 따라 나름 따라 위태롭게, 때론 비틀거리며, 길섶에 몸 비켜 숨죽이고, 그리고 간절하게 층층이 쌓인 작은 돌탑이 왠지 나에겐 석가탑보다, 다보탑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보인다. 우리는 대개 선별된 세계를 지향하며 산다. 그것을 예술이라고 하여 숭앙한다. 불교예술이 장엄하기는 하나, 그 예술 자체에 매달리는 건 겉만 보고 사는 것이다. 그건 방편일 뿐이니까. 밑돌 하나 놓고, 소망 하나 쌓고, 그 위에 돌 하나 더 얹고 부처님께 빌고, 그리고 또 돌 하나 얹고 부처님께 절하고…. 그럴 때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그야말로, 대웅전의 금불상은 감히 엄두도 못 낸 채, 무지렁이 마음 속에 고이 모셔 놓은 무지렁이 부처님께 절하고 빌며 쌓아 놓은 이 적석탑이야말로 중생의 아픔이요, 아우성치는 사바의 소리가 아닐까? 나는 그것이 들린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다. 아, 왜 부처엔 화신이 있을까? 미륵사지 석탑 같은 어마어마한 탑을 쌓는 조탑 공덕은 감히 상상도 못할, 어느 무지렁이의 아주 하찮 것 없는 이 작은 돌칼 속에 이 세상을 구할 부처님은 연화장의 세계를 활짝 여실 것 아닐까? 탑만 탑이 아니라, 공들여 쌓은 탑은 다 탑이다. 공양탑이 따로 있나?

적석탑은 무문관의 문이요, 이것이 곧 염화시중의 화두가 아닐까? 불탑이 불교양식의 탑이라면, 적석탑은 우리네 얼이 절에 남은 민속탑의 원형이리라.

전생<사진가>

바로잡습니다 지난 회 사진설명 중 '유리보전'은 '용진전'이기에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해인사 장경보다 내용풍성

팔리어 장경 10 · 한국고승저술 20권 포함

한글대장경 구성 어떻게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완성한 한글대장경 320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동국역경원은 원래 250권 정도의 한글대장경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역경사업이 진행되면서 해인사 고려대장경을 번역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시대에 우리의 글로 새롭게 형성된 대장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320권으로 그 수량이 늘어났다.

다. 초대 역경원장 운허스님이 역경사업의 시작에 앞서 당시(1964년) 불교계 안팎의 지식인 100명에게 서신을 보내 이름에 대한 자문을 구했던 것. 당시 서신을 받은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민족혼과 문화적 자긍심이 어린 우리 문자의 이름인 한글을 붙여서 한글대장경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글대장경의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고려대장경은 소승의 경(經) 율(律) 론(論)과 대승의 경율론 및 현성집전(賢聖集傳:불교의 존경받는 스승들이 남긴 문집의 총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은 우리의 글로 새롭게 탄생한 문화유산이다. 고려대장경 전체를 번역하고 팔리어경전과 신라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저술들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다양한 대장경 가운데 가장 정확한 내용과 정교한 판각 솜씨로 세계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한글대장경 320권 가운데 290권이 바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정장을 번역한 것이다. 거기에 팔리어장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전들을 가려 번역한 10권이 포함되었다. 또 고려대장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한국 고승의 저술도 번역됐다. 원효스님의〈대승기신론소별기〉보우스님의〈나암잡저〉를 비롯〈초의집〉〈보조국사집〉〈원감국사집〉등 20여권이 한국찬술문집이다.

따라서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의 내용은 물론 그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불전들을 추가함으로 한글대장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서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한글대장경이란 이름은 특정인이 붙인 것이 아니라 경율론은 삼장(三藏)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는 세 개의 광주리라는 뜻이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술한 문장 전부를 말하고, 율은 불교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교단의 규범 등을 정리한 문장, 론은 후세의 수행자나 학자 등이 경 또는 율을 해석하거나 논술한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경율론을 삼장이라 하지만 이 삼장이 합쳐진 문서를 총칭할 경우 대장경이라 한다. 따라서 대장경은 시대나 내용 분량 등에 국한되어 규격화 될 수 없다.

팔리어장경이나 티베트대장경 한역대장경들이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꾸준히 번모해 온 것도 경전과 율전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물들이 논장을 형성해 오기 때문이다.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불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각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대장경은 하나의 생명체로 우리의 곁에 살아 있는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도솔암 삼사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곳에서 방생도하고 삼사참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삼사 참배 코스>

제 1 코스 : 도솔암 참당선원 선운사
제 2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소사
제 3 코스 : 도솔암 선운사 개암사
제 4 코스 : 도솔암 선운사 내장사

※문화기행 : 고인돌, 미당 생가, 전봉준 생가
※선운사의 동백꽃은 4월 초순경 부터 만개합니다.

- 도솔암에는 성지순례 참배객을 위해 항상 무료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 도솔암에는 대형버스가 절입구까지 올라갑니다.
- 도솔암에는 계곡을 막은 5만평의 저수지 방생장소가 생겼습니다.
- 하루전에 전화예약주시면 1000명분의 공양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도솔암
■전화 (063)564-2861, 561-0075 팩스 (063)561-4080

해동 제일 지장기도 성지 도 솔 암

